

# 초등 국정 통합교과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검토·집필 연구

현장 기반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

2021. 12.

# 초등 국정 통합교과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검토·집필 연구 - 현장기반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 -

연구책임자 : 정광순(한국교원대학교)

공동연구자 : 유성열(도담초등학교)

김수진(한들초등학교)

이찬희(연서초등학교)

연구보조원 : 민보선(천상초등학교)

연구협력진 : 변자정(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21년 12월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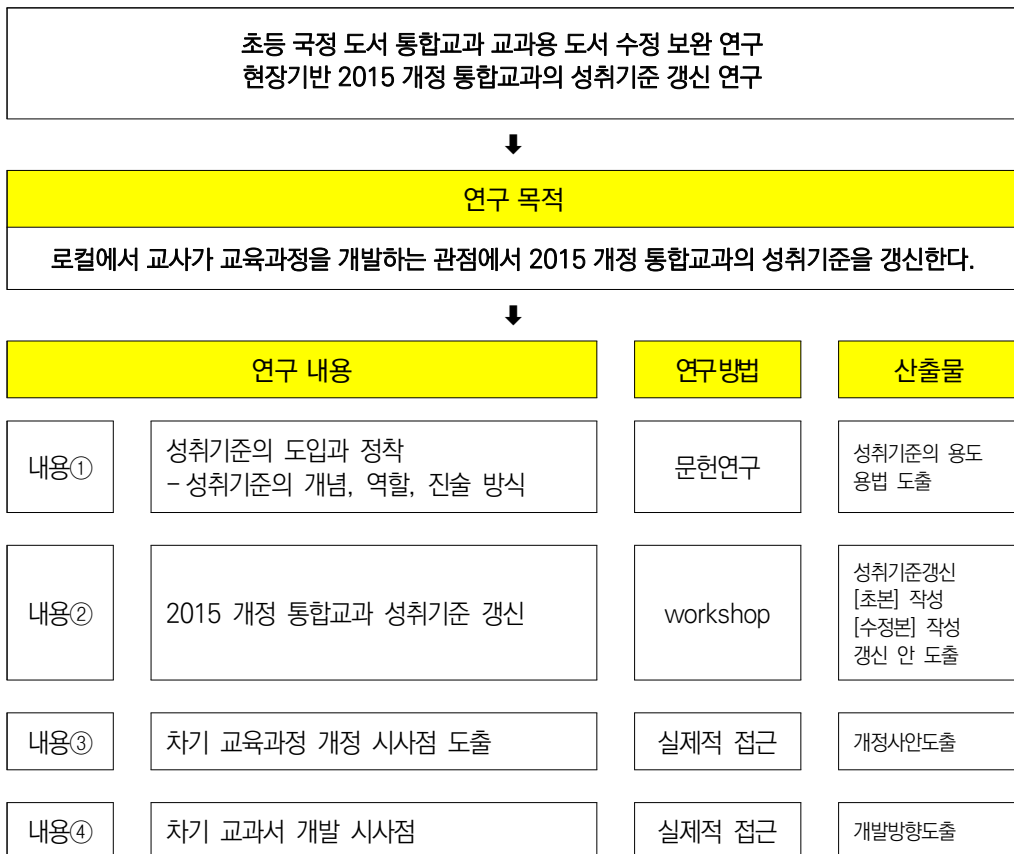


이 연구는 교육부의 2021년 초등 국정 도서 수정·보완 검토·집필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부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려 합니다.

## 연구 요약

본 연구는 2022 교육과정 개정과 후속하는 교과서 개발을 앞두고, 향후 통합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기준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를 그 방안을 현장을 기반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 10명이 workshop을 통해서 현 2015 개정 통합교과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갱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원칙을 모색하고, 차기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그림 요약-1] 연구 개관

연구 결과,

첫째, 대주제는 유지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주제가 1년을 주기로 하는 생활 리듬이라는 점에서 로컬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삶과의 관련성, 나아가서 로컬 교육과정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실용성 등으로 대주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갱신했다.

둘째, 소주제를 일부 수정 보완 개선했다.

- ‘학교와 친구’를 ‘친구’로 바꾸었다.
- 계절 주제(봄, 여름, 가을, 겨울)를 ‘맞이’와 ‘나기’로 구분하였다
- ‘가족과 친척’을 ‘가족’, ‘친척’으로 구분하였다  
(‘다양한 가족’은 다양한 나라의 다문화와 개연성이 높다는 나라로 이동하고, 가족에서 삭제하였다.

셋째, 성취기준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강화 했다.

- 성취기준 수: 81개(바17, 슬32, 즐32)→48개(바16, 슬16, 즐16) 축소
- 진술 방식 일반성 강화: 단문으로 수정  
바른 생활 가치 중심으로 주제에 열린 진술  
바·슬·즐 성취기준들의 술어의 의미를 통일하는 방향

〈표 IV-2〉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과 갱신 안 비교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본 연구의 갱신(안)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대주제	소주제
학교	학교와 친구	비01-01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슬01-01 학교 인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절01-01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꾸민다 슬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절01-02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학교	친구 [2비01-01] 우정을 나눈다. [2슬01-01] 친구 관계를 탐색한다. [2절01-01]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한다.
	나	비01-0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슬01-03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는다. 절01-03 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슬01-04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재능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 절01-04 나의 흥미와 재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		나 [2비01-02] 나를 사랑한다. [2슬01-02] 나를 살펴본다. [2절01-02] 나를 표현한다.
	봄맞이	비02-01 봄철 날씨 변화를 알고 건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슬02-01 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절02-01 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슬02-02 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종류와 쓰임에 따라 구분한다. 절02-02 봄을 맞이하여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		봄 맞이 [2비02-01] 생명을 존중한다. [2슬02-01] 봄 모습을 살펴본다. [2절02-01] 봄 놀이를 즐긴다.
봄	봄동산	비02-02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슬02-03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찾아본다. 절02-03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슬02-04 봄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 기르면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한다. 절02-04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봄나들이를 즐긴다.	봄	봄 나기 [2비02-02] 건강하게 생활한다. [2슬02-02] 봄 생활을 살펴본다. [2절02-02] 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본 연구의 갱신(안)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가족	가족과 친척	비03-01 가족 및 친척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실천한다. 슬03-01 우리 가족의 특징을 조사하여 소개한다. 즐03-01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슬03-02 나와 가족, 친척의 관계를 알고 친척과 함께 하는 행사나 활동을 조사한다. 즐03-02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한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가족	가족	[2비03-01] 서로를 존중한다. [2슬03-01] 우리 가족을 살펴본다. [2즐03-01]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비03-02 가족의 형태와 문화가 다양함을 알고 존중한다. 슬03-03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살펴본다. 즐03-03 집 안팎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슬03-04 가족의 형태에 따른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알아본다. 즐03-04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놀이를 한다.				[2비03-02] 친(인)척과 소통한다. [2슬03-02] 친(인)척을 살펴본다. [2즐03-02]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한다.
	다양한 가족			친척		
여름	여름 맞이	비04-01 여름철의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알고 습관화한다. 슬04-01 여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즐04-01 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슬04-02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 즐04-02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여름	여름 맞이	[2비04-01] 친환경적인 생활을 한다. [2슬04-01] 여름 모습을 살펴본다. [2즐04-01] 여름 놀이를 즐긴다.	
	여름 생활	비04-02 여름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즐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슬04-04 여름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계획한다. 즐04-04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여름 나기	[2비04-02] 여름 생활을 계획한다. [2슬04-02] 여름 생활을 살펴본다. [2즐04-02] 여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본 연구의 갱신(안)		
대주제	소주제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이웃	우리 이웃	비05-01 공공장소의 올바른 이용과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슬05-01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슬05-01 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슬05-02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시설물의 종류와 쓰임을 탐색한다. 슬05-02 주변의 장소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놀이한다.	마을	우리 이웃	[2비05-01] 이웃을 배려한다. [2슬05-01] 이웃과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2슬05-01]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비05-02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안다. 슬05-03 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다. 슬05-03 동네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슬05-04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우리 동네	[2비05-02]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한다.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살펴본다.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표현한다.	
가을	가을맞이	비06-0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슬06-03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 풍속과 비교한다. 슬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슬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가을	가을 맞이	[2비06-01]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2슬06-01] 가을 모습을 살펴본다. [2슬06-01] 가을 놀이를 즐긴다.	
		비06-02 추수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른다. 슬06-01 가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슬06-02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가을의 특징을 파악한다. 슬06-02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슬06-03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가을 나기	[2비06-02] 협동하고 협력하며 생활한다. [2슬06-02] 가을 생활을 살펴본다. [2슬06-02] 가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가을모습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본 연구의 갱신(안)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나라	우리나라	비07-01 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 슬07-01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슬07-01 우리나라의 상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슬07-02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슬07-02 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나라	우리나라	[2비07-01]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갖는다. [2슬07-01] 우리나라를 살펴본다. [2슬07-01]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다른나라	비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슬07-03 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슬07-03 다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작품을 전시·공연하고 감상한다. 슬07-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조사한다. 슬07-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즐기고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다른나라   <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통합교과교육과정에 개정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주제체제를 유지한다.

둘째, 주제를 개발하는 기준을 협의한다.

셋째, 성취기준 수는 소주제별 1개씩 축소한다.

넷째, 성취기준을 도착점보다는 기대점으로 제시한다.

다섯째, 성취기준 진술 원칙을 참조할 수 있다.

- 원칙1. 대주제에 간하지 않는 일부 성취기준을 진술한다.
  - 바른 생활과 성취기준을 주제에 열리도록 개발함
- 원칙2. 성취기준의 술어를 한 방향으로 사용한다.
  - 바른 생활(‘실천한다’라는 방향에서 일반동사 상용)
  - 슬기로운 생활(‘탐구한다’라는 방향에서 ‘살펴본다’로 일관)
  - 즐거운 생활(‘표현한다’는 방향에서 ‘즐긴다’, ‘놀이한다’로)
- 원칙3. 성취기준은 단문으로 진술한다.
- 원칙4. 성취기준은 포괄적인 문장으로 진술한다.

그리고 차기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교과서 재구성 가능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

- ~지도서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이수하는 성취기준 정보를 표현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주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교사도 자신의 교실에서 특정 주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
- 교사 활동과 학생 활동을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지시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개발 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

- 교사가 교과서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서에 빈 차시뿐만 아니라, 빈 단원을 둔다.



<b>I 서론</b>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b>II 연구 설계</b>	7
1. 연구의 구조	9
2. 연구 내용과 방법	11
3. Workshop 수행	17
4. 연구 추진 일정	23
<b>III 성취기준의 정착과 방향</b>	25
1. 미국의 기준 중심 운동: ‘standards’의 출현	27
2. 우리나라에서 성취기준을 안착시켜 온 과정	30
3. 교사가 성취기준을 상용하는 실제	43
4. 성취기준의 의미와 역할	56
5.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66
<b>IV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b>	71
1. 사전 workshop	73
2.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초본) 작성	75
3. 성취기준 갱신(초본)에 대한 심의	126
4.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수정본) 작성	128
5. 성취기준 갱신(안)에 대한 타당화	136
6.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 안 제안	143

<b>V 차기 통합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에 주는 시사점 .....</b>	<b>151</b>
1. 교육과정 개정에 주는 시사점 .....	153
2.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	160
<b>참고문헌 .....</b>	<b>171</b>

## 표 차례

〈표 II-1〉 연구진 업무 분담 .....	10
〈표 II-2〉 workshop 참여자 현황 .....	10
〈표 II-3〉 연구 내용 개관 .....	11
〈표 II-4〉 성취기준 관련 문헌 .....	13
〈표 II-5〉 workshop 진행 방법 .....	16
〈표 II-6〉 1차 갱신 안 .....	20
〈표 II-7〉 2차 갱신 안 .....	22
〈표 II-8〉 연구 추진 일정 .....	23
〈표 III-1〉 7차 교육과정 시기 성취기준 관련 정책 연구 목록 .....	30
〈표 III-2〉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 성취기준 관련 정책 연구 목록 .....	33
〈표 III-3〉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성취기준 관련 정책 연구 목록 .....	36
〈표 III-4〉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성취기준 관련 정책 연구 목록 .....	40
〈표 III-5〉 교육과정 시기별 성취기준의 주요 의미 .....	42
〈표 III-6〉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모습 .....	54
〈표 III-7〉 기존 문헌들에서 성취기준이 사용된 양상 정리 .....	63
〈표 IV-1〉 1차 workshop 세부 운영 계획 .....	74
〈표 IV-2〉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체제와 교과서 .....	77
〈표 IV-3〉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 원칙에 대한 합의 결과 .....	82
〈표 IV-4〉 성취기준 갱신에 대한 의견 종합 .....	84
〈표 IV-5〉 성취기준 갱신(초본) .....	119
〈표 IV-6〉 성취기준 갱신(초본)에 대한 심의 의견 종합 .....	126
〈표 IV-7〉 [수정본] workshop 자료(예시) .....	128
〈표 IV-8〉 [수정본] workshop 결과(주제 수정) .....	131
〈표 IV-9〉 갱신한 바른 생활 성취기준별 덕목 .....	133
〈표 IV-10〉 의미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성취기준 목록 .....	133

〈표 IV-11〉 성취기준 갱신 안 [수정본] .....	135
〈표 IV-12〉 최종 평정 결과(양적) .....	137
〈표 IV-13〉 성취기준 갱신(안)에 대한 질적 평정 결과 수렴한 의견 종합 .....	139
〈표 IV-14〉 [수정본]에서 [최종본]으로 보완한 내용 목록 .....	142
〈표 IV-15〉 성취기준 갱신 안[최종] .....	143
〈표 IV-16〉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과 갱신 안 비교 .....	145
〈표 V-1〉 현행과 차기 내용 체계(안) 비교 .....	154

[그림 II-1] 연구의 구조 .....	9
[그림 II-2] workshop 활동지(예시) .....	18
[그림 II-3]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의 평가 workshop(자료) .....	19
[그림 II-4] 교사의 성취기준 평가에 대한 심의진의 의견 개진 .....	20
[그림 II-5] 교사의 평가 의견 2차 수렴 .....	21
[그림 II-6] 2차 갱신 안에 대한 합의도 도출 .....	22
[그림 IV-1] workshop 활동지(예시) .....	74
[그림 IV-2] 성취기준에 대한 유지-수정-삭제 의견 현황 종합 .....	84
[그림 V-1] 현행과 차기의 내용 체제 비교 .....	154
[그림 V-2] 통합에 접근하는 방식과 주제 개발 .....	157
[그림 V-3] 영국 국어 교과서 .....	163
[그림 V-4] 봄1-1 1단원 학교에 가면 .....	165
[그림 V-5] 미국 사회과 교과서 .....	167
[그림 V-6] 봄1-1 2단원 도란도란 봄동산 .....	168
[그림 V-7]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종합 .....	169





#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주로 학교 밖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연구·개발하는 방식이었다. 즉 국가 차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한 것들을 협의하여 교과(국어, 수학 등)로 담는 방식이었다.

이런 교육과정 개정(개발) 협의체에서는 주로 외부 전문가, 특히 각 교과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이 개발 위원장을 비롯한 개발의 주요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이에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대부분은 교과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물론 국가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국제 및 국내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들의 미래 지향적인 요구들, 현재의 문제나 쟁점 완화 및 해소 방안들을 비교적 널리 고려하는 편이다. 이런 국가 수준의 교과교육과정 개발의 보편적인 특성들은 통합교과, 즉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하 통합교과로 칭함)과 교육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제4차 이후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이에 최근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는 교육자치에 대한 논의, 이에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좀 더 유연하게 발휘할 방안들을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학교나 교실에서 시작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넘어서 ‘교육과정 개발’ 시대에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교과서가 국가교육과정 고시에 후속하는 로컬의 교육과정 개발 혹은 교육과정 자료 개발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학교나 교실에서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해서 자신의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해서 실천하는 시대가 아주 가까운 거리로 좁혀졌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2 교육과정 개정과 후속하는 교과서 개발을 앞두고, 향후 통합교과 교육과정을 로컬교육과정 개발의 관점에서 볼 때,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를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듯이, 통합교과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출현하여, 제5차 국가교육과정 이후 2015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고 있다. 제5-6차 통합교과의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유관 교과교육 학자들이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그리고 제7, 2007 개정, 그리고 2015 개정 통합교과의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을 중심으로 유관 교과 교육학자들이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개별 공모 과정을 거쳐서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에 위탁하여 개발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교과교육과정 개발이 가진 일반적인 조건 및 특징은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령, 첫째는, 학교 밖에서, 둘째는, 외부 교과 전공 학자들 중심 개발이라는 일반성이다. 이렇게 개정하는 교육과정은 늘 현장 적합성과 적절성에 대한 크고 작은 비판들이 있었다. 학교 밖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자체에 학생의 발달 적합성 및 가능성,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의 학습 적절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학교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교 밖 국가 차원 및 주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다. 하향식이라면, 지금까지 주류 개발 방식으로 학교 밖 전문가들이 초안을 개발하고, 학교 안 당사자 특히 교사들이 이를 검토, 검증 및 수정하여 확정 고시하는 방향이다. 상향식이라면, 역으로 학교 안에서 초안을 개발하고, 학교 밖 관련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 및 검증하여 확정 고시하는 방향을 취한다. 하향식은 개발하는 교육과정 원천 중 교과와 국가사회문화 등의 학교 밖 환경의 요구를 일차적으로 반영하는데 용이한 방식이라면, 상향식은 학생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요구를 일차적으로 반영하는데 용이한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까지 하향식 방향에서의 개발 경험이 절대적으로 많다. 즉 상향식 개발에 대한 경험이나 사례가 거의 전혀 없는 상태이다. 상향식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상향식 개발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이런 시점에서 통합교과를 상향식 개발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적절한 교과로 본다. 왜냐하면, 통합교과는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한 세 원천인 교과-사회-학생 원천 중에서 특히 학생 원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담임교사들이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수준의 통합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현행 2015 개정 통합교과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현장 기반으로 갱신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현장 기반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을 갱신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취기준 관련 차기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원칙을 모색하고, 나아가서 차기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 연구 설계

1. 연구의 구조
2. 연구 내용과 방법
3. Workshop 수행
4. 연구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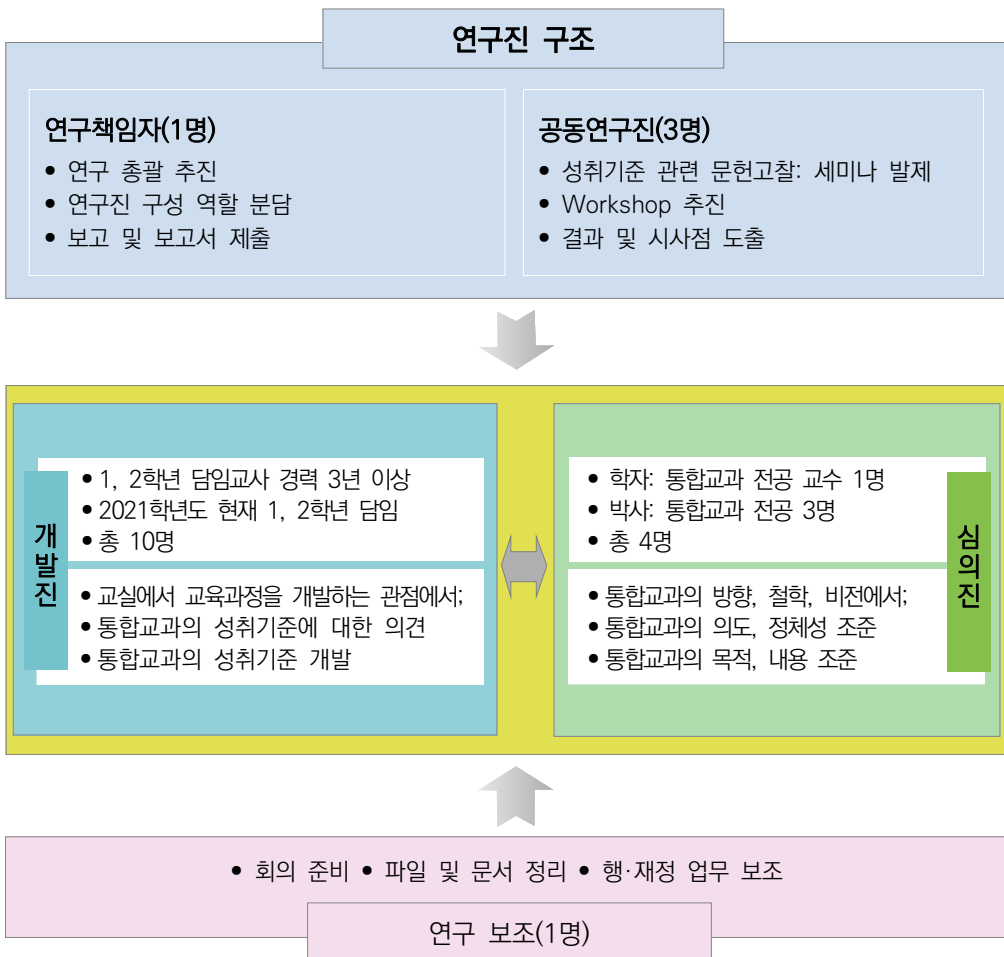


## II. 연구 설계

이 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 1. 연구의 구조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1] 연구의 구조

공동연구진은 3명이다. 통합교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서 신진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공동연구진은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연구 내용 중 하나를 주도하면서 다른 내용에 참여한다. 연구진이 연구 활동을 하는 방식은 주로 연구진 세미나 4회, workshop 3회 참여하였다.

〈표 II-1〉 연구진 업무 분담

분담 내용	소속	직급	성명
연구 총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정광순
현행 통합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갱신 workshop 진행	도○초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박사수료	유성열
성취기준 관련 문헌 리뷰	연○초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이찬희
	한○초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김수진
차기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원칙	전체		
차기 통합교과용 도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인 2015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은 주로 workshop을 통해서 추진하였다. workshop은 연구진이 주관하고, workshop을 위해 개발진과 심의진을 구성하였다.

〈표 II-2〉 Workshop 참여자 현황

구분	이름	소속	1, 2학년 담임 경력	현재 담임
개발자	전○재	전○초	3년	1학년
	이○곤	연○초	4년	1학년
	김○숙	연○초	6년	1학년
	하○정	한○초	6년	교육청 파견
	김○옥	한○초	6년	4학년
	이○용	보○초	3년	6학년
	김○현	보○초	4년	6학년
	정○빈	보○초	3년	6학년
	박○혜	한○초	4년	1학년
	김○은	한○초	8년	1학년
심의진	정○순	한국교원대학교(통합교과 전공)		
	유○열	한국교원대학교 박사수료(통합교과 전공)		
	이○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통합교과 전공)		
	김○진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통합교과 전공)		

개발진은 주로 1, 2학년 담임 경력이 있는 참여 교사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심의진은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발 경험이 있는 연구진이 역할을 맡았다.

## 2. 연구 내용과 방법

현장 기반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추진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II-3〉 연구 내용 개관

연구내용	추진 내용	방법
내용①	성취기준의 도입과 정착 -성취기준의 연원, 개념, 위치, 역할, 진술 방식 등 개관	문헌연구
내용②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	workshop
내용③	차기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 원칙 논의	실제적 접근
내용④	차기 통합교과용 도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실제적 접근

### ■ 내용① 성취기준의 도입과 정착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국가교육과정은 내용을 제시하는 내용 중심 교육과정이었다면, 이후는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기준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 내용을 국가교육과정에서 직접 통제하는 역할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로컬에서 선정·조직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즉 국가교육과정에 후속해서 로컬에서 교육과정의 역할을 실행에서 개발로 전환하는 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그동안 성취기준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현장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양상을 정리하였다.

로컬교육과정 개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교사가 성취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지향과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성취기준 연구 동향과 방향을 정리하였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질 관리 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 관련 정책연구들이 항상 학교 교육 현장을 선도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책 연구들은 성취기준을 국내에 어떻게 정착시키고자 해 왔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에서 학교로 제공하는 교육과정들이 그동안 성취기준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안착시켜 왔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에 성취기준의 기원, 정의, 역할 및 기능, 진술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서 성취기준을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한다면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탐색하였다.

## **연구 방법 문헌연구**

다음과 같은 주제로 4명의 연구자의 발제를 통해서 연구진 세미나를 통해서 다음 35편의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 연구진 세미나1
  - 주 제: 성취기준 기원과 정의
  - 발제자: 정광순
  - 토론자: 유성열 이찬희 김수진
  - 일 시: 5월 6일(목)

- 연구진 세미나2
  - 주 제: 성취기준 사용 용례
  - 발제자: 유성열
  - 토론자: 정광순 이찬희 김수진
  - 일 시: 5월 13일(목)
  
- 연구진 세미나3
  - 주 제: 성취기준 진술 방식
  - 발제자: 이찬희
  - 토론자: 정광순 유성열 김수진
  - 일 시: 5월 20일(목)
  
- 연구진 세미나4
  - 주 제: 성취기준 역할과 기능
  - 발제자: 김수진
  - 토론자: 정광순 유성열 이찬희
  - 일 시: 5월 27일(목)

〈표 II-4〉 성취기준 관련 문헌

연번	연구자(발행 연도) 제목	구분			구분
		개념	정책	사용	
1	곽병선(199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 안	√			정책연구
2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정책연구
3	교육부(1997).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문
4	교육부(1998).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고시문
5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고시문
6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고시문
7	김민정(2017). 성취기준 진술방식에 따른 교사들의 해석과 수업 계획: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학위논문
8	김세영(2017).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을 둘러싼 문제점과 그 해결책			√	학술지

연번	연구자(발행 연도) 제목	구분			구분
		개념	정책	사용	
9	김신영, 백순근, 채선희(1998).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에 대한 고찰	√			학술지
10	김은주, 이진숙, 이현, 김대현(2016). 2009 개정 초등 과학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활용			√	학술지
11	김정호 외(199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		정책연구
12	김한성, 홍원표(2019). 2015 개정 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 초등 사회를 중심으로			√	학술지
13	노철현(2020). 성취기준 적용 사례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학술지
14	박순경 외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 총론		√		정책연구
15	백경선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합교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		정책연구
16	백남진, 오정덕(2021). 빅 아이디어 중심 교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의 연계 방식 탐구: 캐나다 BC 주와 온타리오 주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학술지
17	백순근 외(1998).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		√		정책연구
18	백순근(1999). 수행평가의 이론적 기초.	√			학술지
19	서경혜(2016). 교육과정 재구성 논쟁	√			학술지
20	성경희 외(1990).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학교 교육 평가 체제 연구(I)	√			정책연구
21	성열관, 백병부, 윤선인(2008). 성취기준의 차용 및 변용: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	√	√	√	학술지
22	성열관(2005). 교육과정 성취기준 논쟁의 동향 및 평가		√		학술지
23	소경희(2013). 미국의 교과교육에 있어서 국가공통 기준 도입 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주요 쟁점	√			학술지
24	오정환 외(2021). 글로벌 압력의 배경에서 미국의 표준교육 개혁 동향: 교육과정 표준화 징후	√			학술지
25	유성열(2018). 초등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용례 기술			√	학위논문
26	윤현진 외(2008).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연구	√			정책연구
27	이돈희 외(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한 연구	√			정책연구
28	이승미 외(2020). 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설정 방안 탐색	√			정책연구
29	이호담(2018). 초등 교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사용 사례 연구			√	학위논문
30	정광순(2017). 초등교사가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양상 탐색			√	학술지

연번	연구자(발행 연도) 제목	구분			구분
		개념	정책	사용	
31	조상연(2015). 초등교사가 교과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 탐색			√	학술지
32	허경철 외(1996). 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일반모형 개발 연구	√			정책연구
33	허경철, 백순근(1995). 종합생활기록부제의 취지에 따른 교육성취도평가 방안 연구-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를 중심으로	√			학술지
34	허경철(2007). 국가기준으로서의 성취기준 재음미	√			학술대회
35	홍미영 외(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I)		√		정책연구

## ■ 내용②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참여 교사들 10명이 참여하여 현행 통합교과 교육과정(2015 개정)의 성취기준을 갱신한다. 이런 갱신은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지킨다.

원칙1. 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가르칠 만한 것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2. 통합교과 다뤄야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사용해 본 성취기준을 보다 실제적인 성취기준으로 갱신하는 활동을 거쳐서 이 활동 과정에서 등장하는 의견들을 수집하여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도출하고, 이런 관점에서 통합교과 교과서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현장기반으로 원칙 및 유의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Workshop

본 연구에서는 Schaefer(1967)가 학교를 전문가인 교사들이 함께하면서 협동적인 활동 및 문제 해결을 하는 활동의 장(workplace) 개념으로 보고 제안하는 방식을 따른다(Joyce, Weil, & Showers, 1992).



〈표 II-5〉 workshop 진행 방법

단계	단계에서의 활동	본 연구에서의 활동
1단계 조직하기	- 팀 조직하기 (group or te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자 조직(교사)</li> <li>• 심의자 조직(연구진+외부 전문가)</li> </ul>
▼		
2단계 코칭 제공하기	- 코치로서 스스로 관찰하기 - 동료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과 근거 이해하기</li> <li>• 통합교과에서 학생이 배우는 것 성찰하기</li> <li>• 필요한 자료 수집하기</li> </ul>
▼		
3단계 연습해 보기	- 횡적 전이(Horizontal Transfer) - 종적 전이(Vertical Transf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성취기준 1차 갱신해 보기</li> </ul>
▼		
4단계 적용해 보기	- 적용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이 갱신한 성취기준 집단 협의(1차 workshop)</li> </ul>
▼		
5단계 확정하기	- 동료와 의견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취기준 심의</li> <li>• 성취기준 확정 협의(2차 workshop)</li> </ul>

본 연구의 workshop을 위해서 개발진 10명과 개발과정을 코칭할 수 있는 심의진 4명을 조직하였다.

### ■ 내용③ 차기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 원칙 도출

본 연구의 Workshop 활동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기반 차기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적용할 만한 원칙을 탐색하였다.

### **연구 방법 연구진 세미나**

- 주 제: 차기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 원칙
- 발제자: 정광순
- 토론자: 유성열 이찬희 김수진
- 일 시: 10월 30일(토)

### **■ 내용④ 차기 통합교과용 도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의 Workshop 활동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기반 차기 통합교과용 도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연구 방법 연구진 세미나**

- 주 제: 차기 통합교과용 도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 발제자: 정광순
- 토론자: 유성열 이찬희 김수진
- 일 시: 11월 6일(토)

## **3. Workshop 수행**

이 연구는 수업에서 성취기준을 직접 사용해서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사의 관점에서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을 갱신해 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workshop에 참여하였다.

먼저, 사전 workshop을 열어서, workshop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목적, 방향을 안내하고, 연구진(전문가 집단)과 workshop에 필요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충분히 공유하였다.

## ■ 사전 모임

- 목적: 연구 방향 및 전문가 집단 역할 안내
- 일시: 2021년 6월 4일 (금) 오후 3시 ~ 오후 6시
- 장소: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웨비나
- 참가자: 연구진 4인, 1, 2학년 담임교사 10인

사전 workshop을 통해서 연구진에서는 참여 교사들에게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 목록을 배부하고,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하거나 개발하면서 성취기준을 사용하면서 드는 생각, 의견 등을 충분히 기록하도록 안내하였다.

교과서명 (학년·학기)	단원명	영역 (대주제)	핵심 개념 (소주제)	성취기준	판단	평가의견
다봄 (1-1)	1. 학교에 가면	학교	학교와 친구	[2바01-01] 학교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수정 / 삭제 / 유지	
				[2술01-01] 학교 안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 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2술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2줄01-01]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줄01-02]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꾸민다.		
다봄 (2-1)	1. 알쏭달쏭 나	나	나	[2바01-0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2술01-03]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는다.		
				[2술01-04]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		
				[2줄01-03] 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줄01-04] 나의 흥미와 재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		

[그림 II-2] workshop 활동지(예시)

참여 교사들은 1학기 한 달 동안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실행 혹은 개발하면서 성취기준을 충분히 성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에 대한 개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workshop을 수행했다.

■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 workshop

- 목적: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 및 갱신 방향 수립
- 내용
  1.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2.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 방향에 대한 자유 논의
- 일시: 2021년 7월 10일 (토) 오후 12시 ~ 오후 6시
-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관 202호
- 참가자: 연구진 4인, 참여 교사 10인

workshop은 먼저 참여자가 작성한 파일을 모았다. 연구진에서는 성취기준별로 참여자들이 [유지-수정-삭제]을 판단한 빈도를 제시하고, 의견을 종합했다.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통계	참여자 의견 종합	성취기준 갱신법(갱신안 만들기)
교과	친구	[2라01-01]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유지 5 수정 2 삭제 3	-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차별화 되는 내용 개발 필요	[2라01-01] (친구들과) 우정을 나눈다. 친구들과 약속을 정하고 실천한다.
		[2술01-01] 학교 안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유지 2 수정 4 삭제 4	- 학교 안과 밖, 교실이라고 구제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다양한 학교 공간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 입학 초기 적응활동과 내용 중복이 되어 다인으로 관계 맺기에 집중하는 방안 제시	
		[2술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유지 4 수정 5 삭제 1	- '알아본다' 진술을 활용하기가 어려워 '수행한다', '탐구한다' 등으로 수정 필요	
		[2물01-01]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유지 6 수정 2 삭제 2	- 창의적 사고 역량을 고려한 성취기준 [2물01-02]과 통합	
		[2물01-02]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꾸민다.	유지 8 수정 1 삭제 1	-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고려한 성취기준 개발	
		[2라01-0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유지 7 수정 3 삭제 0	- [2라02-01]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 감정과 관련한 내용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성취기준 개발 필요	[2라01-02] 나를 사랑한다.
	나	[2술01-03]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는다.	유지 6 수정 2 삭제 2	- 내 몸을 잘 쓰는 방법, 내 몸을 고마워할 수 있는 내용 필요 현 성취기준이 세부적 지양적임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2술01-04]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자능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	유지 2 수정 8 삭제 0	-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 미래를 예상하는 행위가 학생 수준에 맞지 않음 이 성취기준이 교사의 수업능을 계측할 나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성취기준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2물01-03] 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유지 6 수정 4 삭제 0	- '놀이한다'라는 진술방식은 표현한다로 포괄적으로 제시	
		[2물01-04] 나의 몸과 마음 표현하는 공간·전시 활동을 한다.	유지 6 수정 3 삭제 1	- 공연 전시한다는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로 대체 [2물01-03]과 통합	

[그림 II-3]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의 평가 workshop(자료)

그러고 나서 workshop에서는 실제로 성취기준을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지 협의하여 갱신 결과물을 도출했다.

〈표 II-6〉 1차 갱신 안

2015 개정 원안	1차 갱신 안
즐01-01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꾸민다. 슬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즐01-02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바01-01] 우정을 나눈다. [2슬01-01] 친구를 탐구한다. [2즐01-01]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한다.
바01-0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슬01-03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는다. 즐01-03 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슬01-04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재능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 즐01-04 나의 흥미와 재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	[2바01-02] 나를 사랑한다. [2슬01-02] 나를 탐구한다. [2즐01-02] 나를 표현한다.

이하생략

연구진은 이 결과물을 정리하여 심의진의 의견을 덧붙이고, 다시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냈다.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목적	연구진 심의	자유 의견(총 16건)
학교	친구	[2바01-01] 우정을 나눈다. [2슬01-01] 친구를 탐구한다. [2즐01-01]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한다.	우정  친구 관계를 살펴본다.		
	나	[2바01-02] 나를 사랑한다. [2슬01-02] 나를 탐구한다. [2즐01-02] 나를 표현한다.	사랑  나를 살펴본다.		

[그림 II-4] 교사의 성취기준 평가에 대한 심의진의 의견 개진

연구진은 참여 교사들이 1차 성취기준 갱신 결과에 대해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도록 했고, 참여 교사들은 심의진의 의견을 참조하여 2차로 현행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 의견을 보내 주었다.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덕목	연구진 심의	자유의견(총 16건)
학교	친구	[2바01-01] 우정을 나눈다.	우정	친구 관계를 살피본다.	친구영역에서 서술어가 어색합니다. 친구 관계를 탐색한다. 또는 학교에서 우정을 나눈다. 등으로 다듬으면 어떨까요.
		[2술01-01] 친구를 탐구한다.			
		[2즐01-01]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한다.			
	나	[2바01-02] 나를 사랑한다.	사랑	나를 살피본다.	탐구하더라는 동사가 사용된 성취기준 전체에 해당. 나를 탐구한다와 같이 탐구라는 표현이 충분히 쓸
		[2술01-02] 나를 탐구한다.			
		[2즐01-02] 나를 표현한다.			

[그림 II-5] 교사의 평가 의견 2차 수렴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 workshop에서는 사전 모임에서 배부한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 목록에 대한 참여 교사들의 평가 및 갱신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2차 workshop은 1차 workshop 결과 갱신한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합의를 이끄는 데 목적을 두었다.

#### ■ 2차 workshop

- 목적: 성취기준 갱신(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수렴
- 내용
  1. 성취기준 갱신(안)에 대한 자유 의견수렴 및 논의
  2. 성취기준 최종 갱신(안)에 대한 타당도 평정  
(질적) 성취기준 최종 갱신(안)에 대한 자유 의견 진술  
(양적) 리커트 4점 척도에 따라 기준별 타당도 평정
- 일시: 2021년 8월 20일 (금) 오후 4시 ~ 오후 6시
- 장소: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웨비나
- 참가자: 연구진 4인, 참여 교사 10인

먼저 심의진의 의견을 고려해서 2차 수렴한 평가 의견을 놓고, 2차로 성취기준 갱신하는 작업을 했다.

〈표 II-7〉 2차 갱신 안

대주제	소주제	1차 갱신(안)	2차 갱신(안)
교실	친구	[2바01-01] (친구들과) 우정을 나눈다	우정을 나눈다
		[2슬01-01] 친구를 탐구한다.	
		[2즐01-01] 친구들과 함께 놀이한다.	친구와 함께 높이한다
	나	[2바01-02] 나를사랑한다.	
		[2슬01-02] 나를 탐구한다.	
		[2즐01-02] 나를 표현한다.	

이하생략

연구진은 참여자들이 2차로 갱신한 안을 정리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합의도를 도출하여 확정하였다.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평균	Q3	Q1	중앙값	합의도	수렴도	CVR	3이상
학교	친구	[2바01-01] 우정을 나눈다.	부분 반영	4	4	4	2	3	4	4	4	4	4	3.70	4	4	4	1.00	0.00	0.8	9
		[2슬01-01] 친구를 탐구한다.		2	4	4	3	4	4	4	4	3	4	3.60	4	3.25	4	0.81	0.38	0.8	9
		[2즐01-01]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한다.		4	4	4	4	4	4	4	4	4	4	4.00	4	4	4	1.00	0.00	1	10
	나	[2바01-02] 나를 사랑한다.		4	4	4	4	4	4	4	4	4	4	4.00	4	4	4	1.00	0.00	1	10
		[2슬01-02] 나를 탐구한다.	반영	4	4	4	4	4	4	4	4	4	4	4.00	4	4	4	1.00	0.00	1	10
		[2즐01-02] 나를 표현한다.		4	4	4	4	4	4	4	4	4	4	4.00	4	4	4	1.00	0.00	1	10

[그림 II-6] 2차 갱신 안에 대한 합의도 도출

## 4. 연구 추진 일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였다.

〈표 II-8〉 연구 추진 일정(기간 : 2021. 4 ~ 2021. 11)

보고서 내용 \ 월	4	5	6	7	8	9	10	11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서 작성</li> <li>- 연구진 구성</li> <li>- 계약 추진</li> </ul> </li> </ul>									정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취기준 관련 문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방식 도출</li> <li>- 정책연구가 지향하는 성취기준 검토</li> <li>-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진술 방향</li> </ul> </li> </ul>	→	→	→	→					연구진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교사의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rkshop 그룹 조직</li> <li>- workshop 활동 3차</li> <li>- 2015 통합교과 성취기준 리뉴얼 결과 도출</li> </ul> </li> </ul>	→	→	→	→	→	→	→		교사 work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기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 원칙</li> <li>- 차기 통합 교과서 개발 시사점</li> </ul> </li> </ul>							→	→	연구진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 보고서 작성</li> </ul>								→	정광순 유성열





# III

## 성취기준의 정착과 방향

1. 미국의 기준 중심 운동: 'standards'의 출현
2. 우리나라에서 성취기준을 안착시켜 온 과정
3. 교사가 성취기준을 상용하는 실제
4. 성취기준의 의미와 역할
5.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 III. 성취기준의 정착과 방향

#### 1. 미국의 기준 중심 운동: ‘standards’의 출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담론에서 성취기준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사용된 standards라는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허경철 외, 1996; 성열관 외, 2008), 이 용어가 미국에서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써 사용되었는지 그 도입 배경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성취기준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Rothman(2011)에 의하면 Standards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 때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명세서를 제시한 것과 같은 ‘표준화’의 의미가 있다.

둘째, 모든 학생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열망’의 의미가 있다.

이 용어가 초기에 도입될 때에 미국에서는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열망’으로서의 의미가 더 중점이 되어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모든 아동에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따라야 할 ‘표준’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레이건(Reagan) 행정부 시절 미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수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 촉발점은 1983년 발간된 <위기에 처한 국가(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보고서는 교육을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도구라는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며, 미국의 학교 교육은 결국 학생들을 평범하게(mediocrity) 만들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교과 내용을 표준화하여 성취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Gewertz, 2012; Ravitch, 2010). 이 보고서가 미친 영향은 미국 교육의 역사에 대대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냈는데 교육 분야에 적극적인 경제 논리가 도입되는 초석이 되면서 투입산출 분석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학교에 적용되었고, 기업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이 관리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대하는 산출물로서 교육의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도달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표준화 시험’을 개발하는 두 가지 흐름이 미국 공교육 계에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파이델타카파(Phi Delta Kapa)가 실시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1969년에는 미국인의 63%가 찬성했지만 1989년에 시행된 조사에서는 93%가 찬성을 표했다(허경철 외, 1996).

이후 조지. H. 부시(Bush) 행정부에서는 국가교육기준평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Standards and Tests)를 설립하고, 1992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하여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지식, 기능에 관한 내용 기준(content standards)과 도달해야 할 수행 기준(performance standards)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1994년 공포되고 이후 클린턴(Clinton) 정부에서도 계승된 목표 2000: 미국 교육법(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에서는 국립 교육과정 평가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n Student Achievement, Curriculum and Assessment: NISAC을 미국 교육부 산하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교육 개혁 정책을 펼치게 했는데, 그 법안에서는 위 보고서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기준에 더해 학습기회수준(opportunity to learn standards)을 더해 세 가지로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외에도 세계수준기준(world class standards) 또는 세계수준(world standards)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는데, 현재 미국 학생들의 학력이 경쟁국들보다 낮다는 생각에서 세계적으로 기대되는 학력 수준으로 그 기대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교과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공통된 교과 기준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교육과정이 주 차원에서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전통을 지닌 미국의 맥락 속에서 국가에서 교육의 기준을 통일한다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저항, 역사 교과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에서 시작된 비판, 그리고 의회의 반발로 인해 결국 그 결실을 보지는 못하였다.

이후 아버지를 이어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전 정부에서 시도하고자 한 주 차원의 기준중심 개혁을 계승하고자 2002년 낙오아동방지법(NCLB)을 공포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각 주에서는 3-8학년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취(Proficiency)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연차별 발전(AYP: Adequate

Yearly Progress)을 보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별로 그 기준을 점점 더 낮게 세우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학생 수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통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논의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국가공통 기준 개발과정은 먼저 ‘대학과 직업 준비도’ 기준이 수립된 후, 그에 기반을 둔 K-12 학년의 학년별 기준을 만드는 순서로 이뤄졌다(Rothman, 2011). 오바마(Obama) 행정부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이 개발 작업은 결국 2010년 국가 수준의 공동 기준인 Common Core State Standards로 완성되었고,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도달점으로서 제시되었고, 그 도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학업 성취도 검사도 함께 도입되었다.

소경희(2013)에 따르면 미국에서 도입된 국가공통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중심 개혁 운동의 취지에 따라 국가가 모든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오바마 정부의 개혁 취지를 발표하며(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기준을 올리는 것”(p. 3)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최고에 이르는 경주”(Race to the Top)라는 프로그램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공통 기준이 기대되는 높은 수준으로 도입된 취지는 매우 분명하다.

둘째, 공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 모든 학생이 도달해야 할 최종 지점으로 기준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교육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고등학교 졸업 시에 요구되는 도달 목표가 먼저 제시되었고, 그 뒤로 저학년의 학년 군의 목표가 세워지는 방식이다.

셋째, 주 차원에서 개발되었던 기준과는 다르게 “더 적고, 더 명료하며, 더 높은”(fewer, clearer, higher) 기준이 설정되었다.

넷째, 여러 주가 주도하였기에 상향식(bottom-up) 개발인 동시에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공포된 국가 수준의 기준을 주들이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하향식(top-down) 개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국가공통 기준은 기준을 제시한 뒤 그 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도구를 함께 개발하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부분 주가 평가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 2. 우리나라에서 성취기준을 안착시켜 온 과정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교사들이 생각하는 성취기준의 의미, 교사들이 사용하는 성취기준의 용도와 더불어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의 성취기준 정착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성취기준을 최초로 도입한 7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성취기준의 의미와 변화 과정을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교육과정 차수별 성취기준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각 교육과정 개발 시기 이루어진 교육과정 또는 성취기준 개발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가. 제7차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에 성취기준을 도입하다.

7차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이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이다. 이에 성취기준이란 ‘무엇’이며, 성취기준은 국가교육과정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성취기준 연구물들을 종합한 결과 총 4편의 연구물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7차 교육과정 시기 성취기준 관련 정책 연구 목록

연구자(연도)	연구명
허경철 외(1996)	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일반 모형 개발 연구
이돈희 외(1997)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한 연구
이돈희 외(1997)	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활용 방안 연구(총론)

우리나라에서 성취기준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7차 교육과정이다. 1983년 미국에서 국가 교육 수월성 위원회가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성취기준의 주요 도입 배경이다. 이 보고서는 학업 성취도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면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미국의 수많은 주가 교과 교육과정, 졸업 요건 강화, 시험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윤현진 외, 2008). 그러나 이 시기에는 내용 선정권을 지역 교육위원회가 갖고 있어 국가 차원의 평가가 확대되었더라도 실제 평가와 교사가 가르친 내용은 다른 것이 필연적이었다. 즉, 교사와 학생에게 무엇에 대하여 시험 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주는 교육과정은 없었다(윤현진 외, 2008).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 필요했고, 교사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것, 교육내용과 수준을 설정하는 것의 의미가 있는 ‘기준’의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위기에 처한 국가’로부터 시작된 교육 개혁의 핵심은 교육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과 수준을 설정하는 ‘기준’의 문제가 도외시 될 수 없다는 점이였다(노철현, 2020).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미국의 교육 개혁 운동에 영향을 받았는데 1996년 9월에 개최된 ‘신교육과정 총론(안) 공청회’에서 외국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근거로 교과와 성취기준을 제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성열관 외, 2008).

우리나라에서의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연구는 ‘국가공통 절대평가 기준 일반모형 개발 연구’(허경철 외, 1996)다. 이 연구는 절대평가 도입을 위해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자 했고 ‘기준’의 개념 정립을 위해 외국의 사례를 분석했다. 초기에는 평가 기준과 성취기준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고 ‘기준’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후 절대평가 기준 활용 방안 및 교과별 모형 개발 연구(허경철 외, 1997)에서는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을 구분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이 연구에서 성취기준을 ‘수업이나 평가에서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고 세분화하여 상세화한 목표나 내용의 진술문’으로 정의했다(김정호, 1999). 또한, 이 시기에 성취기준의 의미를 해당 학년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과 행동의 범위를 명료화한 것으로 규정한 김신영 외(1998)의 연구, 과목별 교수 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생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연구(백순근 외, 1998) 등 성취기준 관련 연구가 있었다. 이후, 김정호 등(1999)은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있었던 성취기준에 관한 논의를 분석, 종합하면서 1997년도 연구에서의 성취기준은 ‘목표+내용’으로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을 제시하는 ‘내용 기준’으로 진술되고 1998년도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특성’으로 주어진 내용 기준을 학습자가 달성했



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 및 특성을 강조한 점에서 수행기준의 특성이 강조되는 점으로 두 시기의 연구를 구분했다. 이돈희 등(1997)의 연구는 성취기준은 내용 기준과 수행기준이 결합 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말하며 김정호 등(1999)은 당시 연구 등을 종합하여 성취기준을 교수 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각 교과목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지식, 기능, 태도)과 그러한 내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또는 보여주어야 할) 능력 및 특성을 명료하게 진술한 것으로 정의하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 등장한 성취기준의 의미를 형성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여 국가와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교과별 교육 목표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학생, 학교, 학교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다(교육부, 1997). 또한, 제7차 교육과정 목표와 분리된 내용 제시, 추상적 수준에서의 주제 제시, 내용 나열식의 제시 등의 6차 교육과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성취기준을 도입하여 목표와 내용의 연계, 목표와 내용의 명료화를 하고자 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교육 개혁 운동이라는 배경과 함께 평가 기준 개발을 위해 시작된 ‘기준’에 관한 연구 등으로 성취기준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제6차 교육과정에서 목표와 분리된 내용 제시, 추상적 수준에서 주제 제시, 내용 나열식의 제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도입하며 목표와 내용을 연관시키고 그 명료화 수준을 높이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여 의도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 나. 2007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관점을 선택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성취기준에 관한 두 관점 중 하나의 관점이 선택되어 성취기준이 개발된 시기이다. 이에 성취기준 관점에 관한 논의, 선택된 관점에 관한 과목별로 성취기준 개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성취기준 연구물들을 종합한 결과 총 15편의 연구물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 성취기준 관련 정책 연구 목록

연구자(연도)	연구명
백순근, 소경희, 조난심(1998)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총론)
김정호 외(199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초등학교 1, 2학년
류재택 외(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김주훈 외(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류재택 외(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서지영 외(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체육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양윤정 외(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미술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왕석순 외(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실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이경연 외(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음악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임찬빈 외(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정구향 외(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차우규 외(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도덕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최승현 외(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김정호 외(2004)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박순경 외(2004)	7차 교육과정의 쟁점 분석 연구

2007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고시 시점(1997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점, 그에 따라 개정 요구 및 기대가 개정의 배경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과학 역사 교육 강화와 같은 국가 및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재이수(유급) 및 월반 등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고 주 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른 학교급별 수업 시수 조정의 필요한 점 등에 따라 등장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는 전면적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가 도입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의 전환, 학교 교육의 모든 활동은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신장을 위해 내용, 소재, 상황을 선정 계획하고 교육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학생의 교과별 성취기준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 수준의 평가 시행과 학교의 교육과정 평가 활동 지원을 위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과별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 개발 정책 연구’가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진행되었다. 각 연구물은 공통으로 1장의 서론과 2장의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의 이론적 기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들어갔다. 즉, 성취기준 개발 정책 연구의 큰 방향은 통일하되 그 구현 모습을 교과별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정책 연구의 1장과 2장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내용이 비교적 성취기준의 형식으로 진술되어 있으나 매우 포괄적으로 진술되어 있어 직접 교수 학습 상황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성취기준을 더 명료하게 하고 최소 기준이 되면서도 핵심적인 성취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진술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이 연구들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당시에 성취기준에 합의되지 않았던 다른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관점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으로부터 최소 필수목표 추출에 초점을 두자는 것이고 두 번째 관점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의 상세화 구체화에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이 두 관점에 관해 당시 연구자들의 고민이 상세하게 드러났는데 전자의 관점인 교육과정에 근거하되 최소 목표만을 추출해서 제시하자는 견해는 국가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최소 목표만을 추출 및 제시한 후 학교 특성에 맞게 실제 적용 가능한 성취기준을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기자는 견해다. 또 여기에서 교육과정에 근거하는 것은 세부적인 교수 학습 활동 및 교육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이념과 본질에 부합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최소 목표만을 추출하는 것은 교육 목표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관심과 합의에 따라 기르고자 하는 능력과 특성들을 통합적이면서 일반적인 진술

형태로 제시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교과서는 교사에게 최소한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교사 단위의 교육과정 구성의 자율성 신장 등 시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선언적 지침으로서의 기준을 개발해서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고 여겨지는 최소한의 목표 지점을 간단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다.

후자의 관점은 교육과정에 드러나는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및 특성을 보다 상세화 구체화하여 진술하자는 견해다. 이 입장은 7차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교과별 절대평가 기준 개발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을 근거하고 있는데 국가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문서를 기초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바라는 바를 상세화한 기준의 형태로서 개발되어 학교급 학년별 교과별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명료하게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 학교(교사)가 수업과 평가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당시의 정책 연구진들은 두 관점의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두 관점은 서로 다르다 보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 연구진들은 전자의 견해를 밝힐 때 국가 교육과정을 가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는 최소 필수 목표가 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새로운 지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당시 선행연구들이 후자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관점을 택했다. 따라서 교육과정 전 범위에 걸쳐 학교급 학년별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여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지나친 상세화는 획일화를 불러올 수 있어서 상세화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함을 강조했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한 성취기준은 7차 교육과정에서 등장한 성취기준의 모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7차 교육과정에 등장한 성취기준이 동일 내용이나 주제가 범위와 수준을 구분함이 없이 학년 별로 제시된다는 점, 여전히 내용 나열식이라는 점, 성취기준 도입의 의도와 달리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명료히 드러내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성취기준을 교사가 교수 학습 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 편이하도록 진술 단위 등을 보완하고자 했다(김정호 외, 1999).

종합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때 도입한 성취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당시 성취기준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성취기준

을 교육과정으로부터 최소 필수목표 추출에 초점을 두자는 것이고 두 번째 관점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의 상세화 구체화에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이 두 관점에 관한 논의 끝에 후자의 관점을 택하게 되었고 관련 성취기준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7차 교육과정 때 도입된 성취기준이 동일 내용이나 주제가 범위와 수준을 구분함 없이 학년 별로 제시된다는 점, 여전히 내용 나열식의 제시가 있다는 점,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명료화하지 못한다는 점 등의 문제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완하고자 했다.

#### 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활용을 고민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가 보편화하는 시점이다. 이에 교사가 성취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성취기준을 활용하는 데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 등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성취기준 연구물들을 종합한 결과 총 14편의 연구물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성취기준 관련 정책 연구 목록

연구자(연도)	연구명
서지영 외(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양윤정 외(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이수정 외(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가정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조난심 외(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조성기 외(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홍미영 외(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I)
홍미영 외(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II)
박순경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 총론
변희현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수학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이미경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과학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임찬빈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영어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진의남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실과(기술가정)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진재관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역사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황인표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도덕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포럼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를 발판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교육과학 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 특별위원회’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바탕으로 개정이 추진되었다. 당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의 핵심내용은 교육과정 적합성 제고, 교육과정 적정화,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과정 자율화, 교육과정 책무성이었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과목(교과군)별 20% 자율 증감 운영 등이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성취기준 관련 연구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후속 연구로 2008년에 5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2009년에 5개 교과(도덕, 음악, 체육, 기술·가정, 미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 및 예시 평가 도구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초기 성취기준이 도입된 배경과 같이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를 위한 것이었고 7차,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 성격이었다. 이 두 시기의 정책 연구의 차이점을 꼽자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후속 연구는 7차 교육과정 때 도입된 성취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해 각 교과 성취기준 개발에 적용하였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후속 연구는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하는 연구였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교과마다 부분 수정 및 보완된 것이다. 가령,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성취기준 개발 연구에서는 성취기준의 구별과 목록화를 위해 성취기준에 코드를 부여한 점, 성취기준의 기술 방식을 ‘~할 수 있다’, ‘~을 지닌다’와 같은 방식을 가져온 점이 있으며 체육과 성취기준 개발 연구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여 내용을 구체화할 것인지, 또는 통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 적합하지 않은 기준은 삭제하거나 재구성하여 진술하고자 했다. 도덕과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관점에서 성취기준을 기술하도록 하여 ~할 수 있다, ~을 안다 ~을 설명할 수 있다 등의 형태를 활용했다. 이 정책 연구가 발판이 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는 성취기준을 ‘학생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과 기능, 태도와 관련된 능력과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교육과정의 특징과 방향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성취기준을 통해 교과 교육과정을 교과 간 중복 또는

반복 내용, 범교과 학습 주제의 중복 등을 해소하고 교과별 최소 필수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자 했음을 밝혔다. 2009 개정 총론 해설서에서 성취기준의 의미와 활용의 주안점을 찾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중점 중 3항에 제시된 ‘기초’의 의미를 읽기, 쓰기, 셈하기 등과 같은 여러 교과를 터득하기 위한 학습의 초기 또는 이전 단계의 습득이 요구되는 밑바탕이라고 정의하며 ‘기본’은 각 학년 내에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내용 수준의 성취기준을 의미했다.

(3)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p. 34).

또, 성취기준을 사용하면서 각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정선되어 있으며 핵심적인 개념, 아이디어, 지식, 기능 가치, 주제 등 보다 더 상세화한 수준에서 다루어야 하며 이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탐구 활동 속에서 교수학습 계획을 재구성함을 강조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특징은 성취기준 관련 정책 연구의 방향이 두 번 등장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앞서 제시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의 개발 관련 연구였고 두 번째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개발 연구였다. 2009년 교육과정 총론이 고시된 이후 2011년에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 2012년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 수준 개발 연구(홍미영 외, 2012)를 포함한 관련 연구를 통해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수정·보완했다. 당시 홍미영 외(2012)의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을 학습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진술하는 방향, 성취기준 내용 진술에 있어 학년 군 간 위계와 연계를 고려하는 방향, 성취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할 때는 재진술 하거나 성취기준 간 통합 또는 분리하여 명확하게 진술하는 방향이었다.

홍미영 외(2012) 이후 성취기준 관련 연구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수정·보완하고자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핵심 성취기준이 등장했다. 핵

심 성취기준은 2012년에 개발·보급된 교과별 성취기준 가운데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선정된 성취기준으로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 각 교과(목)에서 추구하는 교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내용을 다루는 성취기준”으로 개념화될 수 있고 일반 성취기준(핵심 성취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성취기준을 의미한다(박순경 외, 2013). 핵심 성취기준은 교사들에게 있어 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할 때 수업 활동에서의 여유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 감축, 적정화하여 학생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도입 배경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의 재구조화로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수업 부담을 적정화하며, 교과에서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등을 목적으로 했다(박순경 외, 2013). 이 연구를 기초로 2013년에는 교과별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종합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 관련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개발 연구다. 이 연구들은 성취기준 개발의 방향을 설정한 뒤 성취기준의 개발이 아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별로 드러난 성취기준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성격이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후 핵심 성취기준 관련 연구가 교과별로 진행되었다. 핵심 성취기준 도입을 통해 교수·학습 부담을 적정화하며, 교과교육에서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자 했다.

#### 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평가 기준 역할을 강조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는 교육과정의 최소한의 공통성과 최대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성취기준의 평가 기준 역할이 확대된 시기다. 이에 교수·학습 기준으로서의 성취기준, 평가 준거로서의 성취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성취기준 연구물들을 종합한 결과 총 13편의 연구물을 수집할 수 있었고,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성취기준 관련 정책 연구 목록

연구자(연도)	연구명
가은아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국어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권점례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수학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김기철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체육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김현경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과학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김현수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도덕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박은아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사회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백경선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합교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양윤정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미술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이경언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음악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이미경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총론)
주형미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영어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진의남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실과/기술·가정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권점례 외(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문·이과 통합 논의로부터 시작되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독서, 연극 교육을 강화했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핵심역량을 제시했다. 핵심역량은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으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 급별 목표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하고자 했고 실제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핵심개념 중심으로 구조화, 토의 토론, 협력 학습 등의 학생참여 중심 수업, 과정 중심평가를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서는 교과 내용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했고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했다. 교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는 핵심개념을 결정한 후 일반화된 지식(학습자가 이해해야 하는 원리나 일반화)과 기능(지식을 습득할 때 활용되는

탐구 및 사고 기능이면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을 선정했다. 이렇게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것의 의미는 교과별 세부 내용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교과 내 지식과 기능,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의 연결성을 구조화하여 교과 지식을 통합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돕고자 했다(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는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교과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지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기능)을 나타냅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수행의 용어로 표현되며, 교과에 따라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취기준은 학습 결과로서 교과 학습 후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지점을 의미하며, 평가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p. 47).

성취기준은 교과의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담고 있으며,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p. 92).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학습 내용을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사고 및 탐구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였고, 이를 내용 체계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성취기준을 개발하였습니다(p. 13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성취기준을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수·학습 기준으로서 내용 선정 기준의 역할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의 역할을 강조한다. 세 번째는 성취기준에 도달함으로써 교과 역량을 달성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한다. 시기별로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주로 교수·학습 기준의 역할로 다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평가 근거의 역할을 강조한다(백경선 외 2016).

성취기준은 내용 선정 기준과 평가 기준으로서 역할과 관련한 정책 연구가 각 교육과정 시기에서 반복해서 진행되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는 성취기준 개발 연구보다 평가 기준 개발 연구에 더 집중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는 교육과정에 그동안 성취기준의 의미가 내용 선정 기준에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는 평가 기준의 역할을 강조한다(백경선 외, 2016; 이미경 외, 2016).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성취기준 관련 정책 문헌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의 도입부터 2007, 2009 교육과정 개정 시기를 거치면서 현 2015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이르기까지 교육 현장에서 성취기준의 정착과정을 들여다보았다. 첫 번째, 성취기준정착 과정에 있어 각 교육과정 시기별로 주요 이슈들이 있었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위한 성취기준 도입의 이슈(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으로부터 최소 필수목표 추출에 초점을 둘 것인지 혹은 교육과정 상세화, 구체화에 초점을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성취기준 관점에 관한 이슈(2007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활용의 이슈(2009 개정 교육과정), 평가 기준으로서 성취기준 역할 강조 이슈(2015 개정 교육과정)가 있었다. 두 번째, 교육과정 시기별 성취기준의 주요 의미가 변화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Ⅲ-5〉 교육과정 시기별 성취기준의 주요 의미

구분	출처	교육과정 시기별 성취기준의 주요 의미
7차 교육과정	허경철 외(1997)	수업이나 평가에서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고 세분화하여 상세화한 목표나 내용의 진술문
	김신영 외(1998)	해당 학년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과 행동의 범위를 명료화한 것
	백순근 외(1999)	과목별 교수·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생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
	김정호 외(1999)	교수·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각 교과목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지식, 기능, 태도)과 그러한 내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또는 보여주어야 할) 능력 및 특성을 명료하게 진술한 것
2007 개정 교육과정	김정호 외(1999)	교수·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각 교과목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지식, 기능, 태도)과 그러한 내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또는 보여주어야 할) 능력 및 특성을 명료하게 진술한 것

구분	출처	교육과정 시기별 성취기준의 주요 의미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2009)	학생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과 기능, 태도와 관련된 능력과 특성
	홍미영 (2012)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합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학생 입장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 교사 입장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2015)	교과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지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기능)을 나타낸 것
		학습 결과로서 교과 학습 후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지점
		성취기준은 교과의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담고 있으며,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

지금까지 각 교육과정 시기별 성취기준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성취기준의 의미 변화를 종합하면 성취기준을 다음 두 축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내용 선정 기준으로서의 성취기준

■ 평가 기준으로서의 성취기준

### 3. 교사가 성취기준을 상용하는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용하다’라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취기준은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칠 내용을 학생의 입장에서는 배울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이러한 성취기준을 수업을 만들거나, 하는데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과 관련한 보다 실제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사가 실제 수업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서 성취기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모습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현

상에 주목하고, 이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룬 문헌들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이 실제 교실 수업 속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문헌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조상연(2015). 초등교사가 교과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 탐색.
- 김은주, 이진숙, 이현, 김대현(2016). 2009 개정 초등 과학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활용.
- 김민정(2017). 성취기준 진술 방식에 따른 교사들의 해석과 수업계획: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김세영(2017).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을 둘러싼 문제점과 그 해결책.
- 정광순(2017). 초등교사가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양상 탐색.
- 유성열(2018). 초등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용례 기술.
- 이호담(2018). 초등 교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사용 사례 연구.
- 김한성, 홍원표(2019). 2015 개정 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 초등 사회를 중심으로. 교
- 이한나(2019).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으로 본 국정도서로서 교과용도서의 역할과 한계.
- 유성열, 정광순(2020).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 요인 탐색.

이상의 총 10편의 문헌을 살펴본 결과, 교사는 성취기준을 크게 ‘기준’, ‘경계’, ‘근거’로 사용했다. 범주에 따른 교사들의 성취기준 사용 모습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조상연(2015)의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양상 탐색 연구

조상연(2015)은 6명의 교사와 성취기준을 사용한 수업 만들기 workshop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관찰, 기록한 결과를 분석하여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수행할 당시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인 200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모습을 다루었다. 연구 결과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났다.

- 성취기준을 쪼개어 학생에게 ‘가르칠 것’을 찾는다.
-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 목표보다는 수업 활동을 구상한다.
- 성취기준을 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근거로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취기준을 내용기준, 활동기준, 수행기준으로 구분하여, 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만드는데 성취기준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분절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활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즉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한편으로는 가르칠 것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업 활동을 선정하기 위한 경계로써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교사 대부분은 성취기준이 교사의 수업계획에 자율성을 준다는 사실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평가 또한 교사의 책임에 있다는 사실에는 불안감과 부담을 느꼈다. 이에 성취기준을 곧 학생이 할 수 있어야 하는 수행기준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평가 기준, 내용, 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교사들이 ‘수업’을 만들기 위해 성취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교사가 성취기준을 실제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나. 김은주 외(2016)의 교사의 성취기준 이해와 활용 분석 연구

김은주 외(2016)는 교수·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도입된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라고 판단하고, 교사들은 실제 성취기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사가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 수업의 범위나 깊이를 정해주는 경계(boundary)
- 일정한 학습이 끝난 후 도달해야 할 당위적 규범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한편으로는 학생으로서는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

지, 교사로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작동한다고 인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취기준이 수업의 범위나 깊이를 정해주는 경계(boundary)로서 작동한다고 보았다. 즉 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나 깊이를 정해주는 ‘경계’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런 의미에서 성취기준은 수업의 ‘이정표’에 해당한다고 빗대어 표현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일정한 학습이 끝난 후 학생이 도달해야 할 또는 알아야 할 일련의 학습 내용, 기능, 태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을 근거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일상적인 수업에서 성취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교사도 평가를 할 때는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성취기준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육내용 적정화를 위해 핵심 성취기준을 도입하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참여 교사들은 성취기준 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담겨있고, 그 수준 또한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성취기준의 양적인 적정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상 조정도 병행되어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다. 김민정(2017)의 수업계획을 위한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탐색 연구

김민정(2017)은 교사들이 수업계획을 위해 성취기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첫째, 현행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사용 양상을 밝혔다는 점, 둘째, 성취기준 진술 방식에 따른 교사들의 사용 모습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연구 결과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 기능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
-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지켜야 할 바운더리(boundary)
-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이나 기능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자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지을 수 있는 바운더리,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써 사용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 또한 주목하여 다루고 있었다. 이는 첫째,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기준이라는 것이었다. 특정 성취기준은 지나치게 막연하고, 모호하게 진술되어 있어 가르쳐야 할 지식이나 기능을 추출하기가 어렵고, 그 안에 담긴 내용 요소와 행동요소를 수업으로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급기야 성취기준을 보는 것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교사들도 나타났다. 둘째, 성취기준이 설정하고 있는 바운더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부 성취기준의 바운더리는 너무나 커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지나치게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일부 교사들은 길을 잃을 것을 염려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성취기준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거나 거부한 교사들은 일부 다시 교과서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 라. 김세영(2017)의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 관련 문제점과 해결책 연구

김세영(2017)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과정을 사용하며 만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2017년에 수행되었지만, 이전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교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연구 결과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다.

- 수업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한계
-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기준
- 교과서 차이를 다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교실 수업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한계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에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거나, 모호하면, 교사들은 성취기준이 거의 무용지물 하다고 여겼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교사들은 교과에 따라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Pigdon과 Woolley(1995)가 언급한 내용 교과와 표현 교과로 구분하여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 가령,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내용 교과에서는 성취기준으로부터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했지만, 국어, 영어, 미술, 음악과 같은 표현 교과에서는 성취기준으로부터 활동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사는 성취기준으로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것들을 해석하기 어려우면 성취기준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교사는 교과서 차시를 다룰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때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연결되지 않을 때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세영(2017)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들은 이제 막 성취기준을 자신의 수업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성취기준을 성취기준답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원인을 첫째,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한 교사연수의 부족과 둘째, 교사를 염두에 두고 쓰이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교사별 교육과정 사용 양상에 따른 단계별 연수의 필요성을 둘째,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모습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마. 정광순(2017)의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 양상 탐색 연구

정광순(2017)은 S초등학교 ‘열 사람의 한결음’ 소속 10명의 교사가 성취기준을 수업과 평가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하여,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 또한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 가르칠 내용이나 자료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 교과 간 연계성 확보 및 연결을 위한 근거
- 수업 구상의 범위

교사들은 가르칠 내용을 대체로 교과서를 통해 확인했는데, 처음에는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성취기준과 관련성이 적은 차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지만, 점차

기존 차시를 제거하는 방식보다는 관련 차시나 자료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교사들에게 성취기준은 가르칠 내용이나 자료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동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체로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천하였는데, 이때 교과를 연결하고 통합하기 위한 고리이자 근거로서 성취기준을 사용했다. 가령, 성취기준에서 핵심어를 찾아내어 교과 간 공통적이거나 유사한 내용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구상할 때 수업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경계로서 성취기준을 사용하였다. 즉 성취기준을 경계로 삼아 수업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선정하였다.

즉 정광순(2017)은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나침반이자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나침반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교사들이 핵심내용을 파악할 때, 교과를 관통하는 개념을 찾을 때, 그리고 수업을 상상할 때 그 방향과 경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방패로 사용한다는 것은 교사가 만드는 다양한 주제 중심, 교과 통합 교육과정 등을 성취기준이라는 그릇 안에 담음으로써 교육과정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바. 유성열(2018)의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용례 연구

유성열(2018)은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상황인 ‘수업’과 관련하여 성취기준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 명의 교사와 면담하고 그 결과를 범주화하여 기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 가르쳐야 할 내용과 평가해야 할 내용을 파악할 때
- 교과서에 정해진 차시 흐름을 벗어나고자 할 때
- 교과서 단원을 재구성할 때
- 교과 수업과 학생의 삶을 연결할 때
- 학생의 요구를 수업에 반영할 때
-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닛을 개발할 때
-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여부나 정도를 판단할 때

연구 결과 교사들은 결국 성취기준을 가르치거나 평가하기 위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교과서 차시 흐름을 벗어나거나, 단원을 재구성할 때, 또는 학생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닛을 개발할 때 그 ‘경계’로서 사용했다. 또한,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여부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성취기준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교사들은 누군가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자신만의 교육적 경험과 판단을 활용하여 성취기준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유성열(2018)은 교사의 더욱 적극적인 성취기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사교육, 성취기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workshop, 교사와 학생이 만드는 교육과정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성취기준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모습을 이전과 비교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한편으로는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양상이 교사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사. 이호담(2018)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사용 사례 연구

이호담(2018)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참여 교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은 무엇인지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하여 탐색하였다. 연구에서 드러난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 모습은 다음과 같다.

- 가르쳐야 할 것을 파악할 때
- 구체적인 학습범위를 한정하고자 할 때

연구 결과,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르쳐야 할 것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내용+행동’으로 진술된 성취기준을 읽고, 교사가 수업을 통해 실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과별 내용, 기능, 가치 등을 파악했다. 다음으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경계로 삼아 학습범위를 한정하였다. 종종 성취기준만으로

는 학습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교과서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렇게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고, 처방적 성격으로 기술되어 있는 성취기준 진술 방식으로 인하여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유성열(2018) 연구와 마찬가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교사가 실제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아. 김한성, 홍원표(2019)의 2015 개정 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 조사 연구

김한성, 홍원표(2019)는 2015 개정 사회과 성취기준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과 활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 188명의 교사에게 설문 조사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도 특히 사회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다. 연구 결과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확인할 때
- 어떤 학습 활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 어떻게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이 연구에서는 참여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자체를 밝혔다기보다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을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교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에 이 연구는 모경환·강대현(2012), 이광우 외(2014), 조상연(2015) 연구를 종합하여 교사는 성취기준을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확인 또는 선정하기 위한 기준, 어떤 수준이나 범위까지 활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계, 어떻게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써 사용한다고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내용’ 선정을 위한 근거, ‘활동’ 선정을 위한 경계 순으로 사용했다.

이 연구는 그 밖에도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교사들은 대체로 성취기준을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었지만, 성취기준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원인으로 첫째, 여전히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성취기준 진술 방식, 둘째, 성취기준 - 기능 - 역량 간 구분의 모호성 등이 지적되었다. 이처럼 이 연구는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활용, 만족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자. 이한나(2019)의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 과정으로 본 교과용 도서의 역할과 한계 연구

이한나(2019)는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사례를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교사는 성취기준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석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그것을 수정해가며 완성하는 교육과정 실행 중간중간 성취기준을 해석했다. 연구 결과 나타난 성취기준 사용 모습은 다음과 같다.

- 확인: 교육과정 내용 확인
- 판단: 수업 내용 판단
- 구상: 수업 구상

교사는 성취기준을 크게 확인-판단-구상 세 측면에서 사용하였는데, 사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 한 장면 안에는 이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다만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성취기준을 사용했고, 수업 내용과 활동 범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경계로서 성취기준을 사용했으며, 학생의 흥미나 수준, 맥락 등을 반영하면서도 성취기준과의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서 성취기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연구는 교육과정 실행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구분하여 현상별로 면밀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차. 유성열, 정광순(2020)의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 요인 탐색 연구

유성열, 정광순(2020)은 Q 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해 교사가 교육과정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대상과 행위로 구분하여 밝히고,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평정 과정을 거쳐 최종 요인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과정이란 크게 국가교육과정과 교사교육과정으로 대별되는데, 그중 국가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성취기준을 의미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 교과를 고려하여 가르칠 내용을 정한다.
- 학생을 고려하여 경험이나 주제를 정한다.
- 목표를 환경, 학생, 교사, 교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교사들은 교과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삼아 가르칠 내용을 정했고, 성취기준을 경계로 하여 학생 경험이나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성취기준을 근거로 환경, 학생, 교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사교육과정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교사는 성취기준을 기준, 경계, 근거 등으로 삼아 학생, 환경, 교사, 교과 등 공통요소(commonplaces)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교육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성취기준은 정광순(201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교실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나침반이자 방패로서 역할을 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크게 가르칠 내용이나 활동, 경험 등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가르칠 내용이나 활동의 범위, 수준, 깊이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경계’,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범주에 따라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 양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모습

구분		기준	경계	근거
조상연 (2015)	성취기준을 쪼개어 학생에게 '가르칠 것'을 찾기	√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수업 목표보다는 수업 활동 구상		√	
	성취기준을 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근거로 사용			√
김은주 외 (2016)	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		
	수업의 범위나 깊이를 정해주는 경계(boundary)		√	
	일정한 학습이 끝난 후 도달해야 할 당위적 규범			√
김민정 (2017)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 기능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	√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지켜야 할 바운더리		√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
김세영 (2017)	수업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한계		√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기준	√		
	교과서 차시를 다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
정광순 (2017)	가르칠 내용이나 자료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		
	교과 간 연계성 확보 및 연결을 위한 근거			√
	수업 구상의 범위		√	
유성열 (2018)	가르쳐야 할 내용과 평가해야 할 내용을 파악할 때	√		
	교과서에 정해진 차시 흐름을 벗어나고자 할 때		√	
	교과서 단원을 재구성할 때		√	
	교과 수업과 학생의 삶을 연결할 때		√	
	학생의 요구를 수업에 반영할 때		√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닛을 개발할 때		√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여부나 정도를 파악할 때			√
이호담 (2018)	가르쳐야 할 것을 파악할 때	√		
	구체적인 학습범위를 한정하고자 할 때		√	
김한성, 홍원표 (2019)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확인할 때	√		
	어떤 학습 활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	
	어떻게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

구분		기준	경계	근거
이한나 (2019)	확인: 교육과정 내용 확인	√		
	판단: 수업 내용 판단		√	
	구상: 수업 구상	√		√
유성열, 정광순 (2020)	교과를 고려하여 가르칠 내용 선정	√		
	학생을 고려하여 경험이나 주제 선정		√	
	목표를 환경, 학생, 교사, 교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

교사가 성취기준을 상용하는 모습을 다루는 연구를 종합한 결과, 이 연구에서 수집할 수 있었던 10편의 문헌 모두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진 개별적 연구였다. 또 성취기준이 도입된 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기준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여전히 성취기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와 관련한 연구들에 편중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을 도입한 시점은 7차 교육과정(1997)이지만, 국가교육과정 문서 안에서 ‘성취기준’이 적시된 시점을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보았을 때,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직접 접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 세 가지 의미(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평가 기준,
- 내용 선정 기준,
- 학생이 도착해야 할 도달점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실제로 상용하는 모습을 살펴본 결과, 성취기준 자체를 곧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즉 성취기준은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가르칠 내용, 활동, 경험 등을 선정할 때, 기준이나 경계, 근거로 사용하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과정 재구성 및 학교에서 동학년 중심으로 혹은 각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양상이 확산 중이고, 이에 교사들은 교과서를 가르치기보다는 로컬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성취기준은 교사들이 로컬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개발할 때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더 널리 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다루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는 힘들다.

이에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서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지를 알아보는 현장에 기반을 둔 대규모 전수 조사 연구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교사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상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선도할 수 있는지 예측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정에서 성취기준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야 할 것이다.

## 4. 성취기준의 의미와 역할

성취기준의 의미나 역할을 탐색한 선행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김신영, 백순근, 채선희(1998).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에 대한 고찰.
- 백남진(2007).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제시 방식에 대한 검토: 한국과 미국 과학(생물)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 백순근(1999). 수행평가의 이론적 기초. 초등교과교육연구, 3, 26-29.
- 성경희 외(1990).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학교 교육 평가 체제 연구(I). RR90-21.
- 서경혜(2016). 교육과정 재구성 논쟁.
- 소경희(2013). 미국의 교과교육에 있어서 국가공통 기준 도입 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주요 쟁점.
- 성영관, 백병부, 윤선인(2008). 성취기준의 차용 및 변용: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

- 윤현진 외(2008).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연구.
- 허경철(2007). 교육과정 기준으로서의 국가 교육성취 기준(National Standards)의 재음미.
- 허경철 외(1996). 국가공통 절대평가 기준 일반모형 개발 연구.
- 허경철, 백순근(1995). 종합생활기록부제의 취지에 따른 교육성취도평가 방안 연구: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를 중심으로,

성취기준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준’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김신영, 백순근, 채선희(1998)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준중심 운동이 한창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1990년대 당시 사용되었던 standards, 즉 기준에 대한 의미가 한국에서 4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분류하였다. 첫째, 국가 수준의 교육기준(educational standards)으로서 미국의 교육개혁안 Goals: 2000 등에서 나타나는 방식인데,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 내용을 상세화한 것이다. 이는 내용기준 content standards, 수행기준 performance standards, 학습기회기준 opportunity to learn standards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준거참조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평가의 준거(criterion)로서의 성취기준이다. 세 번째로는 평가 결과로서 능력의 수준을 구분하는 분할점(cut off)으로서의 성취기준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평가의질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원칙으로서의 기준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의 국가 수준의 교육기준이 성취기준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준거와 분할 점의 의미는 평가 기준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게 되었다. 위 문헌에서는 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s)을 평가 기준(assessment standards)과 구분하며, 성취기준을 “교과별 교수-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더 한 상세화된 교수-학습 목표나 내용을 진술한 것”(p.61)으로 정의하였다.

성취기준이라는 용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까지 계속되어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취기준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도달점’으로서 도입되었는데,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에서 지필 평가와 상대평가 위주의 학생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을 추진하며

그 기준으로서의 성취기준을 제시한 것이 그 시작이다. 기준은 수업의 방향을 이끌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학생 성취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Wiles & Bondi, 2011). 그러나 이미 국가가 표준화한 내용 기준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던 한국 교육의 맥락 안에서 성취기준은 미국과 같이 교육과정의 ‘결과’ 또는 ‘도달점’으로서 보다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나 교육과정의 ‘표준’으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그 존재론적 당위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다(정혜승, 2007). 최소 기준으로서 성취기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교육적 결과가 최소 기준만을 충족하면 그 이외의 것은 모두 교사의 자율성의 영역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도달점으로서 성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그 역시 도달점에 도달한다는 결과만을 평가하되, 그 도달하는 과정은 모두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취기준이 교육과정의 표준으로서 국가에서 제시하는 것이라면 교사의 자율권은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최소 기준이나 도달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표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현 상황에서는 교사들의 자율권과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맥락에서 촉발되는 비판과 논쟁으로부터 성취기준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서경혜, 2016).

또한, ‘기준’과 ‘교육과정’이 실제로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비판점이 있다. 두 개념은 그 내용의 범위가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의해 주로 구분되는데, ‘기준’이 일반적이고 탈맥락적인 공통의 것을 담아 국가 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교육과정은 다양한 수준의 로컬과 학교의 모습으로 구체화한 상태로서 개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성취기준은 ‘기준’이라는 이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과별 교육과정 논의 속에서 해당 교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기준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문제 역시 제기된다(소경희, 2013). 이러한 비판은 실제로 1996년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취지와도 연결된다. 당시 국가 교육과정 속에 국가 수준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그렇기에 국가공통 기준을 통한 절대평가, 그리고 교과별 성취기준을 통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게 된 것인데(허정철 외, 1997), 성취기준에도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에도 현장에서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내용’ 영역의 진술문으로써의

성취기준과 절대평가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성취기준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그렇기에 현장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윤현진 외(2008)는 차기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대강화와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기준과 평가를 위한 성취기준의 일원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의 일원화를 위해 내용 영역이 삭제되었다(교육부, 2015).

‘성취기준’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진 명확한 의미에 대한 혼란 또한 계속 있었다. 1990년대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준비기에 이뤄진 많은 연구는 ‘기준’, ‘성취기준’, ‘교육성취기준’, ‘학업성취기준’, ‘국가교육성취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절대평가를 위한 국가공통 수준의 기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변형들이 미국의 기준중심 운동에서 말하는 standards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인지, 또한 standards라는 단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했는지를 확인하여 그 의미와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참고하였던 원문의 맥락과 함께 비교하여 우리말로 다양하게 표현된 용어들은 본래 원어로 어떠한 표현을 번역한 것인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성취기준’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희 외(1990)의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학교 교육 평가 체제 연구’ 보고서와 허경철, 백순근(1995)의 ‘종합생활기록부제의 취지에 따른 교육성취도평가 방안 연구-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를 중심으로’라는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절대평가의 기준으로써 학생의 성취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영어 표현 performance standards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담론 속에서 사용하는 성취기준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고서는 허경철 외(1996)의 ‘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일반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이다(성열관 외, 2008).

이 보고서에서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전의 허경철, 백순근(1995)의 문헌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제고를 위한 절대평가 기준으로써 국가공통(수준)의 평가 기준이 필요한가는 주장을 할 때 ‘성취기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둘째로는 미국의 성취기준 개발 운동의 맥락 안에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성취수준으로서 ‘성취기준’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하지만, 두 번째 맥락인 미국의 기준중심 운동으로서 standards라는 용어를 번역할 때에 같은 문헌 속에서 ‘기준’과 ‘성취기준’ 두 단어가 혼용되어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글의 맥락에 따라 기준, 교육성취기준, 국가교육성취기준, 교육 성취기준, 학업성취기준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기준과 관련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66쪽과 67쪽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형태의 기준과 관련된 용어가 나타난다.

미국에서 교육과정 개혁 운동은 성취기준 개발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80년대 후반 이후의 개혁은 **기준중심**(standard based) 개혁으로 특징 된다. ... 이러한 노력은 다른 주와 교과단체에게 **학업성취기준** 개발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가져왔다. ... 이것은 다시 전국 범위에서 **교육의 기준**을 개발하는 노력에 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국가교육기준평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Standards and Testing)는 **국가교육성취기준**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1996, pp.66-67)

위 보고서에서 국가교육기준평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Standards and Testing, 이하 NCEST)의 보고서를 직접 인용을 한 단락을 살펴보면, 성취기준이라는 단어가 평가를 위하여 ‘성취를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뜻으로서 standards에 대한 직접적인 번역인 ‘기준’ 대신 채택되어 사용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허경철 외(1996)에서 번역한 NCEST의 보고서의 단락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잘 정리된 그리고 성취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준**이 없다면, 미국 교육은 최소 수준 유치의 암담한 현실을 답습하게 된다. 소수의 경쟁적인 4년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오늘날 현재의 **성취기준**은 낮은 수준의 읽기, 셈하기 기능과 몇 개의 내용 영역에 걸친 매우 소량의 사실적 자료 수준에 불과하다. (1996, pp.66-67)

In the absence of well-defined and demanding **standards**,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has gravitated toward de facto national minimum expectations, with curricula focusing on low-level reading and arithmetic skills and on

small amounts of factual material in other content areas. Most current assessment methods reinforce the emphasis on these low-level skills and processing bits of information rather than on problem 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NCEST, 1992, p.i)

그러나 보고서에서 ‘기준’이라는 단어 역시 계속해서 나타나기에 미국 기준중심 운동의 맥락에서 ‘성취기준’이라는 단어가 standards라는 영어 표현을 직접 번역하여 사용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1996년 팔리사데스에서 있었던 교육 정상회의에 대한 원문 기록들을 또한 참고하였다. 위 보고서에서 팔리사데스 교육 정상회의에 대해 다른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단락에서도 ‘성취기준’이라는 용어와 ‘기준’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1996년 3월 뉴욕주 팔리사데스(Palisades)에서 개최된 교육정상회의에서 ... 클린턴 대통령과 주지사들이 참여하여 교육의 **성취기준** 개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 “미국인들의 **성취 기준**에 대한 견해”, “**성취 기준**은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 “주별 교육의 **기준**, 평가 및 책무성” 등이었다. (허경철 외, 1996, p.76)

위와 관련하여 교육 정상 회의록과 같은 직접적인 원어 공식 기록물에는 접근할 수 없었으나, 캘리포니아 주립대-산타바바라(UCSB)에서 제공하는 미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서 1996년 교육정상회의에서의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아래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정상회의에서 쟁점으로 다루었던 ‘성취기준’이라는 용어의 원어 표현은 단순한 standards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At the second summit, here in Palisades 3 1/2 years ago, we supported the idea that every State should set **standards**. At this third summit I hope we will embrace with equal fervor the idea of accountability, for only by holding educators, schools, students, and ourselves accountable for meeting the **standards** we have set will we reach the goals we seek. (William J. Clinton, Remarks at the Nation Education Summit in Palisades, New York, 1999. 9. 30.)

또한, 위의 문단에서 직접 언급되었던 “성취기준은 비즈니스를 의미한다”라는 보고서 역시 “Standards mean business: 1996 National Education Summit (Hayden, 1996)”라는 제목으로 확인되면서, standards라는 단어가 ‘성취기준’으로 번역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허경철 외(1996)의 글을 통해 ‘성취기준’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저자(곽병선)는 미국의 기준중심 운동 개혁에서 사용된 영어적 표현 standards라는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학업 성취를 높이하고자 한 그 기준중심 운동의 의도를 담아 ‘성취기준’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용어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과정 중 우리나라 교육 담론 속에서 사용하던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기준이나 수준과 같은 단어나 성취기준, 학업성취기준, 교육성취기준 등 문맥에 따라 의미가 첨가되는 다양한 용어들이 모두 명확히 그 개념이 정의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었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성열관 외(2008)도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준비기에 처음 사용되었던 성취기준이라는 단어가 실제 미국에서 사용되는 Standards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Achievement Standards라 할 수 있는 성취기준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잘 규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허경철(2007)에 의하면 교수(teaching) 활동이 추가 되는 관점에서 학습(learning) 활동이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진술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내용을 학습하고 그것이 행동이 나타나는 ‘성취’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내용이 진술되었다는 해석에 따라 학생의 ‘성취’에 대한 기준임을 명시하기 위해 ‘성취기준’이라는 단어로 차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취기준, 기준(standards)이라는 단어 앞에 무수히 많은 형용사를 사용하며 새로운 용어들을 문맥에 따라 사용하지만(예를 들어, 학업 성취기준academic standards, 학습 기준learning standards, 평가 기준assessment standards, 교육 프로그램 기준educational program standards, 교육 체제 기준education system standards 등), 그 하위 개념들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후속 논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윤현진 외, 2008).

이렇게 살펴본 바를 정리하며, 우리나라의 교육 담론 속에서 ‘성취기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의미와 나타난 방식, 원어적 표현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7〉 기존 문헌들에서 성취기준이 사용된 양상 정리

구분	원어 표현 (관련 표현)	설명	구분		
			내용 선정 기준	평가 기준	도달 점
성경희 (1990)		“절대 평가 또는 기준 중심 평가에서의 평가의 준거로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특성의 성취 기준”(p.26)		√	√
허경철, 백순근 (1995)	Performance Standards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의도된 교수-학습 목표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교과별 교육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취기준”(p.273)		√	
허경철 외(1996)	Standards (내용기준 content standards, 수행기준 performance standards, 학습기회기준 opportunity to learn standards, 세계수준기준 world class standards)	1. 학업 성취의 절대평가 기준으로서 국가공통(수준) 평가기준 2. 미국의 성취기준 개발 운동(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 것인가와 같은 성취수준)	√	√	
허경철 외(1997)		해당 학년에서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할 요소들을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	√		√
이돈희 외(1997)		해당 성취영역에 대하여 학생들이 성취한 정도를 몇 단계의 수준으로 나누어 판정하는 데 기준으로 이용되는 진술문		√	
김신영, 백순근, 채선희 (1998)	Achievement Standards (educational standards)	“각 교과별 교수-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터한 상세화된 교수-학습 목표나 내용을 진술한 것”(p.61)	√		
백순근 (1999)	Achievement Standards	교과별 교수-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교육목표 및 내용)	√		√



구분	원어 표현 (관련 표현)	설명	구분		
			내용 선정 기준	평가 기준	도달 점
백남진 (2007)	Standards (내용기준 content standard 수행 기준 performance standard)	‘내용+행동’이 함께 진술되는 활동중심의 진술 형태	√	√	
정해승 (2007)	Achivement Standards (수행기준 performance standards, 내용기준 content standards)	수행기준(평가적 잣대)보다 내용 기준(가르치고 배울 내용이 무엇인가)의 의미로 사용됨	√		
허정철 (2007)	National Standards	‘내용+행동’의 형식으로 교육내용을 진술한 것	√		√
성열관 외(2008)	교육과정 기준 curriculum standards, 수행기준 performance standards, 평가기준 assessment standards, 학습성취기준 learning standards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원어 standards의 의미가 변용되어 1. 평가 기준의 선행요건 2. 교육내용 진술 방식을 지칭하게 됨	√	√	√
윤현진 외(2008)	Standards	“교수-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각 교과목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과 그러한 내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또는 보여 주어야 할) 능력 및 특성을 명료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의 준거가 되는 기준”(p.17)	√	√	√
서경혜 (2016)	Standards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를 넘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배웠을 때 어떠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는가, 즉 학습 결과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개념화한 것”(p.223)			√

기존 문헌들에서 나타난 성취기준이 갖는 의미의 양상은 위와 같이 세 가지로 종합하여 나타낼 수 있었다.

■ 내용기준

: 성취기준(standards)을 교육과정의 내용적 표준의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

■ 평가기준

: 성취기준을 학생들이 학습한 후 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 최소 기준의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

■ 학생에게 기대하는 도달점

: 성취기준을 학생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수준이나 방향으로 보는 관점

첫 번째 내용기준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사용해온 경향성을 보여주는 관점으로 본 보고서의 이전 단원의 선행 연구 분석 결과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때 여전히 현장의 교사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입장이다(정혜승, 2007).

두 번째의 평가기준으로 보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높이고자 평가와 산출을 강조하였던 미국의 커리큘럼 전통을 따르는 견해를 반영한 것인데, 이러한 미국의 기준중심운동이 우리나라의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평가 관점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만나 이와 같은 평가기준으로서 성취기준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취기준을 기대점으로 보는 것은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유럽권의 여러 국가에서 통용하는 의미이다. 성취기준을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열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Rothaman, 2011). 그러한 ‘기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expectations’로, 호주의 경우 ‘learning outcomes’로 표현하며, 독일의 경우에는 ‘bildungs standards’라 하여 학생들이 학습한 후에 도달할 방향을 연방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 5.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이 장에서는 ‘성취기준’이 국내에 어떻게 정착하면서, 오늘날 어떤 방향으로 활용 및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첫째,** 국내에서 사용하는 성취기준이라는 개념은 무엇보다 미국의 기준 중심 운동 과정에서 출현한 ‘standards’를 도입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연방의 공통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개발 고시하면서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학생들이 도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에 교사가 성취기준으로 수업을 만드는 백워드 설계가 크게 유행하였고, NCLB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대적인 학생 성취 평가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미 로컬에서 특히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만들어 왔고, 이런 전통이 아주 강한 전통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평가할 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방향에서 역방향은 미국의 전통이나 문화에서 역방향이지만, 이런 방향에 익숙한 우리에게서 이게 왜 백워드 인지 선험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에 백워드 설계에 의거 수업을 설계하거나 교육과정을 개발해 본 적이 없는 교사들이 ‘이거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에 국내에서 성취기준에서 출발하기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 유용해 보이지 않는다. 국내의 교육과정은 일관성보다는 다양성, 지역화, 자율화 방향에서 개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하향식(top-down) 개선이라는 방향성이 국내의 상향식(bottom-up) 개선이라는 방향과 어긋나 있다는 점을 숙고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성취기준에서 출발하는 혹은 더 높은 수준(도달점) 이런 지향이 현장 기반에서 크게 반향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성취기준을 안착시켜 온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 보았을 때, 허경철(1996, 1997)의 연구에서 시작해서 제7차, 2007 개정, 2009, 그리고 2015 개정 각 교육과정 시기별 성취기준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성취기준의 의미 변화가 점점 표면화 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성취기준을 다음 두 축으로 정착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내용 선정 기준으로서의 성취기준

■ 평가 기준으로서의 성취기준

국내 학계 모두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취기준을 내용 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용선정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에 후속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평가 기준, 즉 학생 성취 평가를 통해서 전체 학교교육의 질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성취기준을 로컬에서 교사가 자신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는 ‘내용 선정 기준에 중점을 둘 것인지, 학생의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전체 학교교육의 질을 담보하는데 초점을 둘 것인지, 의도와 지향을 좀 더 명확히 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가 성취기준을 상용하는 실재를 탐구한 10편의 문헌들을 종합해 본 결과, 모두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진 개별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취기준의 역할로 세 가지(평가 기준, 내용 선정 기준, 학생이 도착해야 할 도달점)를 권장해 왔지만,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실제로 상용하는 모습을 살펴본 결과, 성취기준 자체를 곧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취기준은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가르칠 내용, 활동, 경험 등을 선정할 때, 기준이나 경계, 근거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과정 재구성 및 학교에서 동학년 중심으로 혹은 각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양상이 확산 중이고, 이에 교사들은 교과서를 가르치기보다는 로컬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성취기준은 교사들이 로컬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개발할 때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더 널리 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서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지를 알아보는 현장에 기반을 둔 대규모 전수 조사 연구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이런 현장으로부터 나오는 증거정보를 바탕으로, 교사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상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선도할 수 있는지 예측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정에서 성취기준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취기준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성취기준은 세 가지, ① 내용기준(성취기준(standards)을 교육과정의 내용적 표준의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 ② 평가기준(성취기준을 학생들이 학습한 후 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 최소 기준의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 ③ 학생에게 기대하는 도달점(성취기준을 학생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수준이나 방향으로 보는 관점)의 의미로 각 의미에 적절한 기능 및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학계나 현장에서는 성취기준을 내용기준으로 이해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특히 교사들이 국가 교육과정 내용을 최소기준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의 성취기준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전통에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 논의 때부터 평가 기준으로서 성취기준을 도입하자 교사들은 ‘모든 학생에게 성취기준을 이수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

이는 책무성의 관점에서는 유용하게 작용하지만, 최근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분권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정책 기조에서 보면,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과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취기준을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는 평가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내용 기준으로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해서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면서 교육과정의 질 저하, 성취기준 해석 차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성취기준을 내용 기준이든 평가기준이든 최소 기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작금의 시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현장에서 교사는 성취기준을 내용기준이든, 평가기준이든 기대점이든 그 어떤 의미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기준으로 인식한다면, 성취기준을 내용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꼭 가르쳐야 한다고 이해할 것이고,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성취기준을 이수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교사는 몇 안 될 것이다. 책무성의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어떤 기준이든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과 재량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취기준, 즉 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최소한으로 성취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에 부담감을 지워주기보다는 학생이 학습을 마친 후에 최대한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기대점으로서의 성취기준을 제안한다.

이는 기대점으로서 성취기준은 학생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과 방향성으로서 성취기준을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 최종 기대점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교사들은 현장에서 단순히 성취기준에 따른 일제적인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주는 대신, 최종적인 기대점에 비교하여 현재 자신들의 학생이 처한 위치와 수준을 파악한 뒤 그 순간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피드백을 위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대 기대점으로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교사들이 자신의 학생에게 맞는 내용 기준과 평가 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다.**



# IV

##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

1. 사전 Workshop
2.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초본) 작성
3. 성취기준 갱신(초본)에 대한 심의
4.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수정본) 작성
5. 성취기준 갱신(안)에 대한 타당화
6.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 안 제안





## IV.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

이 연구는 수업에서 성취기준을 직접 사용해서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사의 관점에서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을 갱신해 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workshop에 참여하였다.

### 1. 사전 workshop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전 workshop을 열어서, workshop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목적, 방향을 안내하고, 연구진(전문가 집단)과 workshop에 필요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충분히 공유하였다.

#### ■ 사전 모임

- 목 적: 연구 방향 및 전문가 집단 역할 안내
- 일 시: 2021년 6월 4일 (금) 오후 3시 ~ 오후 6시
- 장 소: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웨비나
- 참가자: 연구진 4인, 1, 2학년 담임교사 10인

사전 모임은 무엇보다 먼저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하였다.

〈표 IV-1〉 1차 workshop 세부 운영 계획

순	세부 내용	비고
1	workshop 안내 - ‘왜 현장기반 성취기준 갱신인가?’	연구책임자
2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 주제 유지 여부 성취기준의 개수 적정화 내용 중심 기준 vs (        ) 중심 기준 기타 의견	참여 교사
3	성취기준별 사전 검토 결과 공유 및 의견 종합	참여 교사
4	현장기반 통합교과 성취기준 개발	전체

그리고 연구진에서는 참여 교사들에게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 목록을 배부하고,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하거나 개발하면서 성취기준을 사용하면서 드는 생각, 의견 등을 충분히 기록하도록 안내하였다.

교과서명 (학년·학기)	단원명	영역 (대주제)	핵심 개념 (소주제)	성취기준	판단	평가의견
봄 (1-1)	1. 학교에 가 면	학교	학교와 친구	[2바01-01] 학교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수정 / 삭제 / 유지	
				[2술01-01] 학교 안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 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2술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2물01-01]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물01-02]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꾸민다.		
봄 (2-1)	1. 알콩달콩 나	나		[2바01-0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2술01-03]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는다.		
				[2술01-04]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자능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		
				[2물01-03] 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물01-04] 나의 흥미와 자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		

[그림 IV-1] workshop 활동지(예시)

참여 교사들은 2021년 1학기 한 달 동안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실행 혹은 개발하면서 성취기준을 충분히 성찰하도록 하였다.

## 2.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초본) 작성

2021년 7월 20일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개별로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들을 평가하고,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참여 교사들의 의견을 교류·공유하면서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의견을 기반으로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초본)을 작성하였다.

- 성취기준 갱신(초본) 작성을 위한 workshop
  - 목적: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 및 갱신 방향 수립
  - 내용
    1.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2.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 방향에 대한 자유 논의
  - 일시: 2021년 7월 10일 (토) 오후 12시 ~ 오후 6시
  -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관 202호
  - 참가자: 연구진 4인, 참여 교사 10인

### 가. 성취기준 갱신 방향 협의

가장 먼저,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실행 및 개발하는 관점에서 현행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들을 개인적으로 평가하면서 갱신해 보는 사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활동 과정에서 생각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여 교사의 성취기준 갱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진은 참여 교사의 사전활동지를 workshop 전에 모아 의견들을 단순 종합해서 당일 평가 workshop 자료로 준비해서 참여 교사들에게 배부했다.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잠시 검토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렇게 해서 연구의 의도에 적절한 참여 교사들의 의견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 ① 주제 체제 유지 여부

주제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② 성취기준의 수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으로서 적절한 개수는?

③ 주제 개발 준거

( ) 중심으로 주제를 개발할 것인가?

세 가지 문제를 출발점으로써 성취기준 갱신 방향에 대한 교사 간 협의가 있었다.

■ 협의1. 주제 유지 여부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은 시간과 공간의 두 축으로 주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통합교과에서 제시하는 주제 유지에 관해 참여 교사 10인 모두 ‘주제를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 ① 국가(국가교육과정)에서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통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
- ② 시간과 공간의 두 축으로 제시된 현 주제 학생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 ③ 현 주제가 다른 타 주제와 비교했을 때 수업을 만드는데 용이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대체로 주제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모였다.

즉 주제 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 교사 10명 모두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교사1. 봄-여름-가을-겨울은 특히 주변을 자연스럽게 수업의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소재를 취하기 편하다는 점에서 이 주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교사4. 그러나 봄-여름-가을-겨울은 성취기준을 이런 주제에 한정하고 있어서 1, 2학년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주제들을 접하지 못하게 한정하는 역할도 해서 저는 주제를 좀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교사3, 7, 9,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주제를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치 있는 주제도 좋지만, 대다수 교사들이 접근하기 무난한 이런 주제도 국정 교과서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대중적이라고 봅니다.

(0210720 workshop 중 교사간 대화 내용)

또한, 참여 교사들은 주제를 유지하되, 고민해야 할 부분도 함께 제시했다.

첫 번째는 주제 안에서 내용 유연성 확보다.

주제는 적합하나 제시된 내용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가령, ‘봄’이라는 주제와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 내용을 보면 실제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이 명확하지 않아 주제에서 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여 교사들은 주제를 유지하되, 주제 안에서 내용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협의의 결과는 주제 체계를 유지하고, 주제 내 성취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취기준을 갱신해 보자고 합의하였다.

## ■ 협의2. 성취기준의 개수 적정화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은 대주제-소주제-성취기준 체제다.

〈표 IV-2〉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체제와 교과서

교육과정					교과서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단원
1. 학교	1.1 학교와 친구	바01-01	슬01-01 슬01-02	즐01-01 즐01-02	봄1-1 1학교에 가면(20)
	1.2 나	바01-02	슬01-03 슬01-04	즐01-03 즐01-04	봄2-1 1. 알쏭달쏭 나(40)
2. 봄	2.1 봄맞이	바02-01	슬02-01 슬02-02	즐02-01 즐02-02	봄2-1 2. 봄이 오면(40)
	2.2 봄동산	바02-02	슬02-03 슬02-04	즐02-03 즐02-04	봄1-1 2. 도란도란 봄동산(40)
3. 가족	3.1 가족과 친척	바03-01	슬03-01 슬03-02	즐03-01 즐03-02	여름1-1 1. 우리는 가족입니다(40)
	3.2 다양한 가족	바03-02	슬03-03 슬03-04	즐03-03 즐03-04	여름2-1 1. 이런 집 저런 집(40)

교육과정					교과서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단원
4.여름	4.1 여름 맞이	바04-01	슬04-01 슬04-02	즐04-01 즐04-02	여름1-1 2. 여름 나라(40)
	4.2 여름 생활	바04-02	슬04-03 슬04-04	즐04-03 즐04-04	여름2-1 2. 초록이의 여름 여행(40)
5.마을	5.1 우리 이웃	바05-01	슬05-01 슬05-02	즐05-01 즐05-02	가을1-2 1. 내 이웃 이야기(40)
	5.2 우리 동네	바05-02	슬05-03 슬05-04	즐05-03 즐05-04	가을-2 1. 동네 한 바퀴(40)
6.가을	6.1 가을맞이	바06-01	슬06-03 슬06-04	즐06-01 즐06-04	가을-2 2. 가을아 어디 있나(40)
	6.2 가을모습	바06-02	슬06-01 슬06-02	즐06-02 즐06-03	가을1-2 2. 현규의 추석(40)
7.나라	7.1 우리나라	바07-01	슬07-01 슬07-02	즐07-01 즐07-02	겨울1-2 1. 여기는 우리나라(40)
	7.2 다른나라	바07-02	슬07-03 슬07-04	즐07-03 즐07-04	겨울2-2 1. 두근두근 세계 여행(40)
8.겨울	8.1 겨울맞이	바08-01 바08-03	슬08-01 슬08-02	즐08-01 즐08-02	겨울1-2 2. 우리들의 겨울(40)
	8.2겨울나기	바08-02 바08-03	슬08-03 슬08-04	즐08-03 즐08-04	겨울2-2 2.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40)
8개	16개	17개	32개	32개	8책 16단원

현재 대주제 8개(학교, 봄, 가족, 여름, 마을, 가을, 나라, 겨울), 대주제 한 개당 소주제 2개(학교와 친구-나, 봄 동산-봄맞이, 가족과 친척-다양한 가족, 여름맞이-여름 생활, 우리 이웃-우리 동네, 가을 모습-가을맞이, 우리나라-다른나라, 겨울맞이-겨울나기)로 16개의 소주제가 있다. 성취기준은 한 개의 소주제 당 바른 생활 1개, 슬기로운 생활 2개, 즐거운 생활 2개로 개발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 겨울나기 소주제는 바른 생활 1개의 성취기준이 추가하고 있다.

바른 생활 성취기준 17개

슬기로운 생활 성취기준 32개

즐거운 생활 성취기준 32개

(총 81개)

이러한 통합교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통합교과서는 월별 교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소주제 하나를 한 달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소주제에 따른 바른 생활 1개, 슬기로운 생활 2개, 즐거운 생활 2개, 총 5개의 성취기준을 월별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의 의견은 교과서 단원별로 이수해야 할 성취기준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사4. 각 단원에 바른 생활은 성취기준이 1개인데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 성취기준이 2개씩 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2개의 성취기준을 구분하기 힘들었다. 둘을 합해서 가르칠 것을 파악했다.

(0210720 workshop 중 교사 간 대화 내용)

교사들은 현행 총 81개의 성취기준의 개수에 대해,

- ①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부담이 된다
- ② 성취기준의 통합 가능하다

라는 두 가지를 근거로 현행 성취기준들을 다소 통합할 필요, 그래서 성취기준의 개수를 적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적정 수의 성취기준으로, 월별로 바른 생활 1개, 슬기로운 생활 1개, 즐거운 생활 1개로 총 3개를 가르칠 수 있게 하여 16개의 소주제가 유지될 시 총 48개의 성취기준이 적정한 성취기준 수라는 의견에 합의했다. 따라서 교과서로 보면, 단원(교육과정 소주제별)별로 바·슬·즐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1개씩 통일하며 성취기준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

### ■ 협의3. 주제 개발 기준

2015 통합교과의 주제는 시공간을 준거로 봄-여름-가을-겨울을 놓고, 초등학교 1, 2, 학년 학생들의 생활 세계로서 장소를 고려할 때, 학교-가족-마을-나라 주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참여 교사들은 ‘가치’ 중심 기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사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봄-여름-가을-겨울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교사4. 지금의 대주제는 4차 산업 혁명 사회, AI 등 인공 지능이 기능하는 우리의 삶,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 지속 가능성과 발달 문제, 국제 이해 문제 등 현재의 쟁점들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교사2.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1, 2학년 학생들이 가치가 드러나는 주제에 집중하기 쉽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치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하면 선생님1, 4의 의견을 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0210720 workshop 중 교사 간 대화 내용)

현행 주제에서는 제시하는 주제에 간히는 내용일 수밖에 없어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불편함을 주는 요소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주제는 있지만, 주제에 간히지 않는 내용이 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가치 중심 기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가령, ‘사랑’, ‘배려’ 등 가치를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한다면, 대주제, 소주제가 있더라도 주제에 간히지 않으면서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의 삶이 중심이 되는 통합교과의 본질에도 심한 손상이 없을 것이다.

또 참여 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 역량 등도 궁극적으로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중심 기준이라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참여 교사들은 이런 시·공간적 주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생활 세계를 대변하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이 빈약하기 쉽고, 중요한 이슈들과 직접적인 연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주제는 가치 중심의 주제도 괜찮아 보이지만, 현재의 8개 대주제 체제를 유지하고 성취기준에서 이 문제를 반영해 보기로 했다. 즉 바른 생활과의 성취기준을 가치 중심으로 반영하고, 가능한 주제 안에 간히지 않도록 성취기준을 갱신해 보기로 했다.

#### ■ 협의4. 성취기준 진술 방식

3개의 쟁점에 대한 협의에서 나아가서 현행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을 갱신하는 workshop인 만큼, 교사들은 자연히 ‘성취기준 진술 방식’ 혹은 ‘성취기준 갱신 방향’에 대한 협의로 자연스럽게 나아갔다.

성취기준 진술 방식에 대한 의견은 다른 쟁점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었다.

연구자1. 주제 설정에서 협의한 것을 좀 정리 해 드리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하면 주제에 간하지 않는 성취기준으로 갱신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른 생활 성취기준을 가치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취기준 갱신 작업을 해 보기 전에 더 협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교사5. 성취기준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간단명료하면 좋겠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설계할 때 성취기준을 해석해서 초점을 정하는데, 처음부터 초점이 명확한 성취기준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2. 저는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연결하기가 더 쉬웠거든요

(0210720 workshop 중 교사 간 대화 내용)

교사 협의 결과, 성취기준 갱신에 대해서는 다음 4가지를 협의 및 합의했다.

- ① 가능하면, 주제에 간하지 않게
- ② 바른 생활은 가치 중심으로
- ③ 가능하면 술어를 다음과 같이 통일해서 진술한다.

바른 생활: ~실천한다

슬기로운 생활: ~탐구한다.

즐거운 생활: ~표현한다

- ④ 포괄적인 문장으로

즉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을 고려할 때, 특정한 내용을 명시하기보다는 교사나 학생이 원하는 소재들이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진술한다.

〈표 IV-3〉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 원칙에 대한 합의 결과

구분	합의 및 합의 결과
주제	1. 현행 주제 체제를 유지한다.
성취기준	2. 가능하면 주제에 간하지 않는 성취기준으로 갱신한다. 3. 성취기준 개수는 소주제별 바·슬·즐 각 1개씩 (바 16개/슬 16개/즐 16개=총 48개)로 갱신한다. 4. 가능하면, 바(실천한다)·슬(탐구한다)·즐(표현한다)로 슬어를 통일하며 갱신한다. 5. 특정 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 갱신한다. (추상성과 구체성 사이, 중간 정도의 포괄성 유지)

성취기준 갱신 방향으로 다음 5가지 기준을 합의했다.

첫 번째 기준은 ‘주제를 유지하되, 주제 안에서 내용 유연성 확보한다’이다. 참여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주제를 제시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의 목적 중 하나인 ‘공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이 안에서 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가치 중심 기준’이라는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되었다.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주제에 간하지 않게 진술하여 기준 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성취기준 갱신 방향을 설정했다.

세 번째 ‘소주제별 바·슬·즐 성취기준 개수 1개로 적정화’다. 참여 교사들은 소주제별 성취기준 개수를 바·슬·즐 별 1개로 적정화한다면 교사가 교육과정 실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주제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타 성취기준과 충분히 통합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의미상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한 성취기준의 편의성을 재차 강조했다.

네 번째 기준은 ‘바·슬·즐의 진술 방식 통일’이다. 구체적으로 바른 생활은 ‘실천한다’로 슬기로운 생활은 ‘탐구한다’로 즐거운 생활은 ‘표현한다’로 진술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 세 진술 표현은 기존에 성취기준에 제시된 여러 진술 표현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 현재와 같이 성취기준별로 진술 표현을 구체적으로 찾고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위 진술 표현으로 다양한 수업을 만

들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한 성취기준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주제 추상성과 구체성 사이에서 중간 수준의 포괄성 확보’다. 참여 교사들은 교사가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인 성취기준 혹은 지나치게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성취기준은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추상성과 구체성 사이에서 중간 수준의 포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나.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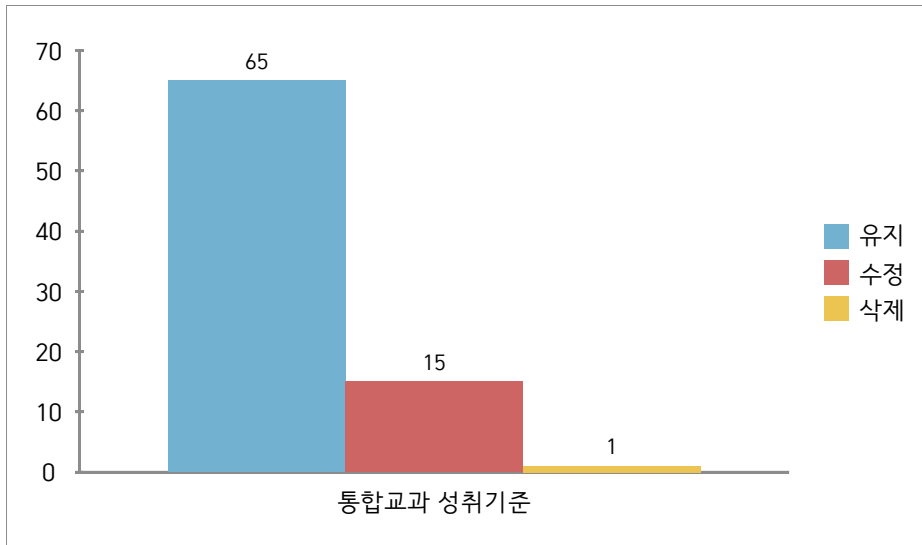
이렇게 성취기준 갱신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협의·합의한 후 참여 교사들은 이 사전에 성취기준별로 평가하고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면서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들을 갱신하는 workshop을 수행했다.

##### 1) 성취기준별 유지-수정-삭제 의견 결과

먼저,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 81개(바른 생활 17개, 슬기로운 생활 32개, 즐거운 생활 32개)를 대상으로 유지해도 좋다는 것에 ‘유지’, 유지하면서 다소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생략할 수 있다면 ‘삭제’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성취기준별 참여 교사를 의견을 정리했다.

10인의 참여 교사들은 통합교과 성취기준 81개에 관하여 사전에 ‘유지’, ‘수정’, ‘삭제’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했고, 81개의 성취기준 중 ‘유지’가 주 의견<sup>1)</sup>인 성취기준은 65개, ‘수정’이 주 의견인 성취기준은 15개였으며 ‘삭제’가 주 의견이었던 성취기준은 1개였다.

1) 주 의견은 ‘유지’, ‘수정’, ‘삭제’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에 해당한다.



[그림 IV-2] 성취기준에 대한 유지-수정-삭제 의견 현황 종합

## 2) 성취기준별 갱신 의견 분석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을 갱신하는 workshop은 1학년 팀과 2학년 팀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참여 교사들은 각 교사의 성취기준별 ‘유지’, ‘수정’, ‘삭제’에 따른 의견들을 참조하면서, 각 성취기준을 갱신하였다. 학년별 workshop에서 갱신을 위한 참여 교사의 성취기준 평가 및 의견을 workshop 자료로 만들어서 각자에게 배부하여 살펴보면서 갱신 작업을 수행했다.

〈표 IV-4〉 성취기준 갱신에 대한 의견 종합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주요 의견		
학교	학교와 친구	[2바01-01]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유지	5	-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차별화되는 내용 개발 필요
			수정	2	
			삭제	3	
		[2슬01-01] 학교 안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유지	2	- 학교 안과 밖, 교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다양한 학교 공간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 - 입학 초기 적응활동과 내용 중복이 되어 대안으로 ‘관계 맺기’에 집중하는 방안 제시
			수정	4	
			삭제	4	
		[2슬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유지	4	- ‘알아본다’ 진술을 활용하기가 어려워 ‘수행한다’, ‘탐구한다’ 등으로 수정 필요
			수정	5	
			삭제	1	

IV.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주요 의견		
		[2즐01-01]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유지	6	- 창의적 사고 역량을 고려한 성취기준 - [2즐01-02]와 통합
			수정	2	
			삭제	2	
		[2즐01-02]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꾸민다.	유지	8	-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고려한 성취기준 개발
			수정	1	
			삭제	1	
	나	[2바01-0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유지	7	- [2바02-01]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 - '감정'과 관련한 내용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성취기준 개발 필요
			수정	3	
			삭제	0	
		[2즐01-03]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는다.	유지	6	- 내 몸을 잘 쓰는 방법, 내 몸에 고마워할 수 있는 내용 필요 - 현 성취기준이 세부적, 지엽적임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수정	2	
			삭제	2	
		[2즐01-04]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재능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	유지	2	-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 미래를 예상하는 행위가 학생 수준에 맞지 않아 성취기준이 교사의 수업을 제약함 - 나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성취기준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수정	8	
			삭제	0	
		[2즐01-03] 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유지	6	- '놀이한다'라는 진술방식은 '표현한다'로 포괄적으로 제시
			수정	4	
			삭제	0	
		[2즐01-04] 나의 흥미와 재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	유지	6	- 공연·전시한다는 지나치게 구체적임으로 '표현한다'로 대체 - [2즐01-03]과 통합
			수정	3	
			삭제	1	
봄	봄동산	[2바02-02]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유지	6	- '보살핀다'라는 표현대신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중점을 두는 표현으로 대체
			수정	4	
			삭제	0	
		[2즐02-03]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찾아본다.	유지	4	- [2즐02-04]와 통합
			수정	5	
			삭제	1	
		[2즐02-04] 봄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 기르면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한다.	유지	9	-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구체적임으로 '탐구한다'라는 진술을 통해 교사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수정	1	
			삭제	0	
		[2즐02-03]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유지	6	- [2즐02-04]와 통합
			수정	4	
			삭제	0	
		[2즐02-04]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봄나들이를 즐긴다.	유지	8	- 놀이와 게임이 중복된 표현임 - '봄나들이를 즐긴다'라는 느낌보다 '봄을 즐긴다'라는 표현이 적절함 - '봄나들이'가 실현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수정 필요
			수정	2	
			삭제	0	
	봄맞이	[2바02-01] 봄철 날씨 변화를 알고 건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유지	4	- 봄철 날씨 변화를 아는 것은 슬생에서 다루기 때문에 건강 수칙을 실천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2바01-02]와 건강 영역이 중복됨
			수정	5	
			삭제	1	
		[2즐02-01] 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유지	10	- [2즐02-02]와 통합하여 자연의 모습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제시
			수정	0	
			삭제	0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주요 의견		
		[2슬02-02] 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종류와 쓰임에 따라 구분한다.	유지	4	- 봄철에 사용하는 생활도구가 일반적임
			수정	5	- '봄'에서는 '구분한다'라고 진술되고 '가을'에서는 '무리 짓는다'라고 진술되고 있어 이 둘 표현의 통일이 필요
			삭제	1	
		[2슬02-01] 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유지	10	- 타 성취기준과 연계해서 활용하기가 매우 적합
			수정	0	
			삭제	0	
		[2슬02-02] 봄을 맞이하여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	유지	4	- '집'이라는 한정적인 표현 대신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대체
			수정	5	
			삭제	1	
가족	가족과 친척	[2바03-01] 가족 및 친척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실천한다.	유지	8	- '가정폭력'과 관련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성취기준 필요
			수정	2	
			삭제	0	
		[2슬03-01] 우리 가족의 특징을 조사하여 소개한다.	유지	6	- '우리 가족의 특징'이라는 표현은 모호하여 학생의 조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수정	3	
			삭제	1	
		[2슬03-02] 나와 가족, 친척의 관계를 알고 친척과 함께 하는 행사나 활동을 조사한다.	유지	3	- '가족, 친척의 관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탐구한다'의 진술 방식을 활용해 포괄적인 성취기준으로 대체
			수정	6	
			삭제	1	
		[2슬03-01]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유지	4	-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제시
			수정	6	
			삭제	0	
		[2슬03-02]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한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유지	8	- [2슬03-01]과 통합
			수정	2	
			삭제	0	
	다양한 가족	[2바03-02] 가족의 형태와 문화가 다양함을 알고 존중한다.	유지	9	- '다양함'을 아는 것이 성취기준 내용 분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한다'로 수정
			수정	1	
			삭제	0	
		[2슬03-03]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살펴본다.	유지	7	-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구 삭제
			수정	3	
			삭제	0	
		[2슬03-04] 가족의 형태에 따른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알아본다.	유지	6	- 가족의 형태에 따라 구성원의 역할을 알아보기보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탐구하는 표현으로 대체
			수정	4	
			삭제	0	
		[2슬03-03] 집 안팎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유지	7	- '집'과 관련된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집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수정	1	
			삭제	2	
		[2슬03-04]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놀이를 한다.	유지	7	- '놀이한다'는 내용 선정의 범위가 제한적임으로 '표현한다'로 수정 필요
			수정	3	
			삭제	0	
여름	여름 맞이	[2바04-01] 여름철의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알고 습관화한다.	유지	10	-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성취기준임
			수정	0	
			삭제	0	
		[2슬04-01] 여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유지	9	- [2슬04-02]와 통합
			수정	1	- 다른 성취기준과 연계해서 활용하기에 적합함
			삭제	0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주요 의견		
	여름 생활	[2슬04-02]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	유지 수정 삭제	6 3 1	-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가 쉽게 떠올리기가 어려워 생활도구에 한정하지 않는 표현으로 대체
		[2슬04-01] 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유지 수정 삭제	9 1 0	- [2슬04-02]와 통합
		[2슬04-02]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유지 수정 삭제	7 0 3	-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문구를 '다양하게 표현한다'로 대체
		[2바04-02] 여름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유지 수정 삭제	8 2 0	- [2슬04-04]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유지 수정 삭제	9 1 0	- '다양한 동식물을 탐구한다'로 대체
		[2슬04-04] 여름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계획한다.	유지 수정 삭제	7 1 2	- [2바04-02]와 통합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유지 수정 삭제	9 1 0	- [2슬04-04]와 통합
		[2슬04-04]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유지 수정 삭제	8 1 1	- '놀이한다'라는 것은 신체표현과 관련한 내용이 한정적일 수 있어 '표현한다'로 대체
	마을	[2바05-01] 공공장소의 올바른 이용과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유지 수정 삭제	5 5 0	- '공공장소'라는 용어가 어려워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 등으로 대체 - 이웃과 지켜야 할 예절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2슬05-01]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유지 수정 삭제	7 3 0	- '더불어 생활한다'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수정 필요
		[2슬05-02]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시설물의 종류와 쓰임을 탐색한다.	유지 수정 삭제	10 0 0	- 공동체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성취기준으로 [2슬05-01]과 통합하여 제시
		[2슬05-01] 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유지 수정 삭제	2 7 1	-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다른 표현으로 대체 - [2슬05-02]와 통합
		[2슬05-02] 주변의 장소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놀이한다.	유지 수정 삭제	3 6 1	- 주변의 장소와 시설물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어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대체
	우리 동네	[2바05-02]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안다.	유지 수정 삭제	4 6 0	- '일의 소중함'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2슬05-04]에서 다룰 수 있어 구분이 필요
		[2슬05-03] 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다.	유지 수정 삭제	9 1 0	- '그림으로 그려'라는 세부적인 표현 삭제
		[2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유지 수정 삭제	10 0 0	- [2슬05-03]과 통합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주요 의견		
가을	가을 모습	[2즐05-03] 동네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유지 수정 삭제	10 0 0	- 타 성취기준과 연계하기에 적합함 - [2즐05-04]와 통합
		[2즐05-04]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유지 수정 삭제	9 1 0	- '놀이한다'라는 문구를 '표현한다'로 대체
		[2바06-02] 추수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른다.	유지 수정 삭제	7 2 1	- '추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제한적임으로 '가을의 풍요로움에 영향을 준 사람들'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
		[2슬06-02]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가을의 특징을 파악한다.	유지 수정 삭제	9 1 0	- 타 주제 성취기준과 문구 및 진술 방식 통일
		[2슬06-03]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 풍속과 비교한다.	유지 수정 삭제	8 2 0	- [2즐06-02], [2즐06-03]에서 다를 수 있음
		[2즐06-02]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유지 수정 삭제	7 3 0	- [2즐06-03]과 통합
		[2즐06-03]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유지 수정 삭제	6 3 1	- [2슬06-03]과 통합
	가을 맞이	[2바06-0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유지 수정 삭제	8 2 0	- [2바05-01]과 중복되는 느낌이 강해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생활에 집중하도록 수정
		[2슬06-01] 가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유지 수정 삭제	10 0 0	-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점, 가을철 모습과 생활을 탐구할 수 있는 성취기준이라는 점에서 적합함
		[2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유지 수정 삭제	7 3 0	- [2슬06-01]과 통합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유지 수정 삭제	7 3 0	- [2즐06-04]와 통합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유지 수정 삭제	6 1 3	- [2즐06-01]과 통합해서 표현중심의 성취기준으로 제시
		[2바07-01] 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	유지 수정 삭제	7 2 1	- '통일 의지를 다진다'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강요적임으로 다른 표현으로 대체
나라	우리나라	[2슬07-01]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유지 수정 삭제	9 1 0	- [2슬07-02]와 통합
		[2슬07-02]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유지 수정 삭제	6 4 0	- '비교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의 격차를 의미할 수 있어 '다름'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2즐07-01] 우리나라의 상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유지 수정 삭제	9 1 0	- [2슬07-01]과 연계 - [2즐07-02]와 통합
		[2즐07-02] 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유지 수정 삭제	6 4 0	- '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찾기가 어려워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함

IV.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주요 의견		
	다른 나라	[2바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유지	10	- '기른다'라는 표현이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가 어려워 '실천한다'로 대체
			수정	0	
			삭제	0	
		[2슬07-03] 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유지	6	- [2슬07-04]와 통합 - 조사한다, 발표한다 등의 진술을 '탐구한다'로 통합하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수정	4	
			삭제	0	
		[2슬07-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조사한다.	유지	5	- '노래, 춤, 놀이'를 문화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수정	3	
			삭제	2	
		[2즐07-03] 다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작품을 전시·공연하고 감상한다.	유지	5	- 전시, 공연, 감상을 표현으로 통합
			수정	4	
			삭제	1	
		[2즐07-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즐기고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유지	6	- [2즐07-03]와 통합
			수정	3	
			삭제	1	
겨울	겨울 맞이	[2바08-01]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유지	9	- [2바08-02]와 통합
			수정	1	
			삭제	0	
		[2슬08-01] 겨울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유지	9	- 타 주제 성취기준과 문구와 진술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교사의 편의성 확보
			수정	1	
			삭제	0	
		[2슬08-02] 겨울철에 쓰이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	유지	7	- [2슬08-01]와 통합
			수정	2	
			삭제	1	
		[2즐08-01]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유지	9	- [2즐08-02]와 통합
			수정	1	
			삭제	0	
		[2즐08-02] 여러 가지 놀이 도구를 만들어 겨울 놀이를 한다.	유지	6	-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부분은 지엽적 임으로 다른 문구로 대체
			수정	3	
			삭제	1	
	겨울 나기	[2바08-02] 생명을 존중하며 동식물을 보호한다.	유지	9	- [2바08-01]과 통합해서 제시
			수정	1	
			삭제	0	
		[2바08-03] 겨울방학 생활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유지	4	- [2슬08-04]와 통합
			수정	3	
			삭제	3	
		[2슬08-03]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 좋아하는 동물의 특성을 탐구한다.	유지	8	- '좋아하는 동물'은 지나치게 한정적임으로 '다양한 동식물'로 대체
			수정	2	
			삭제	0	
		[2슬08-04] 겨울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등을 조사한다.	유지	8	- 진술방식을 '탐구한다'로 통일
			수정	2	
			삭제	0	
		[2즐08-03] 동물 흉내 내기 놀이를 한다.	유지	4	- '동물 흉내내기'가 지나치게 세부적임으로 동물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수정	6	
			삭제	0	
		[2즐08-04]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유지	10	- [2바08-03]과 통합해서 제시
			수정	0	
			삭제	0	

## ■ 대주제1. ‘학교’

(1-학교-학교와친구) [2바01-01]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2바01-01] 성취기준은 ‘유지’ 5명, ‘수정’ 2명, ‘삭제’ 3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와 차별화되는 성취기준의 개발 필요성(D교사)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해당 성취기준의 범위가 좁게 느껴져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F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은 ‘수정’의 의견과 비슷하게 위 성취기준이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중복되는 점(A,D,E교사)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차별화되는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A교사)도 있었다.

(2-학교-학교와친구) [2슬01-01]학교 안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 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2슬01-01] 성취기준은 ‘유지’ 2명, ‘수정’ 4명, ‘삭제’ 4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차별화되는 성취기준 개발이나 내용의 수정의 필요성(D, J교사)과 이 성취기준 역시 해당 성취기준의 범위가 좁게 느껴져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F교사)이 있었다. 또한, 학교 안과 밖, 교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양한 학교 공간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을 둘러보며 위치와 모습을 알아본다’라고 수정을 요청한 의견(H교사)도 있었다.

‘삭제’ 의견은 ‘수정’의 의견과 비슷하게 위 성취기준이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중복되는 점(A,C,E,I교사)이 있었고 첫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을 위해 ‘관계’ 맺기와 관련한 성취기준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우리 학급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알아본다(슬기로운 생활)’와 ‘학급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급 규칙을 만들고 실천한다(바른 생활)’와 같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3-학교-학교와친구) [2슬01-02]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2슬01-02] 성취기준은 ‘유지’ 4명, ‘수정’ 5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앞서 제시된 성취기준의 의견과 같이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겹쳐 차별화된 성취기준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D교사)이 있었다. 또한, 1학년 내용에서 친구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고마움, 사과, 분노 등 감정 표현하기)과 친구와 더불어 교사에게 지켜야 할 예의 등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I교사)이 있었다. 성취기준 진술에 관한 의견으로 E교사는 ‘알아본다’를 ‘역량’과 연계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로 수행한다’, ‘표현한다’ 등의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치(배려)’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덧붙였다.

‘삭제’ 의견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중복되는 점(A)이 있었다.

**(4-학교-학교와친구) [2즐01-01]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1-01]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2명, ‘삭제’ 2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고려해서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규칙을 변형하면서 창의적으로 놀이한다’라는 수정 의견(E교사)이 있었고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라는 수정 의견(I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중복되어 삭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의견(A,C교사)이 있었다.

**(5-학교-학교와친구) [2즐01-02]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꾸민다.**

[2즐01-02]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1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심미적 감성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고려해서 ‘학급 친구들

과 협동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수정 의견(E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중복되어 삭제하기가 적절하다는 의견(C)이 있었다.

#### **(6-학교-나) [2바01-02]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2바01-02]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3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 자기 정체감과 자존감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학교 생활을 한다’라는 수정 의견(E교사)과 ‘몸’에 관해서 이미 학생들은 몸의 여러 부위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몸의 각 부분’과 마음(나의 다양한 감정 상태, 올바른 감정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의견(I교사)이 있었다. 가령 I교사는 눈과 관련해서는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지 않는다’와 같이 몸과 마음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고 건강하게 유지한다’라는 성취기준 수정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 **(7-학교-나) [2슬01-03]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는다.**

[2슬01-03]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2명, ‘삭제’ 2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해당 성취기준이 나의 몸을 살핀 후 관련짓기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주제인 ‘나’와 연결되기가 어려움을 언급하며 나의 일상에서 내 몸이 고마운 점, 내 마음이 고마운 점, 내 몸과 내 마음을 잘 쓰는 방법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E교사)이 있었고, F교사는 ‘나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 관찰한다’라는 성취기준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삭제’ 의견으로는 학생 수준에 지나치게 쉽다는 의견(C교사)과 해당 성취기준 대신 ‘몸의 각 부분’과 마음(나의 다양한 감정 상태, 올바른 감정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는 성취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한 의견(I교사)도 있었다.

**(8-학교-나) [2슬01-04]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재능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

[2슬01-04] 성취기준은 ‘유지’ 2명, ‘수정’ 8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으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찾고 미래의 모습까지 예상하는 것은 학생에게 어려운 내용이라는 의견(A,B,C,D,E,F,I,J교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진술 방식을 ‘예상한다’에서 ‘생각한다’, ‘찾아본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C,J교사, ‘과거의 모습’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되고 싶은 것을 예상한다’로 수정 의견(B교사),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의 모습을 예상해 본다’라는 수정 의견(D교사), ‘나의 재미와 흥미를 알고(찾고) 나의 미래 모습을 예상한다’라는 수정 의견(F,I교사)이 있었다. E교사는 미래의 모습을 예상하는 것은 저학년 학생에게 어려운 일임으로 ‘나’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나의 재능, 흥미 등을 탐색해보고 나와 비슷한 재능과 흥미를 가진 주변 사람들을 찾아본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9-학교-나) [2즐01-03]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1-03]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4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감정 또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나의 몸과 마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놀이를 한다(I,J교사)는 의견과 놀이보다는 기초 기본이 되는 건강 체조나 준비 운동, 스트레칭 등의 신체 표현의 필요성(E교사)의 의견, ‘표현한다’라는 진술 방식이 ‘놀이한다’를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나의 몸과 꿈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수정 하는 의견(B교사)이 있었다.

**(10-학교-나) [2즐01-04]나의 흥미와 재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

[2즐01-04]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3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공연과 전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공연·전시하는 것이 학생 활동에 제한적 일 수 있어 ‘나의 흥미와 재능을 표현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C,F교사), ‘나의 흥미와 재능을 다양한 방면으로 탐색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2즐01-03]과 통합할 수 있다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 ■ 대주제2. ‘봄’

(11-봄-봄동산) [2바02-02]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2바02-02]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4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통합교과의 계절별 주제와 동·식물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 짓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계절 주제 선정에 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C교사)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성취기준에 ‘봄’을 빼고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라고 성취기준 수정 제시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동·식물을 실제 보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없어 ‘소중히 여긴다’로만 제시하자는 의견(G교사)과 ‘보살핀다’라는 서술어의 의미가 동물과 식물을 키우는 활동을 떠올릴 수 있어 실제 학교 환경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워 ‘보살핀다’ 대신에 ‘다양한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제시하자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12-봄-봄동산) [2슬02-03]봄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찾아본다.

[2슬02-03]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2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바02-02]의 의견과 같이 각 계절과 동식물의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계절을 삭제하자는 의견(C교사)과 [2슬02-04]와 통합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모습을 관찰한다’라고 제시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13-봄-봄동산) [2슬02-04]봄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 기르면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한다.**

[2슬02-04] 성취기준은 ‘유지’ 4명, ‘수정’ 5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바02-02]의 의견과 같이 각 계절과 동식물의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계절을 삭제하자는 의견(C교사)과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한다(F교사)’, ‘봄에 식물을 길러 관찰한다(G교사)’, ‘봄에 자라는 식물을 살펴본다(H교사)’와 같이 교사가 다양한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의 성취기준 내용 제시 의견이 있었다. 또한, E교사는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라는 좁은 의미의 서술 보다 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본다는 넓은 의미의 서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2슬02-03]과 통합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14-봄-봄동산) [2즐02-03]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2-03]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봄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학생 개인별 수준에도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로운 성취기준이라는 의견(B교사), 슬기로운 생활에서 관찰하고 조사한 동식물을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 활용하기에 적합했다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바02-02]의 의견과 같이 각 계절과 동식물의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계절을 삭제하자는 의견(C교사)이 있었다.

**(15-봄-봄동산) [2즐02-04]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봄나들이를 즐긴다.**

[2즐02-04]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4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대체로 놀이와 게임의 의미 구분에 관한 내용으로 놀이와 게임의 차이가 모호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활용해도 적합하다는 의견(C,D,J)이



있었고 H교사는 1학년 학생에게는 게임보다 놀이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게임’을 삭제하고 ‘놀이’만 제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J교사는 ‘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라고 놀이, 게임, 봄나들이 등을 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놀이에 통합시켜 제시하거나 [2즐02-03]에 통합되어 제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16-봄-봄맞이) [2바02-01]봄철 날씨 변화를 알고 건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2바02-01]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2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바른 생활 교과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의견(B교사),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며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즐거운 생활에서 하고 해당 바른 생활 성취기준에서는 습관을 건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는 점에서 연계가 있는 성취기준이라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해당 성취기준이 [2바01-02] 성취기준에서 ‘건강’과 관련한 내용 중복이 있다는 의견(C교사), ‘봄철 날씨 변화를 알고’를 삭제하여 ‘봄철 건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라고 성취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자는 의견(F교사)이 있었다.

**(17-봄-봄맞이) [2슬02-01]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2-01]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2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슬02-02]와 통합하여 ‘봄 날씨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변의 생활 모습과 도구를 관련짓는다’라고 성취기준을 제시하자는 의견(J교사)과 날씨와 변화되는 자연환경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무리 짓거나 관계망을 그릴 수 있는 등 봄으로 변화되는 자연환경의 모습을 충분히 탐색해볼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 ‘봄 날씨의 특징으로 변화되는 자연환경의 모습을 관련짓는다’라고 성취기준을 제시하자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18-봄-봄맞이) [2슬02-02]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종류와 쓰임에 따라 구분한다.**

[2슬02-02] 성취기준은 ‘유지’ 4명, ‘수정’ 5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여름과 겨울에 필요한 생활 도구는 분명하게 계절성을 띠지만 봄과 가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는 다른 계절에도 사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봄철에만 사용되는 생활 도구와 관련된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성취기준 내용 수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의견(D,E교사), 분류 기준 찾기가 학생들이 어려워하여 ‘구분한다’라는 서술에서 ‘조사한다’라고 대체하자는 의견(C,H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수정’ 의견과 같이 봄철에만 사용되는 생활 도구가 모호하기 때문에 [2슬02-01]과 통합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19-봄-봄맞이) [2즐02-01]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2-01] 성취기준은 ‘유지’ 10명, ‘수정’ 0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봄 날씨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에 적합하다는 의견과 다른 성취기준과의 연계해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0-봄-봄맞이) [2즐02-02]봄을 맞이하여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

[2즐02-02] 성취기준은 ‘유지’ 4명, ‘수정’ 5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집’이라는 한정적 공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즉, ‘집’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을 제시하기보다 ‘주변’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봄을 맞이하여 주변을 아름답게 꾸민다(C교사)’, ‘봄을 맞이하여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아름답게 꾸민다(I교사)’, ‘봄을 맞이하여 자신의 좁은 공간을 아름답게 꾸민다(H교사)’, ‘봄을 맞이하여 봄 분위기로 꾸민다(J교사)’라는 성취기준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J교사는 [2즐02-01]에 통합되어 진술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삭제’ 의견으로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성취기준으로 ‘봄과 관련된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와 같이 위 성취기준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E교사).

### ■ 대주제3. ‘가족’

(21-가족-가족과친척) [2바03-01]가족 및 친척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실천한다.

[2바03-01]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2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실천한다’라는 서술은 교사가 학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에 ‘실천 의지를 다진다’로 수정하자는 의견(C교사)과 ‘예절’이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기 때문에 더욱 넓은 ‘상호 관계와 태도’로 수정하자는 의견(G교사)이 있었다.

(22-가족-가족과친척) [2슬03-01]우리 가족의 특징을 조사하여 소개한다.

[2슬03-01]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3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특징’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며 학생이 가족을 조사하면서 한정된 조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따라서 ‘특징’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B,C,E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 실제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 이를 조사하거나 소개하고자 할 때, 수업 진행에 있어 까다로운 면이 있어 삭제하자는 의견(G교사)이 있었다.

(23-가족-가족과친척) [2슬03-02]나와 가족, 친척의 관계를 알고 친척과 함께 하는 행사나 활동을 조사한다.

[2슬03-02] 성취기준은 ‘유지’ 3명, ‘수정’ 6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학생이 친척과의 관계를 알고 호칭을 아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B,C,D,H,I교사) ‘나와 가족 친척을 알아보고 친척과 함께 하는 행사나 활동을 조사한다’와 같이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성취기준 수정 의견(D교사) ‘친척과 함께 하는 행사나 활동을 조사하여 소개한다’로 ‘관계 알기’의 내용을 삭제하여 제시하자는 의견(H교사), 성취기준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I교사)이 있었다. E교사는 ‘행사’라는 단어가 학생의 삶에 와닿지 않는 표현으로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이 내용과 관련하여 즐거운 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한다는 성취기준 연계성을 언급했다.

‘삭제’ 의견으로는 친척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주로 호칭과 연계되고, 통합 교과서에서도 관련되어 제시되는데 오늘날 친척 간 호칭 활용, 친척과 가족 행사의 의미 변화 등이 있어 실제 학생들의 삶과 맞지 않아 삭제하자는 의견(G교사)이 있었다.

**(24-가족-가족과친척) [2줄03-01]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2줄03-01] 성취기준은 ‘유지’ 4명, ‘수정’ 6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 ‘작품’이라는 문구가 내용 선정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것과 역할과 고마움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삭제하자는 의견(C,D,F,I,J)으로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D,F교사)’라고 수정하자는 의견, ‘가족 구성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한다(I교사)’의 의견이 있었다. E교사는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알아보고 역할 놀이 등으로 표현한다’,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작품에 담아 표현한다’라고 역할과 고마운 마음을 분리시켜 제시하자는 의견이었다. J교사는 성취기준의 수가 적을수록 교사가 다양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을 만들 수 있기에 [2줄03-02]와 통합하여 성취기준의 수를 줄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25-가족-가족과친척) [2즐03-02]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한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2즐03-02]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2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라는 의미가 주로 미술 활동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 ‘경험해본다’ 등의 다른 표현을 활용해 교사가 해석할 수 있는 성취기준의 의미 확장을 고려하자는 의견(E교사)과 다른 성취기준과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타 성취기준을 통합해 성취기준 수를 줄였으면 하는 의견(I교사)이 있었다.

**(26-가족-다양한가족) [2바03-02]가족의 형태와 문화가 다양함을 알고 존중한다.**

[2바03-02]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가족의 형태의 다양함을 지칭하는 것의 취지는 이해하나 가족의 문화를 가르치기에는 내용 분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가족 형태의 다양함을 알고 존중한다’라고 수정 제사하자는 의견(H교사)이 있었다.

**(27-가족-다양한가족) [2슬03-03]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살펴본다.**

[2슬03-03]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3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여러 형태’라는 표현이 또 다른 편견의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다양한 가족을 살펴본다’라고 제시하자는 의견(C교사), ‘나’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가족 형태를 다룰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문화를 살펴본다’라고 수정 제시하자는 의견(E교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살펴본다’라고 제시하자는 의견(I교사)이 있었다.

**(28-가족-다양한가족) [2슬03-04]가족의 형태에 따른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알아본다.**

[2슬03-04]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4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가족의 형태’와 ‘다양한 역할’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집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사한다(B교사)’, ‘우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조사한다(E교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알아본다(I교사)’라는 수정 의견이 있었고 ‘가족의 형태에 따른’을 삭제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29-가족-다양한가족) [2즐03-03]집 안팎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2즐03-03]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1명, ‘삭제’ 2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집 안팎의 모습’이 범위를 한정 짓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실제 수업에서 가정 형편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30-가족-다양한가족) [2즐03-04]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놀이를 한다.**

[2즐03-04]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3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역할에 대해 놀이한다’라는 표현이 ‘역할 놀이’로 연결되어 내용 선정의 범위가 좁다는 의견(B,C교사)이 있었다. 이에 따라 B교사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해본다’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 ■ 대주제4. '여름'

##### (31-여름-여름맞이) [2바04-01]여름철의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알고 습관화한다.

[2바04-01] 성취기준은 '유지' 10명, '수정' 0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학생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과 지속 가능한 발전, 지구 온난화 교육 등과 관련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성취기준임을 강조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

##### (32-여름-여름맞이) [2슬04-01]여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 짓는다.

[2슬04-01]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다른 성취기준과 연계해서 재구성하는 데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 '여름'이라는 계절이 봄과 가을과 달리 학생의 삶에 밀접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더운 여름 날씨로 인한 생활 모습과 사용하는 생활 도구가 연계되기 때문에 [2슬04-02]와 통합하여 '여름 날씨의 특징을 살펴보고 생활 모습과 도구를 관련짓는다'라고 제시한 의견(J교사)이 있었다.

##### (33-여름-여름맞이) [2슬04-02]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

[2슬04-02]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3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성취기준이 이미 학생 대부분이 알고 있거나 학생에게 매우 쉽다는 의견(A,C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타 성취기준과 통합하여 제시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34-여름-여름맞이) [2즐04-01]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4-01]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이 의미가 모호하여 이 부분을 활용해 수업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여름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수정 제시하자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타 성취기준과 통합하여 제시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35-여름-여름맞이) [2즐04-02]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2즐04-02]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0명, ‘삭제’ 3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실제 수업에서 이 성취기준을 사용할 때,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가 ‘부채’, ‘우산’ 정도의 생활용품을 만드는 정도로 수업이 전개되어 [2즐04-01]과 통합하여 ‘여름 날씨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E교사), [2즐04-01]과 통합하되,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문구가 ‘창의적으로 표현’에 포함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서 성취기준을 수정 제시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36-여름-여름생활) [2바04-02]여름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2바04-02]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2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실제 여름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교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 ‘실천하는 의지를 기른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C교사)이 있었다.

**(37-여름-여름생활) [2슬04-03]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2슬04-03]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여름’이라는 계절과 ‘동식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실제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의 기준이 모호하여 ‘계절’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C교사)이 있었다.

**(38-여름-여름생활) [2슬04-04]여름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계획한다.**

[2슬04-03]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1명, ‘삭제’ 2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여름방학’을 제시하게 된다면 계획하는 부분이 한정될 수 있어 ‘여름방학’으로 한정 짓지 말고 ‘계획’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자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바른 생활 성취기준[2바04-02]과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되어 삭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I,J교사)이 있었다.

**(39-여름-여름생활) [2즐04-03]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2즐04-03]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즐04-04]와 통합하여 ‘여름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40-여름-여름생활) [2즐04-04]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2즐04-04]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1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여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놀이’로 한정한다는 의견으로 ‘여름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와 같이 신체 표현 활동에 집중해서 제시하는 등 초점을 맞추어서 성취기준을 제시하자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수정’ 의견과 같은 이유로 [2즐04-03]과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J교사)을 제시했다.

#### ■ 주제5. ‘마을’

**(41-마을-우리이웃) [2바05-01]공공장소의 올바른 이용과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2바05-01] 성취기준은 ‘유지’ 5명, ‘수정’ 5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공공장소의 이용과 시설물의 사용 습관’도 중요하지만 바른 생활 성취기준에서 이웃 간의 지켜야 할 예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 내용(B,E,I,J 교사)이었다. 이에 따라,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일을 알고 실천한다(B 교사)’, ‘이웃과 쓰는 장소와 시설물을 예의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E교사)’,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알고 실천한다(I교사),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은 [2슬05-02]로 이동하고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주 내용으로 삼아 ‘공공장소의 올바른 이용과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알고 실천한다’라는 의견(J교사)을 제시했다. C교사는 [2바06-01]과 표면적으로 성취기준을 읽었을 때 내용이 겹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2-마을-우리이웃) [2슬05-01]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2슬05-01]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3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학생에게 ‘이웃’이라는 의미가 과거 넓은 의미의 이웃 의미와 달리 가까운 친한 친구 정도로 이해되는 좁은 의미로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A,D교사)이 있었다. E교사는 코로나19 시기로 이웃의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데 어려운 면이 있으며 ‘더불어 생활한다’라는 표현이 바른 생활의 내용과 중복될 수 있어 ‘여러 이웃의 모습을 찾아 조사하고 발표한다’ 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웃과 생활하는 모습을 찾아 조사하고 그 특징을 찾아본다’

와 같이 이웃의 모습에 초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3-마을-우리아웃) [2슬05-02]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시설물의 종류와 쓰임을 탐색한다.**

[2슬05-02] 성취기준은 ‘유지’ 10명, ‘수정’ 0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시설물을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아 보고 실제 해보며 공동체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적합한 성취기준이라는 의견(B교사)이 있었다. 또한, 바른 생활과 연계하기 위해 쓰임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내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E교사)도 제시했다.

**(44-마을-우리아웃) [2즐05-01]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5-01] 성취기준은 ‘유지’ 2명, ‘수정’ 7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 선정의 기준이 모호하여 표현과 놀이를 분리하자는 것이 주 내용(A,B,C,E,H,I,J)이다. 이에 따라 ‘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수정 의견(B,I,H교사)이 있었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보다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이웃과 함께 하는 놀이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이웃에 관한 경계, 아동범죄 등의 내용도 함께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G교사)을 제시했다.

**(45-마을-우리아웃) [2즐05-02]주변의 장소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놀이한다.**

[2즐05-02] 성취기준은 ‘유지’ 3명, ‘수정’ 6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주변의 장소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문구와 관련해서 실제 학

교 주변에 이용할 시설물이 많지 않다는 점(D교사)과 놀이한다는 것은 주변의 장소와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이기에 ‘놀이한다’로 통합해서 제시하자는 점(B,E,H,I,J)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라고 [2슬05-01]과 통합하여 제시하자는 의견(B,H,J)과 ‘이웃과 함께 하거나 주변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놀이를 한다’라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추가해서 제시하자는 의견(I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동네의 장소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놀이하기가 교육현장에서 매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는 의견(C교사)이 있었다.

**(46-마을-우리동네) [2바05-02]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안다.**

[2바05-02] 성취기준은 ‘유지’ 4명, ‘수정’ 6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과 ‘일의 소중함’이 연결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하자는 점(B,C,E,H,I,J교사)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 하시는 분께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을 갖는다(B교사)’, ‘우리 동네의 소중함을 안다’ 또는 ‘동네를 위해 일하시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안다’(H교사), ‘동네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다(I교사)’라는 의견이 있었다. J교사는 ‘일의 소중함’은 [2슬05-04]에서 다룰 수 있음을 언급했다. E교사는 근면과 성실의 태도에 초점을 두어 ‘동네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 일의 즐거움을 느낀다’등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47-마을-우리동네) [2슬05-03]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다.**

[2슬05-03]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실제 학생들이 동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위치’ 개념이 부족하므로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점(E교사)이 있었다. 이에 따라, E교사는 ‘학교

를 중심으로 동네 모습을 관찰하고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 설명한다'로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48-마을-우리동네) [2슬05-04]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2슬05-04] 성취기준은 '유지' 10명, '수정' 0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조사하며 다양한 기준으로 무리 짓기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성취기준이라는 점이 주 내용이다.

**(49-마을-우리동네) [2즐05-03]동네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5-03] 성취기준은 '유지' 10명, '수정' 0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슬기로운 생활 성취기준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 협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적절한 성취기준이라는 점이 주 내용이다.

**(50-마을-우리동네) [2즐05-04]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2즐05-04]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직업과 관련한 놀이라고 표현되어 직업 놀이를 주로 떠올리게 되었고 실제 직업 놀이를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되었기에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해 마음을 담아 표현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1교사)이 있었다.

## ■ 대주제6. ‘가을’

**(51-가을-가을모습) [2바06-02] 추수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른다.**

[2바06-02]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2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추수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라는 표현이 오늘날 학생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느낌이라는 의견(D교사), 감사할 대상을 사람에 한정하는 것 대신에 ‘가을의 풍요로움에 영향을 준 요소들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른다’와 같이 포괄적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하자는 의견(I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해당 성취기준에 관해 학생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오늘날 학생의 삶과 연결되기가 어려운 점을 말하며 삭제 의견(G교사)을 제시했다.

**(52-가을-가을모습) [2슬06-02]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가을의 특징을 파악한다.**

[2슬06-02]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정보처리 역량을 기르는 데 적합하며 가을의 모습을 파악하는 과정이 학생에게는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주 내용이다.

**(53-가을-가을모습) [2슬06-03]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 풍속과 비교한다.**

[2슬06-03]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2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추석’과 ‘설’을 비교하는 등 다른 세시 풍속과 비교하여 추석을 알아보는 것의 의미가 과거와 달리 요즘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석’보다 ‘가을’에 집중하자는 의견(A,E교사)이 있었다.

**(54-가을-가을모습) [2즐06-02]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2즐06-02]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3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놀이한다’로 한정 짓기보다 ‘표현한다’라는 진술을 통해 놀이한다는 포괄할 수 있는 성취기준으로 ‘가을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B,J교사)이 있었다. D교사는 해당 성취기준을 [2즐06-03]과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55-가을-가을모습) [2즐06-03]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2즐06-03]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3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해당 성취기준을 [2즐06-03]과 통합하자는 의견(D교사)이 있었고, 민속놀이는 가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가을 계절과 연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며 D교사와 마찬가지로 [2즐06-03]과 통합하자는 의견(A,E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2즐06-02]와 통합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56-가을-가을맞이) [2바06-01]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2바06-01]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2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이 성취기준이 [2바05-01]과 내용이 겹친다는 의견(C,E교사)이 있었고 덧붙여서 E교사는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 공간에서 어떻게 타인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57-가을-가을맞이) [2슬06-01]가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6-01] 성취기준은 ‘유지’ 10명, ‘수정’ 0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가을철에 나타나는 모습과 생활에 관해 관심을 가져보는 데 도움이 되는 성취기준이라는 점, 가을을 특징을 찾아보며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르는 데 적합하다는 점이 주 내용이었다.

**(58-가을-가을맞이) [2슬06-04]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2슬06-04]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3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슬06-01]과 중첩될 수 있어 ‘살펴보기’와 ‘무리짓기’를 포괄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용어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탐구하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B교사는 위 내용은 ‘무리짓기’ 보다 ‘조사하기’가 적합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을 조사한다’라고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59-가을-가을맞이) [2즐06-01]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6-01]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3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즐06-04]와 통합해서 ‘표현’ 중심의 성취기준으로 수정하자는 의견(D,E,J교사)이 있었다.

**(60-가을-가을맞이) [2즐06-04]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6-04]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1명, ‘삭제’ 3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즐06-01]과 통합해서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D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2즐06-01]과 통합해서 제시하자는 의견(C,F,J교사)이 있었다.



## ■ 대주제7. '나라'

(61-나라-우리나라) [2바07-01]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

[2바07-01]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2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통일'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C교사), '의지를 다진다'라는 진술이 강요의 느낌을 주어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로 진술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남북관계에 관한 일방적인 통일 의지 교육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G교사)이 있었다.

(62-나라-우리나라) [2슬07-01]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2슬07-01]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자는 의견(F교사)이 있었다.

(63-나라-우리나라) [2슬07-02]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2슬07-02]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4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학생이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D교사), 공통점과 차이점이 표현이 모호함으로 '남북한의 같은 점(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본다'라고 수정 제시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또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아는 것이 필요하므로 '남북한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E교사)과 '남북한'이라는 표현을 '남한과 북한'으로 표기하는 것이 표기방법에 있어 적절한가는 의견(H교사)이 있었다.

**(64-나라-우리나라) [2즐07-01]우리나라의 상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2즐07-01]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슬기로운 생활에서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는 [2슬07-01]과 연계하여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상징과 문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주제 연결성과 교사의 성취기준 사용의 편리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65-나라-우리나라) [2즐07-02]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7-02]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4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경험할 기회가 적고, 북한에서 하는 놀이라고 구분하기 모호한 점을 들어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자는 의견(C,D,E,G교사)이 있었다.

**(66-나라-다른나라) [2바07-02]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2바07-02] 성취기준은 ‘유지’ 10명, ‘수정’ 0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감과 존중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성취기준은 적합하다는 점, 해당 영역과 관련해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주 내용이었다.

**(67-나라-다른나라) [2슬07-03]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2슬07-03]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4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슬07-04]와 통합하여 ‘내가 알고 싶은 나라의 여러 문화를 조사하여 발표한다’라고 제시한 의견(E교사), ‘내가 알고 싶은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조사하여 발표한다’라고 제시한 의견(I교사)이 있었다. F교사는 ‘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조사한다’라고 포괄적인 형태의 성취기준을 제시했다.

**(68-나라-다른나라) [2슬07-04]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조사한다.**

[2슬07-04] 성취기준은 ‘유지’ 5명, ‘수정’ 3명, ‘삭제’ 2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명시하기보다 ‘문화’로 포괄적으로 제시하자는 의견(C,D,F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2슬07-03]과 내용이 중첩되어 통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69-나라-다른나라) [2즐07-03]다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작품을 전시·공연하고 감상한다.**

[2즐07-03] 성취기준은 ‘유지’ 5명, ‘수정’ 4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전시 공연해야 한다는 꼭 해야 하는 의무가 담긴 것과 같은 표현보다는 ‘표현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진술하자는 의견(C,D,F,J교사)이 있었고 [2즐07-04]를 통합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다양하게 표현한다’라는 의견(J교사)도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2즐07-04]와 내용이 중첩되어 통합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70-나라-다른나라) [2즐07-04]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즐기고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7-04]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3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문화’로 표현하자는 의견(D,H,E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2즐07-03]와 내용이 중첩되어 통합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 ■ 대주제8. ‘겨울’

(71-겨울-겨울맞이) [2바08-01]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2바08-01]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이라는 모습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학급에서 서로가 다름을 알고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범위의 축소하자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72-겨울-겨울맞이) [2슬08-01]겨울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8-01]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추운 날씨로 인한 생활 모습과 사용하는 생활 도구가 연결되기 때문에 [2슬08-02]와 통합하여 ‘겨울 날씨의 특징을 살펴보고 생활 모습과 도구를 관련짓는다’로 수정 제시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73-겨울-겨울맞이) [2슬08-02]겨울철에 쓰이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

[2슬08-01] 성취기준은 ‘유지’ 7명, ‘수정’ 2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계절별 생활 도구에 관해 학생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 성취기준이 매우 쉽다는 의견(A,C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2슬08-01]과 통합해서 제시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74-겨울-겨울맞이) [2즐08-01]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8-01]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즐08-02]와 통합하여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75-겨울-겨울맞이) [2즐08-02]여러 가지 놀이 도구를 만들어 겨울 놀이를 한다.**

[2즐08-02] 성취기준은 ‘유지’ 6명, ‘수정’ 3명, ‘삭제’ 1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만든다’와 ‘놀이한다’가 ‘만든 것으로 놀이한다’로 연결되어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D,E,H)하며 ‘겨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한다(E교사)’,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겨울 놀이를 한다(H교사)’라고 수정 의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2즐08-01]과 통합하여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J교사)이 있었다.

**(76-겨울-겨울나기) [2바08-02]생명을 존중하며 동식물을 보호한다.**

[2바08-02] 성취기준은 ‘유지’ 9명, ‘수정’ 1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동식물을 보호하는 내용이 봄 영역에서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2바04-02]와 같이 ‘겨울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E교사)이 있었다.

**(77-겨울-겨울나기) [2바08-03]겨울방학 생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2바08-03] 성취기준은 ‘유지’ 4명, ‘수정’ 3명, ‘삭제’ 3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바04-02]와 같은 문구로 ‘겨울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라고 제시하자는 의견(F교사), 학생들이 일 년

을 성찰해볼 수 있도록 ‘일 년을 되돌아보고, 겨울방학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라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I교사)이 있었다.

‘삭제’ 의견으로는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지엽적이라는 점(H교사), [2슬08-04]와 내용이 중복되어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D,J교사)이 있었다.

**(78-겨울-겨울나기) [2슬08-03]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 좋아하는 동물의 특성을 탐구한다.**

[2슬08-03]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2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문구가 교육 내용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어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 특성을 탐구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의견(J교사),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움을 줄 방법을 탐구한다(I교사)’로 수정하자는 의견(I교사)이 있었다.

**(79-겨울-겨울나기) [2슬08-04] 겨울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등을 조사한다.**

[2슬08-04] 성취기준은 ‘유지’ 8명, ‘수정’ 2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2바08-03]과 내용이 중복되어 통합할 수 있다는 의견(D교사), 통합과 관련해서 ‘겨울’을 ‘겨울방학’으로 제시하여 ‘겨울 방학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등을 조사한다’라고 제시하자는 의견(B교사)이 있었다.

**(80-겨울-겨울나기) [2즐08-03] 동물 흉내 내기 놀이를 한다.**

[2즐08-03] 성취기준은 ‘유지’ 4명, ‘수정’ 6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수정’ 의견으로는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자세한 점을 언급하며 겨울 모습과 관련된 놀이를 한다(J교사), 겨울의 풍경과 겨울철 동식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I교사), 동물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F교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타 성취기준과의 진술의 일관성을 언급하며 ‘겨울에 볼 수 있는 동물을 다양하게 표현

한다'(H교사), 좋아하는 동물의 모습이나 내는 소리를 몸으로 표현한다(E교사)와 같은 예시를 제시했다.

**(81-겨울-겨울나기) [2줄08-04]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2줄08-04] 성취기준은 '유지' 10명, '수정' 0명, '삭제' 0명의 평가 의견이 있었다.

'유지' 의견으로는 자기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성취기준이라는 점, 해당 성취기준을 다양한 활동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 내용이었다.

## 3) 성취기준 갱신(초본) 완성

이 workshop 과정에서 20156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이 갱신한 초본을 완성했다.

〈표 IV-5〉 성취기준 갱신(초본)

대주제	소주제	2015 개정성취기준	성취기준 갱신(초본)
학교	학교와 친구	[2바01-01]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2바01-01] 친구와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실천한다.
		[2슬01-01] 학교 안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2슬01-01] 다양한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탐구한다.
		[2슬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2즐01-01]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1-01] 나의 학교생활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1-02]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꾸민다.	
	나	[2바01-0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2바01-02] 나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태도를 실천한다.
		[2슬01-03]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는다.	
		[2슬01-04]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재능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	[2슬01-02] 내 몸과 마음을 잘 쓰는 방법을 탐구한다.
		[2즐01-03] 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1-04] 나의 흥미와 재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	[2즐01-02] 나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봄	봄동산	[2바02-02]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2바02-01] 생명을 존중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2슬02-03]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찾아본다.	[2슬02-01] 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탐구한다.
		[2슬02-04] 봄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 기르면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한다.	
		[2즐02-03]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2-01]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2-04]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봄나들이를 즐긴다.	
	봄맞이	[2바02-01] 봄철 날씨 변화를 알고 건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2바02-02] 날씨에 따른 건강 수칙을 실천한다.
		[2슬02-01] 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2-02] 봄의 특징과 주변의 모습을 관련지어 탐구한다.
		[2슬02-02] 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종류와 쓰임에 따라 구분한다.	
		[2즐02-01] 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2-02] 봄의 모습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2-02] 봄을 맞이하여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	



대주제	소주제	2015 개정성취기준	성취기준 갱신(초본)
가족	가족과 친척	[2바03-01] 가족 및 친척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실천한다.	[2바03-01] 가족 구성원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실천한다.
		[2슬03-01] 우리 가족의 특징을 조사하여 소개한다.	[2슬03-01] 우리 가족을 탐구한다.
		[2슬03-02] 나와 가족, 친척의 관계를 알고 친척과 함께 하는 행사나 활동을 조사한다.	
		[2즐03-01]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2즐03-01] 가족이나 친척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3-02]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한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가족	[2바03-02] 가족의 형태와 문화가 다양함을 알고 존중한다.	[2바03-02] 가족의 형태와 문화를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한다.
		[2슬03-03]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살펴본다.	[2슬03-02]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탐구한다.
		[2슬03-04] 가족의 형태에 따른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알아본다.	
		[2즐03-03] 집 안팎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2즐03-02]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3-04]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놀이를 한다.	
여름	여름 맞이	[2바04-01] 여름철의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알고 습관화한다.	[2바04-01]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2슬04-01] 여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4-01] 여름의 특징과 주변의 모습을 탐구한다.
		[2슬04-02]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	
		[2즐04-01] 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4-01] 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4-02]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여름 생활	[2바04-02] 여름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2바04-02]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생활을 실천한다.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2슬04-02] 여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탐구한다.
		[2슬04-04] 여름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계획한다.	
		[2즐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2즐04-02] 여름을 볼 수 있는 동, 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4-04]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마을	우리 이웃	[2바05-01] 공공장소의 올바른 이용과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2바05-01] 이웃을 서로 존중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2슬05-01]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2슬05-01] 이웃의 생활 모습을 탐구한다.
		[2슬05-02]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시설물의 종류와 쓰임을 탐색한다.	
		[2즐05-01] 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5-01] 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5-02] 주변의 장소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놀이한다.	

IV.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

대주제	소주제	2015 개정성취기준	성취기준 갱신(초본)
	우리 동네	[2바05-02]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안다.	[2바05-02] 동네를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실천한다.
		[2슬05-03] 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다.	[2슬05-02] 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탐구한다.
		[2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2즐05-03] 동네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5-02]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5-04]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가을	가을 모습	[2바06-02] 추수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른다.	[2바06-01] 가을의 풍요로움에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실천한다.
		[2슬06-02]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가을의 특징을 파악한다.	[2슬06-01] 가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탐구한다.
		[2슬06-03]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풍속과 비교한다.	
		[2즐06-02]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2즐06-01] 추석(명절)의 모습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6-03]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가을 맞이	[2바06-0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2바06-02]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생활을 실천한다.
		[2슬06-01] 가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6-02] 가을의 특징과 주변의 모습을 관련지어 탐구한다.
		[2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6-02]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나라	우리나라	[2바07-01] 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	[2바07-01]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한다.
		[2슬07-01]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2슬07-01] 우리나라를 탐구한다.
		[2슬07-02]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2즐07-01] 우리나라의 상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2즐07-01]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7-02] 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 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다른 나라	[2바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2바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실천한다.
		[2슬07-03] 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2슬07-02] 다른 나라를 탐구한다.
		[2슬07-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조사한다.	
		[2즐07-03] 다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작품을 전시·공연하고 감상한다.	[2즐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7-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즐기고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대주제	소주제	2015 개정성취기준	성취기준 갱신(초본)
겨울	겨울 맞이	[2바08-01]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2바08-01] 생명을 보호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2슬08-01] 겨울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8-01] 겨울의 특징과 주변의 모습을 관련지어 탐구한다.
		[2슬08-02] 겨울철에 쓰이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	
		[2즐08-01]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8-01]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8-02] 여러 가지 놀이 도구를 만들어 겨울 놀이를 한다.	
	겨울 나기	[2바08-02] 생명을 존중하며 동식물을 보호한다.	[2바08-02]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생활을 실천한다.
		[2바08-03] 겨울방학 생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2슬08-02] 다양한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탐구한다. (또는) 겨울을 나는 다양한 동식물의 모습을 탐구한다.
		[2슬08-03]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 좋아하는 동물의 특성을 탐구한다.	
		[2슬08-04] 겨울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등을 조사한다.	
		[2즐08-03] 동물 흉내 내기 놀이를 한다.	[2즐08-02] 동, 식물의 겨울나기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8-04]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실제로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갱신한 이 초본을 종합해 보면, 다음 3가지로 갱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첫째, 성취기준의 내용 중복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성취기준을 통합하였다.

대주제1 학교의 경우, 참여 교사들은 학기 초 대부분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실시한다고(또는 교육청 지침으로 해야 한다) 밝히며 관련 내용이 ‘학교’ 성취기준과 중복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참여 교사들은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차별화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 성취기준과 역량의 연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이를 성취기준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을 주었다. 가령, ‘창의적 사고 역량’을 [2즐01-01]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규칙을 변형하면서 창의적으로 놀이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 심미적 감성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고려하여 [2즐01-02]성취기준을 ‘학급 친구들과 협동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아름답게 꾸민다’로 수정하였다.

대주제2. ‘봄’의 경우, [2슬02-03]성취기준을 [2슬02-04]와 통합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모습을 관찰한다’라고 제시했고, 대주제3. ‘가족’의 경우, [2즐03-01]과 [2즐03-02] 성취기준을 ‘표현한다’로 중심으로 통합하였다.

대주제3. ‘가족’의 경우, [2슬03-01]성취기준에서 ‘우리 가족의 특징’과 관련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 이를 조사하거나 소개하고자 할 때 부담감을 느끼는 면이 있어 이 내용을 삭제하고, [2바03-02] 성취기준에서 ‘문화의 다양함’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재, 활동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 형태의 다양함을 알고 존중한다’라고 수정하였다.

대주제4. ‘여름’의 경우, [2슬04-01]과 [2슬04-02]와 통합하여 ‘여름 날씨의 특징을 살펴보고 생활 모습과 도구를 관련짓는다’ 등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 교사들은 통합할 수 있는 성취기준을 선정할 때 두 성취기준의 중복되는 부분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았다. 가령 [2슬04-02]를 갖고 [2슬04-01]을 다룰 수 있고, [2슬04-01]을 갖고 [2슬04-02]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 둘을 통합하여 수정하였다.

대주제5. ‘마을’의 경우, [2바05-01] 성취기준에서 공공장소의 이용과 시설물의 사용 습관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바른 생활의 목표를 고려할 때,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관련된 내용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일을 알고 실천한다’,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알고 실천한다’ 등의 내용을 통합하였다. [2슬05-01]에서는 ‘더불어 생활한다’라는 표현이 바른 생활의 내용과 중첩될 수 있어 ‘여러 이웃의 모습을 찾아 조사하고 발표한다’와 같이 ‘이웃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통합하였다.

대주제6. ‘가을’의 경우, [2즐06-01]과 [2즐06-04]와 통합하고, [2즐06-03]과 [2즐06-02]을 통합하였다. 또 [2바06-01]과 [2바05-01]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 [2슬06-01]과 [2슬06-04]의 내용이 중첩될 수 있어 이를 통합하였다.

대주제8. ‘겨울’의 경우, [2슬08-01]을 [2슬08-02]와 통합, [2바08-03]과 [2슬08-04]의 성취기준 통합했다.

#### **둘째, 성취기준 진술 방식 수정을 통해서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대주제1 학교의 경우, 참여 교사들은 특정 문구나 진술로 인해 교사의 교육 활동 범위가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문구나 진술 방식의 수정을 요청했는데, 가령 ‘학교 안과 밖’이라는 문구를 ‘학교와 학교 주변’으로,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라는 진술을 ‘표현한

다', '탐색한다' 등으로 수정했다. 참여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 좁은 범위의 문구나 진술 보다 포괄적인 문구나 진술을 선호하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문구나 진술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주제2. '봄'의 경우, [2줄02-02]성취기준에서 '집'이라는 문구를 '주변'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문장을 수정했다. 또 [2슬02-02]성취기준에서 '봄철에 사용하는 생활도구'가 제시되어 있는데 분명한 계절성이 있는 여름과 겨울은 생활 도구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지만, 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와 봄과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 주제 안에서 내용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고, 이를 반영하여 내용 유연성이 있도록 수정하였다.

대주제3. '가족'의 경우, [2줄03-04]성취기준에서 '역할에 대해 놀이한다'라는 문구가 주로 '역할 놀이'로 연결되어 내용 선정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수정하였다.

대주제4. '여름'의 경우, [2줄04-01]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에서 여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여름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모호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참여 교사들은 '여름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라고 수정하였다. 또 [2슬04-03] 성취기준에서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에서 '여름'과 '동식물'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실제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었다. '여름에만'이라고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볼 수 있는 것을 떠올리려고 하지는 않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제시된 통합교과 구조상 '여름에 집중적으로' 혹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름과 동식물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 내용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대주제5. '마을'의 경우, [2줄05-04]성취기준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라는 문구가 주로 '직업(역할) 놀이'로 연결되어 내용 선정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해 마음을 담아 표현한다'로 포괄적으로 수정하였다.

대주제6. '가을'의 경우, [2슬06-04]성취기준에서 '살펴보기'와 '무리짓기'는 '탐구하기'로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무리짓기'보다 '조사하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탐구하기'로 포괄해서 진술하였다.

대주제7. '나라'의 경우, [2슬07-02]에서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제시

된 부분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남북한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라고 제시되는 것이 성취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좀 더 융통성 있게 수정하였다. 또 [2슬07-01]의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를 ‘표현한다’로 [2슬07-03]의 ‘조사하여 발표한다’, ‘조사한다’로 [2슬07-04]의 ‘노래, 춤 놀이’를 ‘문화’로 [2슬07-03] ‘전시·공연하고 감상한다’, ‘표현한다’로 좀 더 포괄적으로 수정하였다.

대주제8. ‘겨울’의 경우, [2슬08-02]성취기준에서 ‘만들다’와 ‘놀이한다’가 ‘만든 것으로 놀이한다’로 연결되어 범위가 한정되는 점을 언급하며 ‘겨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한다’,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겨울 놀이를 한다’ 등이 문구 수정을 통해 내용 범위를 확대하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2슬08-03]성취기준에서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문구가 교육 내용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어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 특성을 탐구한다’라는 수정 의견과 [2슬08-03] 성취기준에 제시된 ‘동물 흉내 내기 놀이’ 문구가 지나치게 자세한 점을 언급하며 ‘겨울 모습과 관련된 놀이를 한다’, ‘겨울의 풍경과 겨울철 동식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로 수정하였다.

### 셋째, 성취기준의 학습 난이도를 개선하였다.

대주제1. 학교의 경우, 참여 교사들은 학생에게 지나치게 쉽거나 어려운 성취기준은 수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성취기준의 난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가령, [2슬01-03] 성취기준에서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알아보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지나치게 쉬울 수 있어 성취기준의 내용이나 진술 방식을 수정하였다.

대주제4. ‘여름’의 경우, [2슬04-02] 성취기준에서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과 관련해서 저학년 학생에게 지나치게 쉽다는 의견으로 난이도 조정을 하였다.

대주제8. ‘겨울’의 경우, [2슬08-01] 성취기준에서 겨울철에 쓰이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알아보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지나치게 쉬울 수 있어 성취기준의 내용이나 진술 방식을 수정해서 난이도를 조정했다.

### 3. 성취기준 갱신(초본)에 대한 심의

교사들이 갱신한 성취기준(초본)은 심의진의 심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가하였다.

〈표 IV-6〉 성취기준 갱신(초본)에 대한 심의 의견 종합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덕목	연구진 심의	추가 의견
학교	친구	[2바01-01] 우정을 나눈다. [2슬01-01] 친구를 탐구한다. [2즐01-01]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한다.	우정	친구 관계를 살펴본다.	
	나	[2바01-02] 나를 사랑한다. [2슬01-02] 나를 탐구한다. [2즐01-02] 나를 표현한다.	사랑	나를 살펴본다.	
봄	봄 맞이	[2바02-01] 생명을 존중한다. [2슬02-01] 봄 모습을 탐구한다. [2즐02-01] 봄을 즐긴다.	생명 존중	봄 모습을 살펴본다. 봄 놀이를 즐긴다.	
	봄 나기	[2바02-02] 건강하게 생활한다. [2슬02-02] 봄 생활을 탐구한다. [2즐02-02] 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건강	봄 생활을 살펴본다.	
가족	가족	[2바03-01] 서로를 존중한다. [2슬03-01] 우리 가족을 탐구한다. [2즐03-01]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상호 존중	우리 가족을 살펴본다.	
	친척	[2바03-02] 친(인)척과 소통한다. [2슬03-02] 친(인)척을 탐구한다. [2즐03-02]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소통	친(인)척을 살펴본다.	
여름	여름 맞이	[2바04-01] 지속 발전 가능한 생활을 한다. [2슬04-01] 여름 모습을 탐구한다. [2즐04-01] 여름에 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긴다.	친환경	친환경적인 생활을 한다. 여름 모습을 살펴본다. 여름 놀이를 즐긴다.	
	여름 나기	[2바04-02] 여름 생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2슬04-02] 여름 생활을 탐구한다. [2즐04-02] 여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계획	계획을 세워서 생활한다. 여름 생활을 살펴본다.	
마을	우리 이웃	[2바05-01] 이웃을 배려한다. [2슬05-01] 이웃과 생활하는 모습을 탐구한다. [2즐05-01]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배려	배려하는 생활을 한다.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탐구한다.	
	우리 동네	[2바05-02]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한다.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탐구한다. [2즐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표현한다.		함께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가을	가을 맞이	[2바06-01]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2슬06-01] 가을 모습을 탐구한다. [2즐06-01] 가을을 즐긴다.	감사	가을 모습을 살펴본다. 가을 놀이를 즐긴다.	
	가을 나기	[2바06-02] 협동하고 협력하며 생활한다. [2슬06-02] 가을 생활을 탐구한다. [2즐06-02] 가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협동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덕목	연구진 심의	추가 의견
나라	우리나라	[2바07-01]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갖는다. [2슬07-01] 우리나라를 탐구한다. [2즐07-01]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자긍심	우리나라를 살펴본다.	
	다른나라	[2바07-02]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 [2슬07-02] 다른 나라를 탐구한다. [2즐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한다.	문화 다양성	다른 나라를 살펴본다.	
겨울	겨울 맞이	[2바08-01] 동·식물을 보호한다. [2슬08-01] 사람과 자연(동, 식물)의 겨울나기를 탐구한다. [2즐08-01] 겨울 놀이를 한다.	반성	반성하는 생활을 한다. 겨울 모습을 살펴본다. 겨울 놀이를 즐긴다.	
	겨울 나기	[2바08-02] 나눔을 실천한다. [2슬08-02] 겨울 생활을 탐구한다. [2즐08-02] 겨울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나눔	나눔 생활을 한다. 사람과 동, 식물의 겨울나기를 살펴본다.	

심의의견은 무엇보다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으로서 일관성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심의의견을 제안하였다.

- 소주제 ‘학교와 친구’를 친구로 대체한다.
- 통합교과의 성격을 중심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다.
- 바른 생활의 가치 덕목들을 살펴서 형평성을 보완한다.

학교는 입학 적응 활동과 중복이 있다는 현행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이승미 외, 2020, 2021; 교육부, 2021)의 지적을 반영하여 적응의 공통 요소인 ‘친구’를 추천하였다. 그리고 참여 교사들의 가치 중심의 주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갱신한 ‘바른 생활’과 성취기준에 반영된 ‘가치(덕목)’들을 살펴서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렇게 갱신 초안에 대한 심의의견을 붙이고, 참여 교사들에게 배부하고, 교사들의 수정 의견을 수렴하여 성취기준 갱신(초본)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기 위한 후속 workshop 일정을 계획하고 참여 교사들에게 안내하였다.



#### 4.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수정본) 작성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초본)을 대상으로 참여 교사들이 심의의견과 추가 수정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보완 수정하여 [수정본]을 작성하기 위해서 후속 workshop에 참여하였다.

- 2015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수정본) 작성 workshop
  - 목적: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초본)에 대한 심의의견을 참조하여 갱신안을 수정한다.
  - 내용: 성취기준 갱신(초본)에 심의의견을 참조하여 성취기준 갱신(수정본)을 완성하였다.
  - 일시: 2021년 8월 20일 (금) 오후 12시 ~ 오후 6시
  - 장소: 줌(zoom)을 활용한 화상 workshop
  - 참가자: 연구진/심의진 4인, 참여 교사 10인

연구진은 참여 교사들은 갱신한 [초본]에 대한 심의진의 의견과 참여 교사들이 추가한 의견을 종합해서 workshop 활동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하면서 [수정본]작성 workshop을 시작했다.

〈표 IV-7〉 [수정본] workshop 자료(예시)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덕목 연구진 심의의견	추가 의견
학교	친구	[2바01-01] 우정을 나눈다. [2슬01-01] 친구를 탐구한다. [2즐01-01]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한다.	우정 친구 관계를 살펴본다.	‘친구’영역에서 서술어가 어색합니다. ‘친구 관계를 탐색한다.’ 또는 ‘학교에서 우정을 나눈다.’ 등으로 다듬으면 어떨까요.
	나	[2바01-02] 나를 사랑한다. [2슬01-02] 나를 탐구한다. [2즐01-02] 나를 표현한다.	사랑 나를 살펴본다.	[탐구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성취기준 전체에 해당] ‘나를 탐구한다’와 같이 탐구라는 표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처음 접하기엔 약간 거부감이 들고 어색한 부분이 있음. ‘살펴보다’로 바꾸는 것을 건의함(살펴-보다의 뜻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보다.)
봄	봄 맞이	[2바02-01] 생명을 존중한다. [2슬02-01] 봄 모습을 탐구한다. [2즐02-01] 봄을 즐긴다.	생명존중 봄 모습을 살펴본다. 봄 놀이를 즐긴다.	[계절의 모습으로 표현된 성취기준 전체에 해당] 계절의 모습에 생활 ‘모습’을 내포하는 듯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덕목 연구진 합의의견	추가 의견
				함. 계절 모습을 계절의 특징으로 변경하는 것을 건의함.(특징의 사전적 정의 : 다른 것과 눈에 띄게 다른 점)
	봄 나기	[2바02-02] 건강하게 생활한다. [2슬02-02] 봄 생활을 탐구한다. [2즐02-02] 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건강 봄 생활을 살펴본다.	
가족	가족	[2바03-01] 서로를 존중한다. [2슬03-01] 우리 가족을 탐구한다. [2즐03-01]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상호존중 우리 가족을 살펴본다.	
	친척	[2바03-02] 친(인)척과 소통한다. [2슬03-02] 친(인)척을 탐구한다. [2즐03-02]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소통 친(인)척을 살펴본다.	1. 성취기준이 '예절을 지키며 친(인)척과 소통한다.'나 '친(인)척 간의 예절을 지킨다.'처럼 바른 생활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가족 영역에서 친척과 친(인)척의 차이점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3. 친척과 소통한다는 가정에 많은 과제가 부여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예절 덕목으로 성취수준을 갱신하면 어떨까요?
여름	여름 맞이	[2바04-01] 지속 발전 가능한 생활을 한다. [2슬04-01] 여름 모습을 탐구한다. [2즐04-01] 여름에 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긴다.	친환경 친환경적인 생활을 한다. 여름 모습을 살펴본다. 여름 놀이를 즐긴다.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교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방학을 계획한다 정도가 좋겠습니다.
	여름 나기	[2바04-02] 여름 생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2슬04-02] 여름 생활을 탐구한다. [2즐04-02] 여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계획 계획을 세워서 생활한다. 여름 생활을 살펴본다.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교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방학을 계획한다 정도가 좋겠습니다.
마을	우리 이웃	[2바05-01] 이웃을 배려한다. [2슬05-01] 이웃과 생활하는 모습을 탐구한다. [2즐05-01]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배려 배려하는 생활을 한다.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탐구한다.	이웃과 동네 슬생과 즐생 성취기준에서는 문장 통일이 되어도 좋을 듯 합니다. -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을 탐구한다. -> (수정)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탐구한다. -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 (수정)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표현한다.
	우리 동네	[2바05-02]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한다.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탐구한다. [2즐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표현한다.	함께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가을	가을 맞이	[2바06-01]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2슬06-01] 가을 모습을 탐구한다. [2즐06-01] 가을을 즐긴다.	감사 가을 모습을 살펴본다. 가을 놀이를 즐긴다.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덕목 연구진 심의의견	추가 의견
	가을 나기	[2비06-02] 협동하고 협력하며 생활한다. [2슬06-02] 가을 생활을 탐구한다. [2즐06-02] 가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협동	
나라	우리나라	[2비07-01]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갖는다. [2슬07-01] 우리나라를 탐구한다. [2즐07-01]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자긍심 우리나라를 살피본다.	
	다른나라	[2비07-02]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 [2슬07-02] 다른 나라를 탐구한다. [2즐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한다.	문화다양성 다른 나라를 살피본다.	
겨울	겨울 맞이	[2비08-01] 동·식물을 보호한다. [2슬08-01] 사람과 자연(동·식물)의 겨울나기를 탐구한다. [2즐08-01] 겨울 놀이를 한다.	반성 반성하는 생활을 한다. 겨울 모습을 살피본다. 겨울 놀이를 즐긴다.	1. 겨울 1학년 슬생 사람의 겨울나기와 2학년 겨울 생활은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2. 팔호는 삭제하고 사람과 동식물의 겨울나기로 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 나기	[2비08-02] 나눔을 실천한다. [2슬08-02] 겨울 생활을 탐구한다. [2즐08-02] 겨울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나눔 나눔 생활을 한다. 사람과 동, 식물의 겨울나기를 살피본다.	

[수정본] 작성 workshop은 참여 교사들이 [초본]에 대한 심의의견과 참여 교사들이 제안한 추가 의견들을 고려하면서, 주로 다음 2가지 쟁점을 협의 및 합의하며 수행했다.

- 소주제 재검토
- 성취기준 보완 및 수정

## 가. 주제 재검토

참여 교사들은 우선 8개의 대주제를 전체적으로 유지하는데 다시 한번 더 합의했다.

그리고 대주제별 소주제 16개를 검토하였다. 소주제 간의 일관성과 중복성 등을 고려하면서 협의한 결과, 6개의 소주제를 수정하여 [초본]을 보완하였다.

〈표 IV-8〉 [수정본] workshop 결과(주제 수정)

대주제	[초본]	[수정본]
학교	학교와 친구	친구
	나	
봄	봄맞이	봄 나기
	봄 동산	
가족	가족과 친척	가족 친척
	다양한 가족	
여름	여름맞이	여름 나기
	여름 생활	
마을	우리 이웃	
	우리 동네	
가을	가을맞이	가을 나기
	가을 모습	
나라	우리나라	
	다른 나라	
겨울	겨울맞이	
	겨울나기	

첫째, 계절 주제(봄, 여름, 가을, 겨울)별 소주제를 통일하였다. 가령 1학년 때는 봄맞이, 여름맞이, 가을맞이, 겨울맞이 등 계절이 직관적으로 느끼고, 맞이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면, 2학년 때는 봄 나기, 여름나기, 가을 나기, 겨울나기 등과 같이 계절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소주제 ‘학교와 친구’를 ‘친구’로 수정하였다. 학교와 관련한 활동은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학교 또는 학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통합교과는 교실에서 친구와의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가족이라는 대주제에 속한 소주제를 ‘가족’과 ‘친척’으로 수정하였다. 가족 주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 반영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다른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중복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다루는 방향에서 합의하였다. 특히 친척이라는 주제는 가정마다 처한 여건이나 상황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민감하지만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 중 하나로 판단되어 유지하기로 하였다.

#### 나. 성취기준 보완 및 수정

성취기준은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기준이 된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가르치고 배울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교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자료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교사는 성취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며,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조상연, 2015; 유성열, 2018; 이호담, 2018).

[초본] 작성 workshop에서는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중점이 있었다면, [수정본] 작성 workshop은 갱신한 성취기준 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정본]작성 workshop에서는 [초본]을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재검토하였다.

- 바른 생활과의 성취기준이 지향하는 가치 및 덕목 간의 균형
- 81개 성취기준 진술 문장의 의미 명료화

첫째, 심의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른 생활과의 성취기준이 지향하는 가치 및 덕목을 확인하면서 형평성을 조정하였다.

〈표 IV-9〉 갱신한 바른 생활 성취기준별 덕목

성취기준(코드)	덕목	성취기준(코드)	덕목
[2바01-01]	우정	[2바05-01]	배려
[2바01-02]	자기 사랑	[2바05-02]	더불어 살기
[2바02-01]	생명 존중	[2바06-01]	감사
[2바02-02]	건강	[2바06-02]	협동
[2바03-01]	상호 존중	[2바07-01]	자긍심
[2바03-02]	소통	[2바07-02]	문화 다양성
[2바04-01]	지속가능성	[2바08-01]	환경 보호
[2바04-02]	계획성	[2바08-02]	나눔

이에 [초본]대비 [수정본]은 8개의 덕목을 조정했다.

둘째, 성취기준의 의미를 보다 명료화하기 위해, 성취기준 진술 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문장을 명료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총 81개의 성취기준 중 32개의 성취기준 문장을 교정하였다.

〈표 IV-10〉 의미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성취기준 목록

[초본]	[수정본]
[2바01-01] 친구들과 우정을 나눈다	[2바01-01] 우정을 나눈다.
[2즐01-01] 친구들과 함께 놀이한다.	[2즐01-01] 친구와 함께 놀이한다.
[2슬02-01] 다양한 식물을 통해서 봄을 탐구한다.	[2슬02-01] 봄의 모습을 탐구한다.
[2바02-02] 다양성을 존중한다.	[2바02-02] 건강하게 생활한다.
[2슬02-02] 주변을 탐구한다.	[2슬02-02] 봄의 생활을 탐구한다.
[2즐02-02]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것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2-02] 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바03-01] 서로 존중하고 감사한다.	[2바03-01] 서로를 존중한다.
[2즐03-01] 마음을 표현한다.	[2즐03-01]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2바03-02] 친척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소통한다.	[2바03-02] 친(인)척과 소통한다.
[2슬03-02] 나의 친(인)척을 조사한다.	[2슬03-02] 친(인)척을 탐구한다.
[2바04-01] 안전하게 생활한다.	[2바04-01] 지속 발전 가능한 생활을 한다.
[2슬04-01] 여름을 탐구한다.	[2슬04-01] 여름 모습을 탐구한다.
[2슬04-02] 나의 여름 생활을 탐구한다.	[2슬04-02] 여름 생활을 탐구한다.
[2즐04-02] 여름철 풍경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4-02] 여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슬05-01] 이웃의 생활 모습을 탐구한다.	[2슬05-01] 이웃과 생활하는 모습을 탐구한다.
[2즐05-01] 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5-01]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2바05-02]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다.	[2바05-02]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한다.
[2슬05-02] 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탐구한다.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탐구한다.
[2즐05-02]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바06-01] 나눔을 실천한다.	[2바06-01]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초본]	[수정본]
[2슬06-01] 가을 낙엽, 열매 등을 통해서 가을을 탐구한다.	[2슬06-01] 가을의 모습을 탐구한다.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6-01] 가을을 즐긴다.
[2슬06-02]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 풍속과 비교한다.	[2슬06-02] 가을 생활을 탐구한다.
[2즐06-02] 여러가지 민속 놀이를 한다.	[2즐06-02] 가을 생활을 표현한다.
[2바07-01]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한다.	[2바07-01]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갖는다.
[2즐07-01]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7-01]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2바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실천한다.	[2바07-02]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
[2즐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한다.
[2바08-01] 반성하는 생활을 한다.	[2바08-01] 동·식물을 보호한다.
[2슬08-01] 한 해 동안의 생활을 탐구한다.	[2슬08-01] 사람과 자연(동, 식물)의 겨울나기를 탐구한다.
[2바08-02] 성찰하는 생활을 한다.	[2바08-02] 나눔을 실천한다.
[2슬08-02] 사람과 자연(동, 식물)의 겨울나기를 탐구한다.	[2슬08-02] 겨울 생활을 탐구한다.

성취기준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작업은 주로 추상성으로 치우친 성취기준은 것은 좀 더 구체화하고, 구체성으로 치우친 성취기준은 좀 더 일반화해서 진술 문장의 명료성과 범위 정도를 조정하고 조절하는 작업이었다.

우선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각 교과목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성취기준 술어들을 다시 점검하였다. 가능하면, 슬기로운 생활은 ‘탐구한다’로, 즐거운 생활은 ‘놀이한다(즐긴다)’와 ‘표현한다’로 술어를 통일해서 적용하였다. 또 [2즐01-01]은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것에 중점을 둔 성취기준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친구’로 수정하였고, [2슬02-01]은 봄의 모습을 탐구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만큼, 오히려 교사의 사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식물을 통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2즐03-01]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취기준일 경우, ‘가족에게’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결국, 성취기준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작업은 주로 추상성으로 치우친 성취기준은 것은 좀 더 구체화하고, 구체성으로 치우친 성취기준은 좀 더 일반화해서 진술 문장의 명료성과 범위 정도를 조정하고 조절하는 작업이었다.

이에 참여 교사들이 보완 수정한 성취기준 갱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주제 8개
- 소주제 16개
- 성취기준: 바른 생활 16개, 슬기로운 생활 16개, 즐거운 생활 16개  
(총 48개 성취기준)

〈표 IV-11〉 성취기준 갱신 안 [수정본]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갱신 안
학교	친구	[2바01-01] 우정을 나눈다. [2슬01-01] 친구를 탐구한다. [2즐01-01]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한다.
	나	[2바01-02] 나를 사랑한다. [2슬01-02] 나를 탐구한다. [2즐01-02] 나를 표현한다.
봄	봄 맞이	[2바02-01] 생명을 존중한다. [2슬02-01] 봄 모습을 탐구한다. [2즐02-01] 봄을 즐긴다.
	봄 나기	[2바02-02] 건강하게 생활한다. [2슬02-02] 봄 생활을 탐구한다. [2즐02-02] 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가족	가족	[2바03-01] 서로를 존중한다. [2슬03-01] 우리 가족을 탐구한다. [2즐03-01]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친척	[2바03-02] 친(인)척과 소통한다. [2슬03-02] 친(인)척을 탐구한다. [2즐03-02]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여름	여름 맞이	[2바04-01] 지속 발전 가능한 생활을 한다. [2슬04-01] 여름 모습을 탐구한다. [2즐04-01] 여름에 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긴다.
	여름 나기	[2바04-02] 여름 생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2슬04-02] 여름 생활을 탐구한다. [2즐04-02] 여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마을	우리 이웃	[2바05-01] 이웃을 배려한다. [2슬05-01] 이웃과 생활하는 모습을 탐구한다. [2즐05-01]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우리 동네	[2바05-02]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한다.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탐구한다. [2즐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표현한다.
가을	가을 맞이	[2바06-01]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2슬06-01] 가을 모습을 탐구한다. [2즐06-01] 가을을 즐긴다.
	가을 나기	[2바06-02] 협동하고 협력하며 생활한다. [2슬06-02] 가을 생활을 탐구한다. [2즐06-02] 가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나라	우리나라	[2바07-01]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갖는다. [2슬07-01] 우리나라를 탐구한다. [2즐07-01]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다른나라	[2바07-02]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 [2슬07-02] 다른 나라를 탐구한다. [2즐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한다.
겨울	겨울 맞이	[2바08-01] 동·식물을 보호한다. [2슬08-01] 사람과 자연(동, 식물)의 겨울나기를 탐구한다. [2즐08-01] 겨울 놀이를 한다.
	겨울 나기	[2바08-02] 나눔을 실천한다. [2슬08-02] 겨울 생활을 탐구한다. [2즐08-02] 겨울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5. 성취기준 갱신(안)에 대한 타당화

현행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및 개발의 관점에서 갱신한 갱신안을 크게 두 과정, [초본]작성 workshop과 →후속해서 [수정본] 작성 workshop을 통해서 완성했다.

이어서 성취기준 갱신(안)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적, 질적 평정을 타당화 검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서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균, 사분범위 등으로 환산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환산된 값을 바탕으로 합의도, 수렴도,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이하 CVR) 등을 산출하여 정량적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Lawshe(1975)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 수에 따른 CVR 최소값은 달라지는데, 전문가 집단이 10인일 경우, 통상 0.65 이상일 경우 최소한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본다. 다음으로, 합의도는 0.74 이상, 수렴도는 0.50 이하이 경우 전문가 집단 내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 또는 수렴되었다고 본다(이종성, 2001).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정량적 타당도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균값: 3.50 이상
- CVR: 0.65 이상
- 합의도: 0.75 이상
- 수렴도: 0.50 이하

양적 평정은 교사들이 작성한 성취기준 갱신 안[수정본]의 각 성취기준에 대하여 Likert 4점 척도로 동의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성취기준 갱신(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평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명확한 평정을 위하여 5점 척도가 아닌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적 평정은 이 연구가 전문가 집단 workshop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집단의 의견이 개인의 의견보다 중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상시 존재했다. 이에 그 집단성이 치우칠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종 평정 과정에서 각 성취기준에 대해 개인이 생각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질적인 평정

의견도 동시에 수렴하였다.

[수정본]에 대한 참여 교사들의 양적, 질적으로 구분하여 최종 평정을 진행하여, 평정 결과에 따라(질적 평정 의견은 연구진의 숙의를 거쳐서) [최종본]을 유지, 수정, 삭제하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하여 2015 개정 통합교과교육과정 성취기준 갱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가. 양적 평정 결과

참여 교사 집단의 양적 평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정본]의 48개 성취기준 모두 사전에 설정한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기준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적으로는 48개 성취기준 모두 타당하다고 평정되었다. 성취기준별 양적 평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2〉 최종 평정 결과(양적)

[수정본]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2바01-01] 우정을 나눈다.	3.70	1.00	0.00	0.8
[2슬01-01] 친구를 탐구한다.	3.60	0.81	0.38	0.8
[2즐01-01] 친구와 함께 놀이한다.	4.00	1.00	0.00	1
[2바01-02] 나를 사랑한다.	4.00	1.00	0.00	1
[2슬01-02] 나를 탐구한다.	4.00	1.00	0.00	1
[2즐01-02] 나를 표현한다.	4.00	1.00	0.00	1
[2바02-01] 생명을 존중한다.	4.00	1.00	0.00	1
[2슬02-01] 봄의 모습을 탐구한다.	4.00	1.00	0.00	1
[2즐02-01] 봄을 즐긴다.	3.90	1.00	0.00	1
[2바02-02] 건강하게 생활한다.	4.00	1.00	0.00	1
[2슬02-02] 봄의 생활을 탐구한다.	4.00	1.00	0.00	1
[2즐02-02] 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00	1.00	0.00	1
[2바03-01] 서로를 존중한다.	3.90	1.00	0.00	1
[2슬03-01] 우리 가족을 탐구한다.	4.00	1.00	0.00	1
[2즐03-01]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3.90	1.00	0.00	1
[2바03-02] 친(인)척과 소통한다.	3.70	0.81	0.38	1
[2슬03-02] 친(인)척을 탐구한다.	3.80	1.00	0.00	1
[2즐03-02]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한다.	3.60	0.75	0.50	1
[2바04-01] 지속 발전 가능한 생활을 한다.	4.00	1.00	0.00	1
[2슬04-01] 여름 모습을 탐구한다.	4.00	1.00	0.00	1
[2즐04-01] 여름에 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긴다.	4.00	1.00	0.00	1

[수정본]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
[2바04-02] 여름 생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4.00	1.00	0.00	1
[2슬04-02] 여름 생활을 탐구한다.	4.00	1.00	0.00	1
[2즐04-02] 여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00	1.00	0.00	1
[2바05-01] 이옷을 배려한다.	4.00	1.00	0.00	1
[2슬05-01] 이옷과 생활하는 모습을 탐구한다.	4.00	1.00	0.00	1
[2즐05-01] 이옷과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4.00	1.00	0.00	1
[2바05-02]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한다.	4.00	1.00	0.00	1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탐구한다.	4.00	1.00	0.00	1
[2즐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00	1.00	0.00	1
[2바06-01]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4.00	1.00	0.00	1
[2슬06-01] 가을의 모습을 탐구한다.	4.00	1.00	0.00	1
[2즐06-01] 가을을 즐긴다.	4.00	1.00	0.00	1
[2바06-01] 협동하고 협력하며 생활한다.	3.90	1.00	0.00	1
[2슬06-02] 가을 생활을 탐구한다.	4.00	1.00	0.00	1
[2즐06-02] 가을 생활을 표현한다.	4.00	1.00	0.00	1
[2바07-01]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갖는다.	3.90	1.00	0.00	1
[2슬07-01] 우리나라를 탐구한다.	3.90	1.00	0.00	1
[2즐07-01]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4.00	1.00	0.00	1
[2바07-02]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	4.00	1.00	0.00	1
[2슬07-02] 다른 나라를 탐구한다.	4.00	1.00	0.00	1
[2즐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한다.	3.90	1.00	0.00	1
[2바08-01] 동·식물을 보호한다.	3.90	1.00	0.00	1
[2슬08-01] 사람과 자연(동, 식물)의 겨울나기를 탐구한다.	3.80	1.00	0.00	1
[2즐08-01] 겨울 놀이를 한다.	3.90	1.00	0.00	1
[2바08-02] 나눔을 실천한다.	4.00	1.00	0.00	1
[2슬08-02] 겨울 생활을 탐구한다.	3.90	1.00	0.00	1
[2즐08-02] 겨울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3.90	1.00	0.00	1

## 나. 질적 평정 결과

각 성취기준 갱신(안)에 대한 자유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질적 평정 결과, 총 11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수렴한 평정 결과는 일부는 특정 성취기준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이었지만, 일부는 특정 영역에 해당하는 성취기준 전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이었다. 성취기준 삭제 또는 통합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참여 교사 집단의 질적 평정 결과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IV-13〉 성취기준 갱신(안)에 대한 질적 평정 결과 수렴한 의견 종합

순	의견	대상
1	[2슬01-01]에서 서술어가 어색합니다. '친구 관계를 탐색한다.' 등으로 다듬으면 어떨까요.	2슬01-01
2	'나를 탐구한다'와 같이 탐구라는 표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처음 접하기엔 약간 거부감이 들고 어색한 부분이 있음. '살펴보다'로 바꾸는 것을 제안함(살펴-보다의 뜻 :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보다.).	슬기로운 생활 성취기준 전체
3	계절의 모습에 생활 '모습'을 내포하는 듯함. 계절 모습을 계절의 특징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특징의 사전적 정의 : 다른 것과 눈에 띄게 다른 점).	2슬02-01 2슬04-01 2슬06-01
4	계절 영역 즐거운 생활 성취기준 중 놀이와 관련한 성취기준 어미를 '즐긴다'로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2즐02-01 2즐04-01 2즐06-01 2즐08-01
5	1. 성취기준이 '예절을 지키며 친(인)척과 소통한다.' 나 '친(인)척 간의 예절을 지킨다.'처럼 바른 생활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가족 영역에서 친척과 친(인)척의 차이점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바03-02 2슬03-02
6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보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가 어떨까요?	2즐03-02
7	지속가능발전한 생활을 한다.(지속가능발전이 정식명칭) /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 환경 지속성에서 더 나아가 환경,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지속성을 함께 추구하다 보니 다른 성취기준(2바02-01, 2바08-01)을 포괄해버리게 되는 것 같음. '친환경적인 생활을 한다'로 바꾸는 것을 제안함.	2바04-01
8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교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방학을 계획한다' 정도가 좋겠습니다.	2바04-02
9	이웃과 동네의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 성취기준에서는 문장 통일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슬05-01 2즐05-01 2슬05-02 2즐05-02
10	1학년 사람의 겨울나기와 2학년 겨울 생활은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2슬08-01 2슬08-02

첫째, [2슬01-01]과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은 ‘친구를 탐색한다’가 가리키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자칫 친구 자체를 탐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성취기준에 대한 질적 평정 의견을 수렴하여 ‘친구 관계를 탐색한다.’와 같이 수정하였다.

둘째, ‘탐구한다’라는 성취기준은 1~2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했을 때 다소 부적절할 수 있으며, 3~4학년 교과 교육과정에서 탐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와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가치가 있었다. 이에 슬기로운 생활 관련 성취기준의 어미를 ‘탐구한다’에서 ‘살펴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셋째, 계절의 모습과 생활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이다. 이는 용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적어도 통합교과에서는 계절의 모습은 해당 계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직관적인 모습에 중점을 둔다면, 계절의 생활은 해당 계절에 맞추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습 자체에 중점을 둔다. 이에 좀 더 직관적인 주제에 해당하는 계절의 모습을 1학년에, 좀 더 분명한 내용을 지닌 주제에 해당하는 계절의 생활을 2학년에 배치하고자 하였다. 만일 계절의 모습을 계절의 특징으로 수정한다면, 이전에 지녔던 직관적 성격이 다소 사라지고 내용적 특성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양적으로도 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기존 진술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넷째, 즐거운 생활에서 놀이와 관련한 성취기준의 어미를 ‘즐긴다’로 통일한 것을 제안한 의견은 한편으로는 즐거운 생활 교과가 지향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놀이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표면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2즐02-01], [2즐04-01], [2즐06-01], [2즐08-01]의 어미를 모두 ‘놀이를 즐긴다’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다섯째, 친척과 관련한 주제에서 예절을 중점적으로 다루자는 제안은 우선, 특정 세대 또는 계층에서 생각하는 예절이 다른 세대나 계층에게는 강압이나 제한으로 느껴지는 최근의 사회적 풍토를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도덕이라는 교과와 바른 생활 교과 간의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절을 지키

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친척 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라 판단하여, 기존의 진술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로 수정하자는 제안은 좀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성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 의견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도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학교에서 재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놀이는 놀이가 지니는 목적과 적용 범위 또한 넓고, 학교에서 진행하기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진술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일곱째, 지속 발전 가능한 생활의 공식적인 용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포괄하는 범위는 기존 성취기준이 다루고자 하는 환경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바04-01]를 ‘친환경적 생활을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친환경적 생활이라는 용어는 해당 소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의 적합성도 높고, 용어 또한 1~2학년 학생 수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여덟째,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은 다른 성취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지엽적이며, 이를 실제로 평가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향에 중점을 둔 성취기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취기준은 학생의 도달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취기준의 목적은 물론, 다른 성취기준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바04-02]을 ‘여름 생활을 계획한다’로 수정하였다.

아홉째, 이웃과 동네는 그 대상이 다를 뿐 대상과 관련하여 다루는 경험은 유사하기에 진술 방식을 통일하자는 제안은 이웃과 동네는 그 범위뿐만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마주하는 대상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 둘을 같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기존의 성취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열째, 겨울나기와 겨울 생활은 결국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은 성취기준 간 명료성 확보를 위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다른 계절에서 다루어지는 슬기로운 생활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1학년은 ‘겨울 모습을 살펴본다’로, 2학년은 ‘사람과 동, 식물의 겨울나기를 살펴본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총 10건의 제안 중 6건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양적, 질적 평정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본]에서 보완 수정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V-14〉 [수정본]에서 [최종본]으로 보완한 내용 목록

[수정본]	최종본
[2슬01-01] 친구를 탐구한다.	[2슬01-01] 친구 관계를 살펴본다.
[2슬01-02] 나를 탐구한다.	[2슬01-02] 나를 살펴본다.
[2슬02-01] 봄의 모습을 탐구한다.	[2슬02-01] 봄 모습을 살펴본다.
[2즐02-01] 봄을 즐긴다.	[2즐02-01] 봄 놀이를 즐긴다.
[2슬02-02] 봄의 생활을 탐구한다.	[2슬02-02] 봄의 생활을 살펴본다.
[2슬03-01] 우리 가족을 탐구한다.	[2슬03-01] 우리 가족을 살펴본다.
[2슬03-02] 친(인)척을 탐구한다.	[2슬03-02] 친(인)척을 살펴본다.
[2바04-01] 지속 발전 가능한 생활을 한다.	[2바04-01] 친환경적인 생활을 한다.
[2슬04-01] 여름 모습을 탐구한다.	[2슬04-01] 여름 모습을 살펴본다.
[2슬04-02] 여름 생활을 탐구한다.	[2슬04-02] 여름 생활을 살펴본다.
[2슬05-01] 이웃과 생활하는 모습을 탐구한다.	[2슬05-01] 이웃과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탐구한다.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살펴본다.
[2슬06-01] 가을의 모습을 탐구한다.	[2슬06-01] 가을 모습을 살펴본다.
[2즐06-01] 가을을 즐긴다.	[2즐06-01] 가을 놀이를 즐긴다.
[2슬06-02] 가을 생활을 탐구한다.	[2슬06-02] 가을 생활을 살펴본다.
[2슬07-01] 우리나라를 탐구한다.	[2슬07-01] 우리나라를 살펴본다.
[2슬07-02] 다른 나라를 탐구한다.	[2슬07-02] 다른 나라를 살펴본다.
[2바08-01] 동·식물을 보호한다.	[2바08-01] 반성하는 생활을 한다.
[2슬08-01] 사람과 자연(동, 식물)의 겨울나기를 탐구한다.	[2슬08-01] 겨울 모습을 살펴본다.
[2즐08-01] 겨울 놀이를 한다.	[2즐08-01] 겨울 놀이를 즐긴다.
[2슬08-02] 겨울 생활을 탐구한다.	[2슬08-02] 사람과 동·식물의 겨울나기를 살펴본다.

## 6.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갱신 안 제안

본 연구는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2015 개정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과의 성취기준을 갱신한 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IV-15〉 성취기준 갱신 안 [최종]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학교	친구	[2바01-01] 우정을 나눈다.
		[2슬01-01] 친구 관계를 탐색한다.
		[2즐01-01]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한다.
	나	[2바01-02] 나를 사랑한다. [2슬01-02] 나를 살펴본다. [2즐01-02] 나를 표현한다.
봄	봄 맞이	[2바02-01] 생명을 존중한다.
		[2슬02-01] 봄 모습을 살펴본다.
		[2즐02-01] 봄 놀이를 즐긴다.
	봄 나기	[2바02-02] 건강하게 생활한다. [2슬02-02] 봄 생활을 살펴본다. [2즐02-02] 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가족	가족	[2바03-01] 서로를 존중한다.
		[2슬03-01] 우리 가족을 살펴본다.
		[2즐03-01]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친척	[2바03-02] 친(인)척과 소통한다. [2슬03-02] 친(인)척을 살펴본다. [2즐03-02]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여름	여름 맞이	[2바04-01] 친환경적인 생활을 한다.
		[2슬04-01] 여름 모습을 살펴본다.
		[2즐04-01] 여름 놀이를 즐긴다.
	여름 나기	[2바04-02] 여름 생활을 계획한다. [2슬04-02] 여름 생활을 살펴본다. [2즐04-02] 여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마을	우리 이웃	[2바05-01] 이웃을 배려한다.
		[2슬05-01] 이웃과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2즐05-01]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우리 동네	[2바05-02]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한다.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살펴본다. [2즐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표현한다.
가을	가을 맞이	[2바06-01]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2슬06-01] 가을 모습을 살펴본다.
		[2즐06-01] 가을 놀이를 즐긴다.
	가을 나기	[2바06-02] 협동하고 협력하며 생활한다. [2슬06-02] 가을 생활을 살펴본다. [2즐06-02] 가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나라	우리나라	[2바07-01]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갖는다. [2슬07-01] 우리나라를 살펴본다. [2즐07-01]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다른나라	[2바07-02]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 [2슬07-02] 다른 나라를 살펴본다. [2즐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한다.
겨울	겨울 맞이	[2바08-01] 반성하는 생활을 한다. [2슬08-01] 겨울 모습을 살펴본다. [2즐08-01] 겨울 놀이를 즐긴다.
	겨울 나기	[2바08-02] 나누는 생활을 한다. [2슬08-02] 사람과 동·식물의 겨울나기를 살펴본다. [2즐08-02] 겨울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현행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과 본 연구에서 교사들이 갱신한 성취기준을 비교해 보자.

- 대주제는 유지했다.
- 소주제를 보완 수정하여 개선했다.
  - ‘학교’에서 ‘학교와 친구’를 ‘친구’로 수정하였다.
  - 계절 주제(봄, 여름, 가을, 겨울)를 ‘맞이’와 ‘나기’로 구분하고, 맞이는 모습을 중심으로 나기는 생활을 중심으로 개선했다.
  - ‘가족’에서는 ‘가족과 친척’을 ‘가족’, ‘친척’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가족’은 다양한 나라의 다문화와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족에서 삭제하였다.
- 성취기준은 대강화 했다.
  - 성취기준 수: 81개(바17, 슬32, 즐32)→48개(바16, 슬16, 즐16) 축소
  - 진술 방식 일반성 강화: 단문으로 수정
    - 바른 생활 가치 중심으로 주제에서 열어둠
    - 바·슬·즐 성취기준들 술어의 의미 통일

〈표 IV-16〉 2015 개정 통합교과 성취기준과 갱신 안 비교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본 연구의 갱신(안)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대주제	소주제
학교	학교와 친구	비01-01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슬01-01 학교 인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즐01-01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꾸민다 슬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즐01-02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학교	친구 [2비01-01] 우정을 나눈다. [2슬01-01] 친구 관계를 탐색한다. [2즐01-01]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한다.
	나	비01-0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슬01-03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는다. 즐01-03 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슬01-04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재능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 즐01-04 나의 흥미와 재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		나 [2비01-02] 나를 사랑한다. [2슬01-02] 나를 살펴본다. [2즐01-02] 나를 표현한다.
	봄맞이	비02-01 봄철 날씨 변화를 알고 건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슬02-01 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즐02-01 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슬02-02 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종류와 쓰임에 따라 구분한다. 즐02-02 봄을 맞이하여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		봄 맞이 [2비02-01] 생명을 존중한다. [2슬02-01] 봄 모습을 살펴본다. [2즐02-01] 봄 놀이를 즐긴다.
봄	봄동산	비02-02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슬02-03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찾아본다. 즐02-03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슬02-04 봄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 기르면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한다. 즐02-04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봄나들이를 즐긴다.	봄 봄 나기 [2비02-02] 건강하게 생활한다. [2슬02-02] 봄 생활을 살펴본다. [2즐02-02] 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본 연구의 갱신(안)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성취기준
가족	가족과 친척	비03-01 가족 및 친척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실천한다. 슬03-01 우리 가족의 특징을 조사하여 소개한다. 슬03-01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슬03-02 나와 가족, 친척의 관계를 알고 친척과 함께 하는 행사나 활동을 조사한다. 슬03-02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한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가족	가족	[2비03-01] 서로를 존중한다. [2슬03-01] 우리 가족을 살펴본다. [2즐03-01]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다양한 가족	비03-02 가족의 형태와 문화가 다양함을 알고 존중한다. 슬03-03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살펴본다. 슬03-03 집 안팎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슬03-04 가족의 형태에 따른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알아본다. 슬03-04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놀이를 한다.		친척	[2비03-02] 친(인)척과 소통한다. [2슬03-02] 친(인)척을 살펴본다. [2즐03-02]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여름	여름 맞이	비04-01 여름철의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알고 습관화한다. 슬04-01 여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슬04-01 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슬04-02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 슬04-02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여름	여름 맞이	[2비04-01] 친환경적인 생활을 한다. [2슬04-01] 여름 모습을 살펴본다. [2즐04-01] 여름 놀이를 즐긴다.	
	여름 생활	비04-02 여름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슬04-04 여름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계획한다. 슬04-04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여름 나기	[2비04-02] 여름 생활을 계획한다. [2슬04-02] 여름 생활을 살펴본다. [2즐04-02] 여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본 연구의 갱신(안)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성취기준
이웃	우리 이웃	비05-01 공공장소의 올바른 이용과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슬05-01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슬05-01 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슬05-02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시설물의 종류와 쓰임을 탐색한다. 슬05-02 주변의 장소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놀이한다.	마을	우리 이웃	이웃	[2비05-01] 이웃을 배려한다. [2슬05-01] 이웃과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2슬05-01]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비05-02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안다. 슬05-03 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다. 슬05-03 동네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슬05-04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2비05-02]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한다.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살펴본다. [2슬05-02] 동네의 모습과 생활을 표현한다.
	가을맞이	비06-0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슬06-03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 풍속과 비교한다. 슬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슬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가을	가을 맞이	가을 맞이	[2비06-01]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2슬06-01] 가을 모습을 살펴본다. [2슬06-01] 가을 놀이를 즐긴다.
		비06-02 추수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른다. 슬06-01 가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슬06-02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가을의 특징을 파악한다. 슬06-02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슬06-03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2비06-02] 협동하고 협력하며 생활한다. [2슬06-02] 가을 생활을 살펴본다. [2슬06-02] 가을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가을	가을모습		가을	가을 나기	가을 나기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본 연구의 갱신(안)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대주제	소주제	성취기준	성취기준
나라	우리나라	비07-01 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 슬07-01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슬07-01 우리나라의 상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슬07-02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슬07-02 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나라	우리나라	[2비07-01]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갖는다. [2슬07-01] 우리나라를 살펴본다. [2슬07-01]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비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슬07-03 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슬07-03 다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작품을 전시·공연하고 감상한다. 슬07-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조사한다. 슬07-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즐기고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다른 나라	[2비07-02]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 [2슬07-02] 다른 나라를 살펴본다. [2슬07-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한다.	
	겨울나기	비08-01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슬08-01 겨울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슬08-01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비08-03 겨울방학 생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슬08-02 겨울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등을 조사한다. 슬08-02 여러 가지 놀이 도구를 만들어 겨울 놀이를 한다.	겨울	겨울 맞이	[2비08-01] 반성하는 생활을 한다. [2슬08-01] 겨울 모습을 살펴본다. [2슬08-01] 겨울 놀이를 즐긴다.	
		비08-02 생명을 존중하며 동식물을 보호한다. 슬08-03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 좋아하는 동물의 특성을 탐구한다. 슬08-03 동물 흉내 내기 놀이를 한다 비08-03 겨울방학 생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슬08-04 겨울철에 쓰이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 슬08-04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겨울 나기	[2비08-02] 나누는 생활을 한다. [2슬08-02] 사람과 동 식물의 겨울나기를 살펴본다. [2슬08-02] 겨울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현행 통합교과 성취기준 갱신에 있어 참여 교사들이 성취기준에 바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교육과정 실행 및 개발에 편리한 성취기준’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성취기준 갱신 안은 현장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사 자율성에 한 층 더 친숙한 방향으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2022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개발과 후속하는 교과서 개발 개선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인 의미가 있다.



# V

## 차기 통합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에 주는 시사점

1. 교육과정 개정에 주는 시사점
2.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 V. 차기 통합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에 주는 시사점

### 1. 교육과정 개정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는 차기 통합교과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시사점을 탐색하는 한 방안으로, 현장 기반 현행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을 갱신해 보았다. 즉 국가교육과정에 후속하는 교과서 개발이나, 학교 및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만든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실행 및 개발에 편리한 성취기준’을 개발해 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성취기준 갱신 과정은 곧 현장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사 자율성에 한 층 더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점들을 시사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개정하는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성취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음 2가지 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 대주에 대해
- 성취기준 개발 원칙

#### 가. 주제 관련 시사점

**첫째, 주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현행 2015 통합교과의 주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좀 바꾸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주제는 유지, 소주제는 조정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특히 차기(2022 개정) 교과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안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온정덕 외, 2021: 73).

〈표 V-1〉 현행과 차기 내용 체계(안) 비교

현행(2015 개정)	▶	차기(2022 개정)
3.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유지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역</li> <li>핵심개념</li> <li>일반화된 지식</li> <li>내용요소</li> <li>기능</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역</li> <li>핵심 아이디어</li> <li>지식·이해</li> <li>과정·기능</li> <li>가치·태도</li> </ul>

이에 문서 체제가 다음과 같이 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5 예시)

영역	수와 연산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기능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수의 세계						
수의 연산						



(2022예시)

영역	수와 연산			
핵심아이디어	수의 세계			
	수를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다.			
범주	학년군별 학습 내용			
	초등1-2학년군	초등3-4학년군	초등5-6학년군	중학교1-3학년군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그림 V-1] 현행과 차기의 내용 체제 비교

이런 차기에서는 교과교육과정 개정은;

- 영역으로 구분한다.
- 핵심 아이디어(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 학년군별로 교과 학습 내용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구분하되, 핵심 아이디어와 연계 진술한다.

이렇게 볼 때, 핵심개념을 핵심 아이디어로 바꾸는 것, 일반화된 지식 진술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구분해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주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통합교과는 영역=대주제, 핵심개념=소주제로 설정한다고 보면, 대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소주제는 어떻게 핵심 아이디어로 개발할 것인가를 의사결정 해야 할 것이다.

☒ 주제 체제

- 영역 → 대주제로 치환한다.

☒ 핵심 아이디어 선정

- 핵심 아이디어 → 소주제로 치환한다.

☒ 예상하는 쟁점

- 쟁점1. 주제를 어떤 기준으로 개발할 것인가?
  - 생활 주제: 봄-여름-가을-겨울  
강점: 수업 내용 선정 배경으로서 실용성, 생활의 기반 확보
  - 공간 주제: 학교, 집, 마을, 나라 등  
강점: 범교과 내용을 다루기 좋음, 삶과 학생의 친화성 기반과 조화 확보성
  - 간교과 주제: 변화, 관계, 패턴, 상호작용 등  
강점: 교과 연계성 높음, 교과 교육의 내용적 기반 확보
  - 가치 주제: 정체성, 행복, 인격과 사람 등  
강점: 개인, 집단 정체성 형성이 강함, 인간성 기반 확보

- 쟁점 주제: 지속 가능성, 기후와 환경, AI와 인간 등  
강점: 미래역량과의 연계성 높음, 인간 삶의 기반 확보
- 쟁점2. 대주제를 몇 개 선정 할 것인가?
  - 4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1-1, 1-2, 2-1, 2-2학기 반복학습 할 수 있는 방안  
강점과 약점: 계속성 측면에서 강점 VS 중복성의 우려
  - 8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1학년, 2학년 두 번 반복 학습하는 방안  
강점과 약점: 계속성과 계열성의 균형 유지가 관건임
  - 16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학기마다 독자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방안  
강점과 약점: 학기별로 주제의 다양성 강화 VS 주제별 연계성 약화

통합교과의 대주제 개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이 쟁점은 결국, 통합 방식과 관련이 있다.

☒ 주제 체제

- 영역→대주제로 치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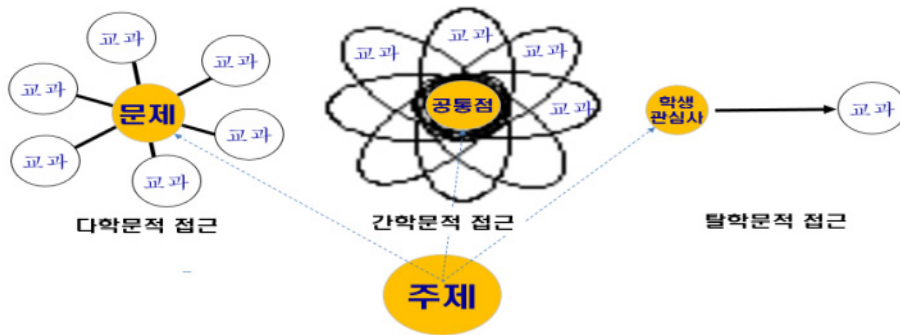
☒ 핵심 아이디어 선정

- 핵심 아이디어→소주제로 치환한다.

☒ 예상하는 쟁점

- 쟁점1. 주제를 어떤 기준으로 개발할 것인가?
  - 생활 주제: 봄-여름-가을-겨울  
강점: 수업 내용 선정 배경으로서 실용성, 생활의 기반 확보
  - 공간 주제: 학교, 집, 마을, 나라 등  
강점: 범교과 내용을 다루기 좋음, 삶과 학생의 친화성 기반과 조화 확보성
  - 간교과 주제: 변화, 관계, 패턴, 상호작용 등  
강점: 교과 연계성 높음, 교과 교육의 내용적 기반 확보
  - 가치 주제: 정체성, 행복, 인격과 사람 등  
강점: 개인, 집단 정체성 형성이 강함, 인간성 기반 확보
- 쟁점 주제: 지속 가능성, 기후와 환경, AI와 인간 등  
강점: 미래역량과의 연계성 높음, 인간 삶의 기반 확보

- 쟁점2. 대주제를 몇 개 선정 할 것인가?
  - 4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1-1, 1-2, 2-1, 2-2학기 반복학습 할 수 있는 방안  
강점과 약점: 계속성 측면에서 강점 VS 중복성의 우려
  - 8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1학년, 2학년 두 번 반복 학습하는 방안  
강점과 약점: 계속성과 계열성의 균형 유지가 관건임
  - 16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학기마다 독자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방안  
강점과 약점: 학기별로 주제의 다양성 강화 VS 주제별 연계성 약화



[그림 V-2] 통합에 접근하는 방식과 주제 개발

Drake & Burns(2004)와 Glatthorn & Foshay(1991)가 구분하는 통합의 방식인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탈학문적(transdisciplinary) 통합에 비워서 주제 개발의 상이점을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문학적 접근으로 주제를 설정할 때는 문제(쟁점)를 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 간의 연계보다는 문제와의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교과를 통합하는 특징이 있다.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전문적인 교과나 학문의 관점을 필요로 하므로 주로 성인교육을 하는 대학 등에서 자주 등장한다.

간학문적 접근은 몇 개의 교과들을 가로지르는 공통 개념을 주제로 개발한다. 이에 간학문적 접근은 통상 통합을 대변해 왔다. 통합하는 교과의 개념을 더 심층적으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교과교육의 지향이나 목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교과의 동의를 얻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분과 중심의 교과교육이 낳고 있는 문제들, 가령, 학습 흥미도, 몰입도, 주도성, 책임감 등의 기존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방치해 온 문제점들을 통합한다고 해도 여전히 해결하

기 힘든 단점이 있다.

탈학문적 접근은 학생이 흥미를 보이는 것, 특히 학생이 사는 실제 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만들어서 교과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에 크게 이점이 있다. 그러나 탈학문 접근에서 주로 보이는 학생들이 가진 사소한 관심사들이 주제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심오하고 무게 있는 학습으로 보지 못하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교사들은 가치 중심의 주제 개발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교실에서 학생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사들이 요청한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점차 교사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속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차기 통합교과 주제 개발에서는 특히 소주제의 설정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나. 성취기준 개발 원칙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갱신하기 전에 이를 위한 몇 가지를 협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중 성취기준과 관련이 있는 것은 두 가지였다.

- 성취기준의 수
- 성취기준 진술 방식

이에 차기 통합교과 개정 과정에서 성취기준 개발에 주는 시사점도 이 두 가지 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취기준 수는 소주제별 1개씩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2015의 성취기준을 갱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수는 소주제별로 1~2개씩 총 81개였다.
  - 바른 생활: 17개
  - 슬기로운 생활: 32개
  - 즐거운 생활: 32개

- 본 연구에서 참여 교사들이 갱신한 성취기준 주는 소주제별 1개씩 총 48개였다.
  - 바른 생활: 17개 ► 16개 (1개 축소)
  - 슬기로운 생활: 32개 ► 16개( 16개 축소)
  - 즐거운 생활: 32개 ►16개(16개 축소)

이에 성취기준은 81개에서 48개로 약 59% 감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로컬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한다는 다소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취기준의 수 축소는 지금까지 국가 수준에서 추진해 온 교육과정 정책 노선인 교육과정 분권화, 다양화, 지역화 나아가서 자율화에 부합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일 수도 있다.

#### 둘째, 성취기준의 대강화 정도를 시사한다.

이는 첫 번째 성취기준의 수 축소와도 관련이 있다. 대체로 성취기준의 수가 많으면 구체성으로, 수가 적으면 추상성으로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 도착점 vs 기대점
  - : 모든 학생이 도달해야 할 최소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 : 학생들이 저마다의 속도와 양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
- 추상성 vs 구체성
  - : 추상성이 높으면 교사와 학생의 내용 선정 폭이 넓어진다
  - : 구체성이 높으면 가르치고 배울 것이 명확해진다.

통합교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과의 성취기준 또한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과교육과정이 따르는 일반적인 지침을 따라서 주로 구체성에서 점점 추상성 방향으로 위치를 옮기는 중이다.

이런 점에서 차기 통합교과 성취기준은 양극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포괄성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셋째, 성취기준 진술 원칙 몇 가지를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workshop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현행 2015 개정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을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각 개인이 낸 의견을 자료로 함께 협의하면서 합의하는 식으로 성취기준을 갱신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갱신하는 지침으로 삼은 것들을 몇 가지 도출할 수 있었다.

- **원칙1.** 대주제에 갇히지 않는 일부 성취기준을 진술한다.
  - 바른 생활과 성취기준을 주제에 열리도록 개발함
- **원칙2.** 성취기준의 통일성을 위해서 의미하는 한 방향으로 술어를 사용한다.
  - 바른 생활(‘실천한다’라는 방향에서 일반동사 상용)
  - 슬기로운 생활(‘탐구한다’라는 방향에서 ‘살펴본다’로 일관)
  - 즐거운 생활(‘표현한다’는 방향에서 ‘즐긴다’, ‘놀이한다’로)
- **원칙3.** 성취기준은 단문으로 진술한다.
- **원칙4.** 성취기준은 포괄적인 문장으로 진술한다.

주제체제를 유지하지만, 주제에 갇히지 않는 성취기준을 개발한다는 말은 다소 역설적이지만, 이는 교사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실용성 측면에서는 최고의 호감도를 지닌 원칙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차기 통합교과 성취기준 진술이 대체로 주제에 열려 있도록, 가능하면 추상성과 구체성을 중간을 견지하도록, 그리고 단문이면서 어느 정도 포괄적인 성취기준을 개발하는 원칙은 대단히 현장 적응적인 원칙일 것으로 예상된다.

## 2.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특히 본 연구에서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갱신하는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만약 현장에서 성취기준을 개발한다면, ‘성취기준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을까?’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 사용자로서 교사가 국가 수준 교과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용처는 크게 두 가지였다.

- 수업을 만들 때: 수업 내용으로 보거나,  
수업 기준을 설정하거나,  
수업 내용으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 학생의 성취를 평가할 때: 평가 대상으로 보거나,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기준으로 사용한다.

교사가 성취기준을 수업과 평가에 사용하면서, 주로 성취기준을 최소형으로, 즉 수업에서 이것만은 꼭 가르쳐야 하는 것, 학생이 그것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를 통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 성취기준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갱신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 주제에 간하지 않는 성취기준
- 술어를 통일해서 의미를 직관할 수 있는 성취기준
- 단문으로 진술한 성취기준
- 포괄적인 문장으로 진술한 성취기준

교사가 특히 이런 성취기준을 요청하는 것은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의 배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 기반, 즉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과 함께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개발한다는 관점을 전제로 성취기준을 보고, 좀 더 활용하기 용이하게 개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교육과정 사용자로서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용어나 용법이라는 관점에서 교사 맞춤형 성취기준을 그려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서 교사 주체성 더불어 학생 주체성을 강화하는 성취기준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방향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후속해서 이를 구현하는 교과서 개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개정하는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을 다음 2가지 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 교과서 재구성 가능성 확대
- 교과서 개발 가능성 열기

### 가. 교과서 재구성 가능성 확대

국가교육과정에 후속하는 교과서 개발은 성취기준별로 수업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교과서 개발자들이 만드는 수업은 성취기준을 세밀하게 전개하는 방식이고, 무엇보다 좀 더 일반적인 몇 학년 학생 전반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표준적인 수업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는 특정 교사가 특정한 교실에서 특정한 학생들의 배움 맥락과 다소 떨어져 있다. 이에 교과서는 교사가 처한 특수한 맥락에서 언제나 어느 정도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차기 교과서 개발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교과서'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차기 통합교과용 도서(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에 다음 3가지 점을 시사한다.

#### **첫째, 지도서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이수하는 성취기준 정보를 표현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을 이수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수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접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교육부 홈페이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URL: <https://www.ncic.go.kr>)를 통해서 성취기준에 대한 정보를 접한다. 또 가까운 지도서에서도 단위별로 이수하는 성취기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저마다의 곳에서 저마다의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수업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한 성취기준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주도한다.

교과서 재구성의 가능성을 좀 더 확장한다는 의미는 수업에서 학생의 요구와 요청에 좀 더 개방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교사는 특히 학생의 요구나 요청을 바탕으로 교과서 재구성의 계기를 마련한다. 따라서 이제는 학생과도 이수하는 성취기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한편으로는 좀 더 포괄적 추상적인 성취기준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문이고 패턴화된 술어를 사용하는 등 좀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취기준을 요구했다.

교과서 어느 지면에서 이수할 성취기준을 표현한다면,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 재 구성의 방향을 협의하고 합의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이다.

가령, 옥스퍼드사에서 발행한 영국의 국어 교과서를 보자.

단원	페이지	독해력
1 Bees	4-7	Bees (non-fiction)
2 Earthworms	8-11	Earthworms (non-fiction)
3 Springtime on the farm	12-15	Newborn (poem)
4 Snowy weather	16-19	Snowy weather (non-fiction)
Check-up 1	20-21	
5 Looking at colours	22-25	Looking at colours (non-fiction)
6 Ears	26-29	Ears (non-fiction, labelled diagram)
7 Chinese penfriend	30-33	Chinese penfriend (letter)
8 Rubbish in our community	34-37	Rubbish in our community (non-fiction)
9 Roman sports	38-41	Roman sports (non-fiction)
10 Anglo-Saxons	42-45	Anglo-Saxons (non-fiction)
Check-up 2	46-48	

## 단원

Page	Unit
1	Life on Earth
1	Weather and climate
2	The changing Earth
2	The Planet Earth
3	The living planet
4	The breathing planet
5	The blue planet
6	The green planet
7	Plants and animals
8	Energy
9	Interdependence
4	Let us Act Now!
5	Let us act now!

## 목표

By the end of the lessons, the students will have learnt:

-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weather and climate;
  - describe the signs of the Water Cycle;
  - how the Sun affects climate;
- that different natural disasters;
  - describe what effect natural disasters have on the environment;
  - relationships between stresses caused by wind and waves;
  - the sea-made disasters;
- relationships between the three parts of the biosphere;
  - describ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hree layers of the biosphere;
  - define how human beings are related to the Earth;
- what and define the function of each layer of the atmosphere;
  - list the three zones of the stratosphere;
  -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zone;
  - list the special features of the Earth living in each zone;
- name the various layers of land and its characteristics;
  - understand what a soil profile is;
  - understan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soil;
-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flowering and non-flowering plants;
  - understand what global warming and the greenhouse effect are;
  -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forests;
  - list the types of forests and their characteristics;
  - know about the threats to animals from humans;
  - list the measures taken to save wildlife;
- understand what an ecosystem is;
  - know about rainforests and deserts as two distinct ecosystems;
  - know about coral reefs as an underwater ecosystem;
- understand what producers and consumers are;
  - w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weather and climate;
    - describe the signs of the Water Cycle;
    - how the Sun affects climate;
  - that different signs are involved in the Water Cycle;
  - how different factors affect climate;
  - how different natural disasters occur;
    - what the terrible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 the different ways in which storms are caused;
    - how man's activities are also causing disasters;
  - what each part of the biosphere consists of;
  - how each part of the biosphere interacts with each other;
  - how man's activities are a threat to the Earth;
  - the names of the layers of the atmosphere;
  - what the function of each of the layers is;
  - the names of the three outer zones;
  - that each zon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Earth living in each zone;
  - that land is divided into three layers;
  -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layers of land;
  - the definition of a soil profile;
  -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soil types;
  - what makes flowering and non-flowering plants different;
  - the definition of global warming;
  - how the greenhouse effect works;
  - why forests are important;
  - the names of different forest types and their characteristics;
  - how animals are under threat from human beings;
  - what efforts are being made to save wildlife;
  - the definition of an ecosystem and its importance;
  -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rainforests and deserts;
  - why coral reefs are an important ecosystem;
  - what are producers and consumers and what roles

[그림 V-3] 영국 국어 교과서(옥스포드사)

교과서 목차에 단원 정보와 페이지 정보뿐만 아니라 성취기준과 관련한 학습 관련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둘째,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주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교사도 자신의 교실에서 특정 주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성취기준을 갱신한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통합교과가 주제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지했지만, 소주제를 보완하는 활동도 보여주었다.

이에 교과서 개발자가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주제를 일관성 있게 개발해서 수업을 만듦으로써, 교사들도 자신의 교실에서 등장하는 주제들을 실제로 반영해서 교과서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예시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 활동과 학생 활동을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지시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과서 개발은 꾸준히 질 좋은 교과서를 지향해 왔다. 이에 종이의 질, 삽화나 사진 등 게재물들을 고급화를 해 왔다.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교사가 사용하기 좋고, 학생이 참여하기 좋은 교과서를 지향해 왔다. 이렇게 사용자(교사와 학생)에게 친절한 교과서를 지향해 오면서 점점 교사가 하는 활동, 학생이 하는 활동을 안내하거나 지시하는 방식이 증가했다. 이에 교사는 교과서의 지시문을 따라가면서 가르치고, 학생도 교과서의 지시를 따라가며 활동하는 방식이 안착하고, 더불어 교과서 진도 나가는 문화도 동행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 수업의 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공공의 공간을 만들어 왔다. 모두가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는 수업 콘텐츠에 안심했고, 모두가 다른 곳에서 조금씩 다른 일정으로 수업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믿음도 생겼다.

그러나 이런 문화의 이면에서는 복잡한 배움과 수업을 점점 더 단순하게 인식하게 하는 점도 있다. 이에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교과서 문화에서 실용성이 높은 교과서의 모습과 구조, 구성을 제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즉 로컬에서 어떤 교사가 어떤 의도든 사용할 수 있도록 좁은 더 열려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런 다소 개방적인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 진도 나가기 문화를 교과서 재구성 문화를 바꿀 수 있다. 교과서 재구성을 통해서 로컬의 환경, 교사, 학생에게 적응하고 맞추는 교과서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서 지시문들은 흔히 교사나 학생이 할 말 혹은 할 행동을 지시하는 문장을 명시하는 편이다.



[그림 V-4] 봄1-1 1단원 학교에 가면(p. 28)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 장소의 이름을 알아봅시다’ 이 문장은 대표적으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시문이다. 교사에게 무슨 말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교사가 뭘 해야 할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는 교사가 할 일과 학생이 할 일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런 편리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 진도를 나가듯이 수업하도록 유혹한다. 무엇보다 수많은 교과과 수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이런 편리함에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기는 좀처럼 어렵다.

따라서 교과서 재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향후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지시문을 제시하는 닫힌 방식, 명시성의 방식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서, 오히려 재구성을 유발하는 다음과 같은 제시어를 넣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 어떤 질문을 해 볼 수 있을까요?
- 우리 주변에서 대체 가능한 활동을 찾아봅시다.

이런 지시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구성을 권장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 나. 교과서 개발 가능성 열기

교사가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교과서에서 만들어 주는 수업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무용하거나 적절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 교사는 성취기준을 교과서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성취기준을 사용해서 교과서 단원에 해당하는 한 단위의 수업을 만들어서 한다.

이제 교과서 개발은 이렇게 교사가 스스로 수업을 만들어서 하는 교사들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개발자로서 교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교과서가 교수학습에 활용할 만한 역할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과서 진도 나가는 교사나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사용하는 교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교사들이 외부에서 개발한 교과서를 활용하는 양상이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교과서는 개발자로서 교사 인구가 점점 증가 하는 현시점 및 향후 시점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유용한 교과서의 모습을 일부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차기 교과서 개발은 로컬에서 자신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과서로써 다소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볼 때, 차기 통합교과용 도서(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에 다음 2가지를 시사한다.

### 첫째, 교사가 교과서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 중심 통합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 문제해결학습, STEAM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일련의 유닛을 개발하는 편이다.

이런 교사들, 즉 교과서를 개발하는 교사들도 ‘그렇지만 교과서 이런 경우에는 활용합니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가령,

- ☒ 노트할 수 있는 학생활동지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 ☒ 읽기 자료로 사용할 만한 참조 자료들이 있어요.
- ☒ 학습 속도가 맞지 않는 친구나 학습에 개입하기 힘든 사정을 가진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수업을 따르지만 같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때도 있어요.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교과서는 학생 활동지, 자료, 특별한 사정을 가진 학생들의 수업을 커버하는 기능을 하며 교과서로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사는 로컬의 특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단원을 직접 만들어서 수업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교사들이 다양한 의도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본디, 교과서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교과서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를 담아서 개발하지만, Tyler(1949)가 다목적의 원리를 지적한 것처럼, 개발자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유연성을 교과서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의 사회 교과서를 보자.



[그림 V-5] 미국 사회과 교과서(p.14-15)

이 교과서는 교사가 사용할 만한 지시어나 학생에게 활동을 안내하는 지시문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교사와 학생이 정한 모종의 다른 의도로도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유통성 있고, 좀 더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기 교과서는 이렇게 교과서 개발자에게도 일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서책 교과서의 의미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인 듯하다.



## 둘째, 교과서에 빈 차시뿐만 아니라, 빈 단원을 둔다.

교과서에 빈 공간을 둔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과서에서 이런 공간은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교사를 자신의 수업을 만들어서 하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교사로 이동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다. 자신에게 주류적인 재구성 활동을 유지하면서 개발자로서 부족한 경험을 보완·축적하도록 한다. 교사의 의도뿐만 아니라 학생의 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다양한 방식들을 접하고 실천해 보는 경험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이런 공간을 교사와 학생이 채우기 위해서, 학생의 요구를 수업 공간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가능하면, 성취기준을 포괄적으로 진술해 주기를 요청했고, 주제에 갇히지 않는 성취기준을 요청했고, 단문으로 진술해 주기를 요구했다.

이런 협의 과정에서 교사들은 “그래야 교실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하는 목소리를 가장 자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2015 개정 통합교과용 도서(주제별 교과서)에서는 ‘구성차시’(수업만들기 차시)를 도입하고, 교사와 학생이 교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차시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7).



[그림 V-6] 봄1-1 2단원 도란도란 봄동산(p.46-47)

단원별로 1-3차시 정도 수업 만들기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로컬 교육과정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면서 성장 시간을 제공한 것이다. 이에 교사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도 이런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광순 외, 2020)

이에 차기 교과서 개발과정에서는 교과서의 이런 구조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더 확장할지 숙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 결과에 비춰 보면,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과 함께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개발하는 관점에서, 즉 수업을 중심으로 보면,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수 있었다.



[그림 V-7]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종합

먼저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주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주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리고 교사들이 요구하는 성취기준 개발을 위한 네 가지 원칙(수, 대강화, 진술방식)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에 후속해서 개발하는 교과서 개발은 향후 교과서 재구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더불어 교과서 개발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가은아, 김종윤, 노은희, 박종임, 강문희, 구본관, 김기훈, 김혜정, 류수열, 박영민, 서영진, 송홍규, 안부영, 안용순, 안혁, 양경희, 이선희 최규홍(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국어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2.
- 곽병선(199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부(1997).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교육부(1998). **제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진 합동 workshop(4차) 자료집**. 2015년 6월 5일.
- 교육부(2015).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 2].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교육부(2017).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워 생활1-1**. 서울: 교학사.
- 교육부(2021). **2022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연구 공청회 자료집**.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개선 및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팀 주최.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권점례, 변희현, 임해미, 장혜원, 김수미, 강태석, 임미인, 신혜진, 장수진, 권미선, 곽정훈, 강소영, 권영기, 윤상혁, 여미주(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수학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6.
- 권점례, 이광우, 신호재, 김종윤, 김정호(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2017-8-2.
- 김기철, 유창완, 신기철, 전영한, 조기희, 차민철, 박정준, 백승수, 김택천, 노수신(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체육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9.
- 김민정(2017). **성취기준 진술방식에 따른 교사들의 해석과 수업계획: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세영(2015). Schwab의 실제적 접근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방법 탐색. **교육과정연구**, 33(1), 167-194.
- 김세영(2017).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을 둘러싼 문제점과 그 해결책. **교육과정연구**, 35(1), 65-92.
- 김신영, 백순근, 채선희(1998).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에 대한 고찰. **교육평가연구**, 11(1), 47-73.
- 김은주, 이진숙, 이훤, 김대현(2016). 2009 개정 초등 과학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활용.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6(6), 911-923.
- 김정호, 박순경, 이인제, 차우규, 류재택, 최승현, 이양락, 이춘식, 유정애, 양종모, 박소영, 이익갑(2004).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2004-29.
- 김정호, 이화진, 채선희, 김진숙, 이재승, 박태호, 황혜정, 윤현진, 조미혜, 양종모, 이경언(199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초등학교 1, 2학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99-9.
- 김주훈, 김영애, 정구향(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 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1-4-6.
- 김한성, 홍원표(2019). 2015 개정 교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활용: 초등 사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7(1), 165-190.
- 김현경, 이재봉, 이신영, 이양락, 박영순, 신영준, 김재우, 박상희, 김정은, 황인신, 김정화(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과학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7.
- 김현수, 윤현진, 김상범, 신호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도덕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3.
- 노철현(2020). 성취기준 적용 사례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연구**, 31(1), 93-108.
- 류재택, 박인옥, 강운선, 정구향(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1-4-5.
- 류재택, 정구향, 강운선, 최승현, 김주훈, 이경언, 임찬빈, 양길석, 정미경, 박승렬, 안양옥, 류재만, 전경숙(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학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0-4-1.

- 류재택, 정구향, 강운선, 최승현, 김주훈, 이정연, 임찬빈, 양길석, 정미경, 박승렬, 안양옥, 류재만, 전경숙(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0-4-1.
- 박순경, 백경선, 이근호, 한혜정, 이승미, 이원춘(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 학교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 총론**. 교육부.
- 박순경, 백경선, 이근호, 한혜정, 이승미, 이원춘, 최유경, 이광우, 강현숙, 김진옥, 김형숙, 박경아, 박제윤, 송교준, 신대광, 안희성, 이무현, 이병승, 이상수, 이은경, 전윤영, 정미옥, 조성연, 조성희, 황보근영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 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3-2.
- 박순경, 이양락, 이광우, 김평국, 이미숙, 정영근, 이희영, 김현진(2004). **7차 교육과정의 쟁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4-3.
- 박은아, 김현미, 최정순, 이소연, 성경희, 이지혜, 정수진, 한동균, 박정애, 승현아, 김나영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사회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4.
- 백경선, 김영은, 김봉제, 박영수, 민부자, 김정윤, 박일수, 안미순, 강영희, 박영일(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합교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13.
- 백경선, 이미숙, 김영은, 김봉제, 박영수, 김정윤, 민부자, 박일수, 안미순, 강영희, 박영일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합교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6-2-13.
- 백남진(2007).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제시 방식에 대한 검토: 한국과 미국 과학(생물)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5(1), 129-159.
- 백남진(2013).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과 교육과정 잠재력. 교육과정연구, 31(3), 201-225.
- 백남진, 오정덕(2021). **빅 아이디어 중심 교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의 연계 방식 탐구: 캐나다 BC 주와 온타리오 주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9(1), 93-122.
- 백순근(1999). 수행평가의 이론적 기초. 초등교과교육연구, 3, 26-49.
- 백순근, 소경희, 조난심(1998).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 변희현, 최승현, 조운동, 권점례, 이광상, 김용성, 박승용, 노창균, 강은주, 임다원, 김보현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수학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3-4.
- 서경혜(2016). 교육과정 재구성 논쟁. **교육과정연구**, 34(3), 209-235.
- 서지영, 김갑철, 김윤희, 김택천, 이정원, 장용규(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09-10.
- 서지영, 안양옥, 정구향(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 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1-4-7.
- 성경희, 신세호, 허정철, 박경숙, 정택희, 김양분(1990).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학교 교육 평가 체제 연구(I)**.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성열관(2005). 교육과정 성취기준 논쟁의 동향 및 평가. **한국교육학연구**, 11(1), 215-236.
- 성열관, 백병부, 윤선인(2008). 성취기준의 차용 및 변용: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 **교육과정연구**, 26(3), 1-22.
- 소경희(2013). 미국의 교과교육에 있어서 국가공통 기준 도입 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주요 쟁점. **교육과정연구**, 31(3), 55-77.
- 양윤정 류재만, 정구향(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1-4-9.
- 양윤정, 박소영, 김정선, 박수자, 박정유, 김선아, 장경아, 김현정(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09-11.
- 양윤정, 박소영, 김정효, 이주연, 이은영, 박정유, 손지현, 박만용, 서진아(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미술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11.
- 오정환, 정구인, 임태홍(2021). 글로벌 압력의 배경에서 미국의 표준교육 개혁 동향: 교육과정 표준화 징후. **교육과정연구**, 39(1), 141-165.
- 온정덕(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2022 개정 교유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왕석순, 정구향(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실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1-4-10.

- 유성열(2018). **초등 교사가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용례 기술**.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유성열, 정광순(2020).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 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33(3), 123-143.
- 윤현진, 박선화, 이근호(2008).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2.
- 이경언, 장근주, 권현정, 김지희, 김미숙, 정진원, 최문정, 최은아(2016).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음악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10.
- 이경언, 정구향(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1-4-8.
- 이돈희, 허경철, 백순근, 김신영, 채선희(1997). **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돈희, 곽병선, 최석진, 허경철, 조난심, 박순경, 홍후조, 김재춘(1997).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 97-36.
- 이미경, 심재호, 김현정, 김동영, 구자옥, 최병순, 김재운, 민경남, 배영혜, 김연귀(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과학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3-9.
- 이미경, 정영근, 권점례, 이근호, 김희경, 이주연, 이명애, 가은아, 김현수, 박은아, 박진동, 김현경, 진의남, 김기철, 이경언, 양윤정, 주형미, 백경선, 김경훈, 장호성, 이근남, 한혜정, 서민철 외(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1.
- 이미경, 정영근, 권점례, 이근호, 김희경, 이주연, 이명애, 가은아, 김현수, 박은아, 박진동, 김현경, 진의남, 김기철, 이경언, 양윤정, 주형미, 백경선, 김경훈, 장호성, 이근남, 한혜정, 서민철(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6-2-1.
- 이수정, 진의남, 권용경, 김용익, 장재성, 왕석순, 한성은, 강익수(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가정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09-12.



- 이승미 외(2021).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연구 공청회 자료.
- 이승미, 박순경, 이병천, 정영근, 이수정, 김선희, 조재윤, 오수정, 김아름(2020). **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설정 방안 탐색**. RRC 2020-8-1.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한나(2019).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으로 본 국정도서로서 교과용도서의 역할과 한계. **한국교육과정학회**, 37(3), 223-247.
- 이호담(2018). **초등 교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사용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임찬빈, 주형미, 이해원, 이영아, 이윤, 권영애, 윤영애(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영어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3-5.
- 임찬빈, 최숙희, 정구향(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 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1-4-11.
- 정광순(2017). 초등교사가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양상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11(1), 213-238.
- 정광순, 이한나, 신태중, 김정하, 이인혜(2020). **초등 국정 통합교과 교과용도서 수정 보완 검토 집필 연구-2015 개정 통합교과서의 개발 의도에 대한 교사의 반응 분석-**.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정구향, 한수자(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1-4-3.
- 정혜승(2007). 성취 기준 중심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23, 183-212.
- 조난심, 윤현진, 이명준, 황인표, 김국현, 유병렬, 정창우, 김봉제, 강익수(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09-9
- 조상연(2015) 초등교사가 교과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 탐색.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5(8), 587-614.
- 조상연(2015). 초등교사가 교과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 탐색.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5(8), 587-614.

- 조성기, 장기범, 민경훈, 이상원, 함명희, 김한순, 강익수(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09-13.
- 주형미, 진경애, 김성혜, 이영아, 이정원, 권영애, 권희주, 강혜정, 조지형(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영어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12.
- 진의남, 권유진, 류상희, 고인규, 김은정, 남승권, 윤병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실과/기술·가정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6-2-8.
- 진의남, 권유진, 전세경, 왕석순, 김은정, 최지연, 김종우, 송일민(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실과(기술·가정)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13-12.
- 진재관, 문영주, 박진동, 신향수, 박주현, 배성호, 정미란, 김옥진, 백유선, 우정애, 김성자(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역사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3-7.
- 차우규, 박승렬, 정구향(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 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1-4-2.
- 최승현, 한경혜, 황혜정, 정구향(200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 예시평가도구의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2001-4-4.
- 허경철(2007). 국가기준으로서의 성취기준 재음미. **한국교육과정학회 3월 월례학술대회 자료집**.
- 허경철, 백순근(1995). 종합생활기록부제의 취지에 따른 교육성취도평가 방안 연구-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제 22**, 273-289.
- 허경철, 백순근, 김신영, 채선희, 구자역, 최돈형, 이인제, 김왕근, 박정미(1996). **국가 공통 절대평가 기준 일반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M 96-04.
- 홍미영, 김미경, 김수진, 김희경, 남민우, 박은아, 상경아, 송미영, 이승미, 이용상, 최유경(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2-2.
- 홍미영, 박순경, 백경선 변희현, 양윤정, 양정실, 이경언, 이미경, 한혜정(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2-1.

홍미영, 박순경, 백경선, 변희현, 양윤정, 양정실, 이경언, 이미경, 한혜정, 최유경(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I) -교육과정 분석 및 성취기준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2-1.

황인표, 이명준, 윤현진, 조난심, 김상범, 김봉제, 이은영, 유병열, 정병석, 김정민, 정창우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도덕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3-8.

Drake, S. M., & Burns, R. (2004). Meeting standards through integrated curriculum.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Oaks, CA: Corwin Press, Inc.

Gewertz, C. (2012). U. S. Common-standards effort informed by ideas from abroad. Education week, 31(16), 21-23.

Glatthorn, A.A., & Foshay, A.W. (1991). Integrated curriculum. In A. Lewy (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urriculum (pp.160-162). NY: PergamonPress, Inc.

Hayden, E. T. (1996). Standards mean business: 1996 National Education Summit. South Carolina Business Journal, 15(4), 6-3/4.

Joyce, B., Weil, M., & Showers, B. (1992). Models of teaching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al Psychology, 28, 563-575.

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Standards and Teseting.(1992). Raising standards for American education: A report to congress, the secretary of education, the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and the American peopl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Ravitch, D. (1995). National standards in American educati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Ravitch, D. (2010). The death and life of the great America school system:

- How testing and choice are undermining education. New York: Basic Books.
- Rothman, R. (2011). Something in common: The common core state standards and the next chapter in American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Education Press.
- Schaefer, R. (1967). The school as a center of inquiry. NY: Harper & Row.
- Schwab, J. J. (1969). The Practical: A Language for Curriculum. The School Review, 78(1), 1-23.
- Schwab, J. J. (1971). The Practical: Art of eclectic. The School Review, 79(4), 493-542.
- Tyler, R. W.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A blueprint for reform: The reauthorization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Retrieved January 24, 2013, from <http://www2.ed.gov/policy/elsec/leg/blueprint/blueprint.pdf>.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es & Bondi. (2011). Curriculum development: A guide to practice (9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William J. Clinton.(1999, September 30). Remarks at the Nation Education Summit in Palisades, New York, United States. Retrieved from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26580>
- Yin, R. K. (2011).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서아영 역). 서울: 한경사. (원서출판 2009).



연구보고서 2021-06

## 초등 국정 통합교과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검토·집필 연구

발행	2021년 12월
발행인	교육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발행처	교육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소	06535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반포동 706-9) 전화: (02) 2651-1950 팩스: (02) 2651-1954 <a href="http://www.textbook.ac.kr">www.textbook.ac.kr</a>
인쇄	신성기획 02) 2279-9920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협의 없이 복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 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비매품〉